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전쟁



노동자혁명당

〈차례〉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전쟁〉

1부.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승리를! 이스라엘에 패배를!

1.1 [긴급성명] "점령자들을 쫓아내야 할 때다!" -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10

1.2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의 국제연대에서 제기되는 전술에 대하여 14

1.3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시온주의 압제자를 응원하다 18

-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의 전쟁범죄 정책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간악한 지지

1.4 러시아 공항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하여 22

1.5 현 가자 전쟁에서 양측 모두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희화적 논리 28

-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도 패배를!' 제기하는 '좌'익소아병 버전의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 대하여

1.6 후안무치하게도 좌파 일각에서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하다 30

- ISA/CWI의 시온주의 영합 및 사회평화주의를 비판한다

2부.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

- 2.1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42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 2.2 "다극 세계질서": 공정 제국주의? 개량 제국주의? 90
- 푸틴 & 시진핑/스탈린주의/"진보 인터내셔널" 등이 제창하는 한 개념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 2.3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116
- 2.4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140
- 1991년 자본주의 붕괴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3부. 전쟁과 노동자계급의임무

- 3.1 한반도 전쟁 위험 212
- 제국주의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 3.2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218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 3.3 모순적 성격을 가진 전쟁에서 맑스주의 전술 220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아프리카/중동/동아시아의 전쟁 위협과 분쟁의 이종적 성격

1부.

가자 전쟁: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승리를!

이스라엘에 패배를!

1.1 [긴급성명] "점령자들을 쫓아내야 할 때다!" -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1.2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의 국제연대에서 제기되는 전술에 대하여

1.3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시온주의 압제자를 응원하다

-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의 전쟁범죄 정책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간악한 지지

1.4 러시아 공항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하여

1.5 현 가자 전쟁에서 양측 모두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회화적 논리

-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도 패배를!' 제기하는 '좌'익소아병 버전의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 대하여

1.6 후안무치하게도 좌파 일각에서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하다

- ISA/CWI의 시온주의 영합 및 사회평화주의를 비판한다

[긴급성명] “점령자들을 쫓아내야 할 때다!” -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긴급성명, 2023년 10월 7일,
www.thecommunists.net

1. 팔레스타인 저항투쟁 주도 세력 하마스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향해 “알 아크사 홍수 작전”이라는 이름의 군사 작전을 발동했다. 전례 없는 기습공격 감행 속에서 팔레스타인 전사들은 텔아비브를 비롯한 이스라엘 도시들에 수천 발의 로켓포탄을 쏘아 보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전사들은 이스라엘-가자 분리장벽을 허물고 이스라엘 측으로 발을 내딛었다. 이스라엘 통신사들에 의하면, 팔레스타인 무장대가 스데로트와 베에리 등 이스라엘 도시들에서 작전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을 포로로 잡았다. 최소 한 대의 이스라엘 탱크가 불타고 있는 상황에서 팔레스타인 청년이 기뻐하고 있는 사진들이 나왔다. 하마스의 군사 조직 알카삼 여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데이프는 성명서를 내고 팔레스타인·아랍 세력들에게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지금은 점령자들을 쫓아내야 할 때다!”라고 덧붙였다.

2. 이 작전은 지난 시기 극렬히 고조된 시온주의 국가에 의한 팔레스타인 인민의 야만적 억압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다. 2007년 이래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어 식료품을 비롯한 생필품과 의약품의 반입을 막았다. 이스라엘 군대는 또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억압을 극도로 강화하였고, 그 결과 10년 새 올해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감옥의 끔찍한 환경 속에서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나아가,

우익 정주자들이 이슬람 3대 성지인 알 아크사 사원을 연속해서 습격하여 신성모독을 자행했다.

3.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점령지 팔레스타인의 동지들 (RCIT 팔레스타인 지부)은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 이 전쟁에서 사회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 그리고 전 세계의 정의로운 인민들은 오직 한 측 — 피억압자 측 — 의 편에 서야 한다.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4. 당연히, 우리는 하마스 (또는 이슬람 지하드) 및 하마스의 소부르주아 민족주의 · 이슬람주의 이데올로기를 지지하지 않는다. 피억압자 팔레스타인 인민의 편에 선다고 해서 우리가 하마스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준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무지한 자만이 팔레스타인 인민이 수십 년 래 민족자결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기본 사실을 무시할 수 있다. 오판하지 말라. 이것은 팔레스타인 인민 측에서 정의의 민족방위전쟁이고,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 측에서는 반동적 억압 전쟁이다!

5. 우리는 전 세계의 노동자·민중 단체들에게 팔레스타인 인민과 그들의 영웅적 저항을 지지하고 연대할 것을 요청한다. 팔레스타인 인민의 편임을 자임하는 모든 아랍 · 무슬림 정부들은 즉각 시온주의 국가와의 일체의 정치적·경제적·군사적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들은 팔레스타인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 의료 원조를 비롯하여 군사 원조까지 — 보내주어야 한다.

6. RCIT는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하는 한 팔레스타인인들은 국가 테러로 계속해서 고통 받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팔레스타인, 붉은 팔레스타인이라는 사회주의적 관점을 내거는 이유다.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의 파괴와 모든 팔레스타인 난

민의 귀환권을 위한 투쟁을 지지한다.

동지들, 형제자매들! 이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주저하지 말고 영웅적
인 팔레스타인 인민을 지지하자! 그들과 연대하자!

팔레스타인 해방투쟁과의 국제연대에서 제기되는 전술에 대하여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3년 10월 27일,
www.thecommunists.net

1.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과 팔레스타인 저항투쟁 정파들의 영웅적 투쟁이 다시 한 번 국제연대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의 전술은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이라는 슬로건으로 요약되는 우리의 원칙적 입장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마스가 이끄는 저항투쟁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한다. 그러나 하마스에게 정치적 지지를 주어진 안 된다. 즉, 우리는 지도부의 강령이나 모든 전술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이 저항투쟁의 군사적 승리를 내건다.

2.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깨부수고 강에서 바다까지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를 만든다는 전략 노선과 결합시킨다. 그러한 국가는 모든 난민의 귀환권을 승인할 것이므로 팔레스타인인이 다수자일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국가는 유대인 소수자에게 완전한 문화적·종교적 권리를 보장할 것이다. 그러한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는 세속적·민주적 성격을 가질 것이며, 중동 사회주의 연방의 일부로서 노동자·빈농 공화국이어야 할 것이다. ("강에서 바다까지 해방된 붉은 팔레스타인을 위하여!")

3. 우리는 서안지구의 완전한 인티파다 (봉기) 재활성화를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노동자·민중의 공회 창설을 촉구한다. 전쟁의 진로에 대해, 가능한 휴전 방안에 대해, 인도적 원조를 조직하고 분배하는 데 대

해, 가자지구 재건에 대해 심의 결정할 노동자-민중 공회 창설을 — 전쟁과 억압의 조건하에서 이것이 가능한 정도까지 — 촉구한다.

4. RCIT는 팔레스타인 저항투쟁과 (중동) 지역의 다른 투쟁들 — 부활한 시리아 혁명, 군사독재에 대한 이집트 민중 저항, 이란의 노동자-민중 항쟁 등 — 의 결합을 제창한다. 즉,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은 2011년 시작된 아랍 혁명의 완결적인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티파다를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라!"). 그러한 혁명적 과정은 궁극적으로 모든 제국주의 열강 (미국, 러시아 등)을 중동에서 내쫓고 시온주의 국가를 파괴하고 지역의 지배계급들을 타도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중동 사회주의 연방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5. 가자 전쟁 현 정세에서 우리는 휴전 요구를 지지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지상 침공을 멈출 것이라는 점에서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의 중대한 승리를 뜻할 것이다. 하마스가 10월 7일 시온주의 국가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전을 펼쳤고, "하마스 박멸"이 이스라엘과 그 서방 지지자들의 공언된 목표였다는 점에서 현 시기 휴전은 이스라엘에게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6. 하마스에 대한 (소)부르주아 이슬람주의 조직이라는 우리의 정치적 비판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해방 투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로 낙인 찍고 비난하는 데 대해 반대하며, 서방 및 그 밖의 나라들에서 하마스에 대한 범죄화 및 금지 조치 철폐를 요구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교전단체로 인정할 것을 (1970년대 및 1980년대 PLO의 경우처럼) 요구한다.

7. 이스라엘이 지상 침공을 시작하면 전쟁이 확대될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시리아-이라크-예멘의 친이란 세

력, 또는 아예 이란까지 분쟁에 돌입하도록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개입이 이 어려운 시간에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을 돕고 동시에 이스라엘 제국주의와 미 제국주의를 모두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강력하게 환영할 것이다. 그러한 충돌에서, RCIT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이들 세력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할 것이다. 그 지도부들(및 이란 몰라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않고서 말이다.

8. 미국은 이 지역에 두 척의 항모전단을 파견하여 역내 군사력 보강을 꾀하고 하고 있다. 이는 동맹국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동시에(지난 몇 년 중국-러시아와의 대결에서 많은 영향력을 잃은) 중동의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중국은 아직 분쟁에 어떤 개입도 시사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지역에 6척의 전함을 파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민족방위 전쟁을 지지해 왔다. 따라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지지도(설사 그 지지가 미국으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환영해 왔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오늘 팔레스타인 저항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실제적 지지를 환영할 것이다.(설사 그것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온 것일지라도). 그러나 미국 전함과 중국 전함의 직접적 충돌 시에는, 우리는 이중 패전주의 입장, 즉 양 제국주의 진영 어느 측도 지지하지 않은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패전주의 입장을 취할 것이다.

9. RCIT는 팔레스타인 해방투쟁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국제적 지지를 촉구한다. 노동자-민중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 세계적 보이콧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대한 일체의 군사적 지지를 사보타지하라. 이스라엘 상품, 친이스라엘 정치·문화 행사에 반대하는 파업과 항의시위, 소비자 불매운동을 전개하자! 동시에, 우리는 진보 유대인 단체들에 의한 모든 친 팔레스타인 활동을 지지해 줄 것

을 강력히 고무 장려한다.

10. 아랍·무슬림 나라들에서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아시아/동유럽의 모든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모든 외교·정치·경제 관계의 전면적인 단절을 요구한다.

11. 우리는 팔레스타인 인민의 대의를 지지한다고 하는 나라들에게, 팔레스타인 인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인도적 원조뿐만 아니라 무기도 포함된다.

12.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대적인 항의시위와 함께 노동자·민중 보이콧을 제창한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체의 정치적·재정적·군사적 지지의 종식을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지배계급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데는 반대한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 열강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것에 우리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듯이 말이다. 언제나, 이와 같은 제국주의 국가에 의한 제재는 2차 세계대전 전야 이래로 트로츠키와 제4인터내셔널을 비롯한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엄격하게 반대해온 사안이다.

13. 마지막으로, 종전 후 중요한 요구가 있다. 이스라엘이 —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서방 열강들도 — 가자 재건 비용을 전액 지불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시온주의 압제자를 응원하다

-이스라엘 시온주의 국가의 전쟁범죄 정책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간악한 지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성명, 2023년 10월 10일,
www.thecommunists.net

1. 10월 7일 새로운 팔레스타인 봉기 시작 이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반복해서 표명했다. 젤렌스키는 "국제사회"에 하나로 단합해서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억압 전쟁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젤렌스키는 나아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느 편에서 있는지를 보여주 기 위해 수도 키이우 청사 광고판에 이스라엘 국기를 점멸했다.

2. 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반동적인 국가 중 하나와 "연대"한다는 무도한 짓거리다! 이스라엘은 아랍 원주민들을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고 (1947/48년 나크바) 만든 식민 정주자 국가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인접 아랍국들을 상대로 반동적 침략 전쟁 (1956년, 1967년, 1973년, 1982년, 2006년)을 벌여왔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점령 영토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잔인하게 억압했고 2008년과 2021년 사이에 가자 지구를 상대로 네 차례 테러 전쟁을 벌여 수천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3. 물론, 젤렌스키가 유대인임을 내세워 친시온주의 동조를 보여 온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며, RCIT를 비롯하여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시온주의 동조를 줄곧 규탄해왔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인민이 아마도 그들의 가장 중요한 투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봉기로 떨어져 일어난 시간에,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가 새로운 나크바를 유발하기 위

해 가자 지구를 잿더미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시간에 그러한 시온주의 동조는 새로운 질의 간악무도한 행위다! 서방 제국주의 상전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 젤렌스키 정부가 어떠한 범죄도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4.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젤렌스키의 시온주의 국가 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또 시온주의 국가의 전쟁범죄 정책에 대한 젤렌스키 정부의 지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반동 정부는 팔레스타인 인민뿐만 아니라 모든 피억압 인민의 적이다.

5. 젤렌스키 정부의 반동성으로 인해, 푸틴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전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인민 측에서는, 의연히 제국주의 식민전쟁에 대항하는 정의의 민족방위전쟁이다. RCIT는 피억압 인민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그 해방투쟁이 서방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든, 러중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든 차별 없이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그 현재 지도부가 누구냐에 관계없이 피억압 인민의 ‘모든’ 해방투쟁을 지지한다. 우리가 미국에 맞선 이라크와 아프간의, 프랑스에 맞선 서아프리카의, 이스라엘에 맞선 중동의 인민 저항을 편 들어온 이유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러시아 제국주의와 그 대리인에 맞선 인민 저항을, 즉 1994-96년 및 1999-2009년 체첸 인민의, 2011년 이라크 아사드에 대한 시리아 인민의, 2022년 2월 이래 우크라이나 인민의 저항투쟁을 지지해 왔다.

6. RCIT는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일관된 반제국주의 강령에 입각하여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한다.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 (미국, 러시아, 중국, 서유럽, 일본)에 반대해야 하며, 동시에 ‘모든’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친 팔레스타인이고 친 우크라이나이며, 변함없는 시리아혁명의 부동의 지지자다.

7. 우크라이나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 민족방위전쟁을 지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시온주의 압제자에 대한 젤렌스키의 대역무도한 지지를 규탄해야 한다.

8. 우리는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에 대한 무조건적 지지를 재차 천명하며 거듭 국제연대운동 건설을 촉구한다. 팔레스타인 인민에게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러시아 공항 반이스라엘 시위에 대하여

RCIT 러시아 지부 & 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 성명, 2023년 10월 31일

1.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량학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대대적인 항의시위를 촉발하고 있다. 수백만 명이 거리에서 학살 즉각 종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유엔 총회조차도 즉각적 휴전과 가자지구 사람들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담은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될 의무를 느꼈다.

2. 러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의 테러전쟁에 대한 그러한 항의시위는 푸틴 보나파르트주의-자본가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서 보다 제약이 훨씬 더 크다. 러시아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022년 2월 24일 이래로 그러한 시위는 훨씬 더 어려워졌는데, 다른 아 나라 정권이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형태의 공개적인 단체행동을 잔인하게 진압해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푸틴 정권이 라이벌 서방을 약화시키기 위해 가자 전쟁을 외교적 주도권을 잡는 데 이용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하마스 지도부 대표단을 영접하기도 했지만), 러시아 국내 언론은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어떠한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의 대다수의 "좌파" 세력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항하여 팔레스타인 저항을 강력히 지지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3. 이 같은 조건에서 지난 주말 러시아연방 북카프카스 지방에서 몇 건의 반(反)이스라엘 폭동-시위가 일어났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승객을 태운 텔아비브 발 비행기가 도착한다는 사실이 알려 지자 시위대 수백 명이 경찰과 충돌하며 다게스탄 공화국 수도 마하

치칼라 공항에 기습 난입했다. 이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다게스탄에 어린이 학살자들이 있을 자리는 없다”고 구호를 외쳤다. 또 다른 시위피켓에는 팔레스타인 국기와 함께 “체첸 인민과 다게스탄 인민은 팔레스타인과 함께 한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다. 다게스탄의 하사부르트 시에서는, 이스라엘인이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시위대가 호텔을 에워쌌다. 이와 별도로 러시아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수도 날치크 시에서는 건설 중인 유대인 문화센터가 불에 탔다. 이스라엘과 서방 열강들은 즉각 이 시위들을 “반유대주의” 폭동이라고 비난했고 러시아 당국은 이미 60명을 체포했다. 푸틴의 꼭두각시 체첸 총독 람잔 카디로프는 앞으로 친 팔레스타인 시위를 막기 위해 법 집행관들은 경고사격에 응하지 않는 시위대를 사살해야 한다고 극언을 내뱉기까지 했다. 부르주아 정부와 언론의 압력에 굴복해 많은” 좌파“들이 이 서사를 채택했다.

4. 언제나 혁명적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맞서 팔레스타인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편 들어왔다. 앞서의 모든 가자 전쟁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명한다.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우리가 하마스가 이끄는 항전의 군사적 승리를 — 항전 지도부의 강령이나 모든 전술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으면서 — 제창하는 이유다. 우리는 이러한 접근법을,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분쇄하고 그것을 강에서 바다까지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 (모든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유대인 소수자의 완전한 문화적·종교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로 대체하는 사회주의적 전략노선과 결합시킨다. 그러한 국가는 세속적·민주적 성격을 가질 것이며, 중동 사회주의 연방의 일부로서 노동자·빈농 공화국이어야 한다. 이러한 혁명적 강령에 입각하여, RCIT 지부들은 현재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중시위에 적극 참가한다.

5. 우리는 북 카프카스의 시위들을 "반유대주의"라고 비난하는 친이

스라엘 프로파간다에 강력히 반대한다. 시위에 그러한 반동적 편견이 일정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지배적인 요소가 아니었다. 그 시위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학살에 의해 촉발된 것이고, 외친 구호들은 이 대량학살과 관련된 것이었다. 시위들이 겨냥한 것은 이스라엘 시민이기보다는 주로 이스라엘 상징물이었다. 만약 이 시위들이 "반유대주의"였다면, 즉 유대인들의 종교나 유대 민족 때문에 유대인들을 겨냥하는 시위였다면, 왜 그 지역에 오래 동안 살고 있는 유대인 소수자를 겨냥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전이 아니고 지금일까?! 시온주의자들이 악랄하게 자신의 테러 전쟁을 "새로운 홀로코스트에 맞선 투쟁"으로 위장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진행 중인 대량학살을 정당화하기 위해 극악무도하게도 역사상 최악의 전쟁범죄를 끌어다 써먹고 있는 것이다!

6.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시위들이 러시아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족 소수자들, 소 민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명백히, 체첸과 다게스탄, 그리고 그 밖의 "자치"공화국들의 피억압 무슬림 대중은 강력히 팔레스타인 인민과 스스로를 동일시한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종교적 유대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러시아 제국 주의의 잔학한 점령으로 고통 받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1년 스탈린주의 쏘연방 붕괴 뒤 체첸이 독립하려고 했을 때 ("이치케리야체첸 공화국"), 러시아는 1994-96년 및 1999-2009년 두 차례의 야만적인 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체첸 주민의 약 1/5이 죽임을 당했고 주민 절반을 넘는 다수가 난민이 됐다.

7. RCIT 러시아 정부는 북 카프카스 피억압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해 온 오랜 입장을 재차 천명한다. 우리는 모든 피억압 인민의 분리·독립 국가를 구성할 권리를 방어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러시아 점령군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민족방위전쟁에 대한 — 반동 켈렌스키 정부에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 지지를 재

차 천명한다.

8. 북카프카스 피억압 대중의 반이스라엘 시위를 러시아 역사에서 악명 높은 배외주의 흑백인조 (검은 百人團)가 지행한 반유대주의 프로그램 (집단학살)과 동일시하는 것은 푸틴주의자들과 "좌파" 언론의 극악한 양두구육의 위선이다. 전자의 시위는 — 그 초보적 성격 및 반동적 편견의 일정한 영향에 상관없이 — 피억압자가 다른 피억압자에게 갖는 연대의식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대조적으로 후자의 프로그램은 지배 민족 (대러시아)의 최악의 쓰레기들이 피억압 (유대인) 소수자를 박멸하려는 욕망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9. 반 이스라엘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비방 선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시위의 모든 행동이나 구호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진짜 "반유대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은 여전히 우리 투쟁의 중요한 요소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된다. 유대인의 종교기관 (예를 들어 유대교 회당)이나 상징물에 대한 공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기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자-민중 자위대 구성이 필요하다. 또, 적은 유대인이 아니라 시온주의 국가라는 점, 이스라엘의 테러전쟁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존재하며, 따라서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그들은 우리의 동맹군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인식개선 캠페인을 활동가들이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가자 지구에 대한 전쟁을 지지하는 이스라엘 시민과, 단지 전쟁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이스라엘 시민 (마히치칼라 공항의 폭동을 유발한 텔아비브 발 비행 중의 이스라엘 시민들의 경우가 그랬을 수 있듯이)을 구별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10. 동시에, 우리는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들과 상징들을 겨냥한 시위를 지지한다. 또 이스라엘과의 무역 및 수송에 반대하는 행동 (이스라엘을 오가는 비행기들을 멈춰 세우는 등

의 행동)과 같은 시온주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 보이콧을 우리는 요구한다. 그러한 행동들은 시온주의 국가를 약화시키는 데 일조하고, 그리하여 팔레스타인 인민의 해방투쟁을 돕는다.

RCIT 국제사무국

사회주의동맹 (RCIT 러시아 지부)

국제주의사회주의동맹 (RCIT 이스라엘/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

현 가자 전쟁에서 양측 모두가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희화적 논리

-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도 패배를!' 제기하는 '좌'익소아병 버전의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에 대하여

노동자혁명당(준), 2023년 10월 27일, <https://blog.wrpkorea.org>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또는 "전쟁을 국내전으로") 슬로건은 남한 같은 제국주의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옳지만, 반식민지 나라/피억압 국에서 제국주의 침탈에 대항하는 민족해방/민족방위 전쟁의 정당한 성격을 부정하기 위한 구호로 제기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틀렸다.

이 전쟁에서 "좌익공산주의" 경향이 바로 그러한 구호를 내걸고 있다. 레닌이 비판한 바 있는 '좌'익 소아병 경향이다. "좌익공산주의"는 우스꽝스럽게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란 같은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들까지 모두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로 (팔레스타인은 "제국주의 이란"의 사실상 대리인으로) 성격규정한다. 그에 따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및 미국)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및 이란)에 대해서도 "전쟁을 계급전쟁으로!" 슬로건을 적용한다.

제국주의 세계질서가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와 (이른바 글로벌사우스 개도국신흥국, 제3세계 등으로 불리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실상 모두 제국주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경우는 누가 봐도 제국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어처구니없게도 "이란 제국주의"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제국주의 억압 전쟁에 맞서 민족해방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 ("이란 제국주의")의 대리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현 "이-팔 전쟁"은 양측 모두에서 제국주의 전쟁이라는 논리다.

“노동자계급의 국제 연대”를 무매개적으로 제기하고 추상적으로 이스라엘 노동자계급과 팔레스타인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내세워 피억압 민족의 민족 전쟁을 부정한다. 추상적 국제주의, 즉 억압민족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와 피억압민족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를 각각 구체적으로 제기하기를 거부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라는 문구로 각각의 임무를 해소하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노선과 방법(론)이 문제다.

이 전쟁에서, 억압민족 이스라엘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제국주의 억압전쟁을 수행하는 '자국'의 패전을 촉진하고 이 전쟁을 국내 전내란 (계급전쟁)으로 전화하는 것인데 반해 피억압·피점령 팔레스타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는 결코 '자'국 패전일 수 없고 이어서도 안 된다. 방위주의 임무, 즉 민족자결/민족해방 전쟁에 참가하고 나아가 이것을 노동자계급 주도의 인민전쟁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팔레스타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다. 이렇게 각각의 임무가 구체적으로 서로 다른 가운데 노동자계급 국제연대가 실현된다.

그렇지 않고 피억압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슬로건, 즉 자국 패전 촉진 투쟁 슬로건을 제기하는 것은 이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에게도 패배를!" 제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제국주의적 경제주의가 노동자계급 국제연대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파괴하는 정세인식 방법(론)이고 노선인 이유다.

후안무치하게도 좌파 일각에서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하다

- ISA/CWI의 시온주의 영합 및 사회평화주의를 비판한다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3년 10월 25일, www.thecommunists.net

언제나 세계정치의 대 사건들은 사회주의 조직들의 강령과 노선을 검증하는 결정적인 시험대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랬고 현 가자 전쟁도, 즉 이스라엘이 현재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인민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도 그러하다.

RCIT을 비롯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해 왔고[1], 오늘 시온주의 국가의 야만적인 공격에 맞서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을 지지한다. 우리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언제나 우리는 억압자에 맞서 피억압자의 편을, 제국주의 국가에 맞서 반식민지의 편을, 억압 민족에 맞서 피억압 민족의 편을 들기 때문이다.

이는 맑스주의자로서 우리가 피억압자 측 저항세력 (이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군대, 그리고 하마스를 위시한 팔레스타인 저항군 정파들)의 투쟁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다. 지도부가 누구냐에 관계 없이 그 투쟁을 무조건 지지한다. 지도부에게 정치적 지지를 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 구체적으로, 혁명적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젤렌스키나 하마스 지도부의 부르주아 민족주의/이슬람주의 정치에 반대한다.

혁명적 사회주의를 자임하지만 기회주의 전통에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두 조직 ISA(국제사회주의대안)와 CWI(노동자인터내셔널위원회)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에서 모두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중립 입장, 즉 반동적 기권주의 입장을 제창하며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 전쟁을 "대리전쟁"이라고 비난한다.[2]

하마스나 이스라엘이나 도간개긴?

가자 전쟁에서는, 두 조직 모두 사회평화주의·친시온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3] 그들은 전쟁에 반대하지만 현 전쟁에서 팔레스타인의 항전을 지지하기는 거부한다. 이스라엘에 지부를 두고 있는 ISA는 하마스와 시온주의 이스라엘 국가를 별반 다를 바 없는 세력이라며 통쳐버린다. "하마스는 우파 친자본주의 세력으로 지난 17년 동안 가자의 집권당으로 기능해왔다. 하마스는 노동자들의 파업을 탄압하고 여성, 성소수자 권리를 억압하는 경찰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하마스를 팔레스타인 대중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하마스는 본질적으로 반노동자 조직이다."

그리하여 ISA는 "모든 희생자들"과의 연대를, 즉 피억압 민족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억압 민족의 희생자와의 연대를 표한다. "ISA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부는 평범한 사람들과 연대한다. 울타리 양쪽 사망자의 친척 및 모든 지역공동체의 부상자들과 연대한다. 그리고 납치된 민간인들과 연대한다." (또 다른 인용구: "우리는 전쟁과 테러의 모든 희생자와 연대하고, 일어서 맞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

CWI도 사실상 같은 입장을 취한다. "사회주의자들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우파 정치적 이슬람에 기반을 둔 당들에 지지를 줄 수 없다. 그들은 노동자의 권리와 성소수자 권리 그리고 여성 평등에 반대한다.

그리고 그들의 군사 전략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해방도, 인간다운 생활수준도, 분쟁의 종식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자본주의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전진하는 길은 부유한 엘리트들의 이익과는 독립적으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이익에 기반을 둔 대중투쟁 - 사회주의 인티파다 - 을 민주적으로 조직하는 것을 통해서 열릴 것이다.”

피억압자의 투쟁을 버리는 패로 취급하다

하마스나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도간개인이라며 통 치는 것은 실로 후안무치한 짓이다. 하마스가 "친자본주의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피억압 민족들의 투쟁 중 지도부가 "친자본주의적"이지 않은 투쟁이 얼마나 있었는가? 혁명적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대중의 투쟁 지도부를 떠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은 한, 그러한 민족해방 투쟁은 보통 "친자본주의적" 세력들에 의해 이끌릴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어떻게 사회주의자들이 대중의 투쟁을 편 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능한가?!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 수단, 미얀마, 우크라이나, 체첸 등에서 (즉, 비 혁명적 지도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바와 같은 대중의 투쟁에 대해 버리는 패로 취급하는 논리가 어떻게 사회주의자에게서 가능한가?!

현재 대부분의 노동자 투쟁이 못지않게 "친자본주의적"인 노동조합 상층 관료에 의해 이끌린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단지 노동자들이 아직 올바른 지도부를 올려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자들이 계급투쟁을 버리는 패로 취급할 권리를 부여 받는가?! 반동들만이 그러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트로츠키주의”를 자임하는 ISA/CWI 지도부들은, 민족투쟁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라는 트로츠키의 언명을 무시하는가? "종파주의자는 미로처럼 가장 복잡하면서도 동시에 극히 중요한 계급투쟁 형태 중 하나인 민족투쟁이 미

래의 세계혁명에 대한 양상한 언급으로 중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한다."[4]

혁명가들은 정당한 투쟁을 제쳐놓지 않고, 통일전선 전술을 바탕으로 그러한 투쟁에 참가할 때에만 대중 속에서 영향력을 득할 수 있다. 그러한 입장은 대중에게 비 혁명적 지도부의 한계와 오류를 설명하는 것과 결합되어야 한다. 사실상 ISA/CWI의 접근법은 피억압자의 정당한 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명분이다. 즉, 거부 입장 정당화 논리다. (1982년 말비나스 ["포클랜드"] 전쟁에서 제국주의 영국과 반식민지 아르헨티나 양측 모두에 대해 패전주의를 내건 그 기회주의 전통에 뿌리를 둔 모든 조직이 그 때 이래로 되풀이해서 이 같은 입장을 취해 왔다).[5] 이는 계급투쟁 방기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비겁한 중도주의자들과는 대조적으로, RCIT 이스라엘/섬령지 팔레스타인 지부는 원칙 있는 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한다.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6], "하마스 와 아랍 대중에게 승리를! 시온주의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타도!"[7]. 우리는 하마스의 강령과 방법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해서 표명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마스를 "테러 단체"라고 부르며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의 주도 세력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려는 제국주의 열강 및 그들 언론의 비난 규탄을 거부한다.[8] ISA/CWI의 하마스에 대한 설익은 형태의 비난은 이러한 제국주의 프로파간다의 영성한 모조품이다.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

ISA와 CWI가 팔레스타인 저항투쟁의 편을 들지 못하는 데는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부정하고 민족 억압에 맞서 싸우는 강령을 거부하는 데 그 뿌리가 있다. 제국주의 하에서 억압민족과 피억압민족으로 나뉘

는 것을 부정하며, 자본주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 반식민지를 구분하
길 거부하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실상 모두 제국주의 국가라고 간주하
는 이러한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에 대해 우리는 특별 팜플렛
에서 상세히 비판한 바 있다.[9]

팔레스타인의 경우, 이러한 접근법은 특히 어이없는데, 이것은 두 민족
간의 "통상적"인 분쟁이 아니라 특수한 분쟁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
스라엘은 원주민 팔레스타인을 추방하는 바탕 위에서 존재하는 — 그
리고 오직 그렇게만 존재할 수 있는 — 정착민-식민주의 국가였고 지
금까지 그러하다. 그러나 ISA와 CWI는 이 사실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
회주의적" 2국가 해법을 제창한다.

따라서 ISA와 CWI는 "자신의 국가를 창설할 이스라엘 인민의 민족
적 권리를 인정한다." [10] 다시 말해, 억압의 희생자뿐만 아니라 그러
한 억압으로부터 이득을 얻는 자 모두 같은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
다. 이제 여기서 결론으로 CWI/ISA의 2국가 해법이 나온다. "우리는
또한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지지하며, 지역 사회주의 연방의 일
부로서 사회주의 이스라엘과 함께 독립·사회주의 팔레스타인을 제
창한다." [11]

현 상황에서는, ISA는 다소 희석된 형태로 이 입장을 제창한다. (팔레
스타인-아랍 대중 속에서 이런 입장이 아주 인기 없다는 사실에 확실히
영향을 받은 것이다). "휴전 경계선 양쪽에서의 대중투쟁과 울타리
양측 공동체들의 재건을 위하여, 그리고 이 지역의 사회주의적 변화를
위한 투쟁의 틀 속에서 생존권, 자결권, 인간다운 삶을 기반으로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하여"

이와 같이 ISA와 CWI는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억압 민족의 "자결
권"과 같은 지평에 놓고 있다. 사실상 이는 수백만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온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적" 영합이라는 부끄러운 입장을 근거로 해서 볼 때, ISA와 CWI가 이스라엘 아파르트헤이트 국가에 대항해 투쟁하는 팔레스타인 저항세력을 지지하길 거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RCIT 이스라엘/점령지 팔레스타인 지부의 접근법은 매우 다르다. 최근 발표한 문서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중동 노동자계급·피억압 대중의 사회주의혁명"을 제창한다. "우리는 시온주의 국가의 파괴와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무조건적인 귀환권, 그리고 강에서 바다까지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찬성한다. 이러한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는 지역 전체 사회주의연방의 일부로 민주적·세속적인 노동자·빈농 공화국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단일 팔레스타인 국가에서 유대인은 완전한 종교적·문화적 권리를 가진 소수자일 것이다. 또 이러한 전략은 인민대중에 의한 아랍·페르시아 지배자들의 타도를 목표로 한다." [12]

[1]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RCIT 문서 160여 편이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미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3/02/1-rcit.html>.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ISA의 입장을 비판한 우리의 최근 기사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Beating the Dum-

my. A commentary on a hidden polemic of the ISA against its internal critics, 27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ukraine-war-beating-the-dummy/>

[3] ISA의 다음 문서들을 보라. Amid Normalization of Occupation and Siege, New War Erupts, 9 October 2023,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3/10/israel-palestine>; Stop the Onslaught on Gaza, 21 October 2023,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3/10/israel-palestine-2>; “The Middle East is on the Brink of Falling Into the Abyss” — The Gaza War Enters Its Third Week, 23 October 2023 <https://internationalsocialist.net/en/2023/10/israel-palestine-4>; CWI의 문서들은 다음을 보라. Stop the Israel-Gaza war! For workers’ unity and struggle against national conflict and oppression, 9 October 2023, <https://www.socialistworld.net/2023/10/09/stop-the-israel-gaza-war-for-workers-unity-and-struggle-against-national-conflict-and-oppression/>. (이 글의 인용문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두 위 문서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4] Leon Trotsky: Independence of the Ukraine and Sectarian Muddleheads (July 1939), in: Writings 1939-40, p. 50, online: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9/07/ukraine.htm>

[5]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서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6] 2023년 가자 전쟁에 대한 RCIT 최신 문서들을 모아 정리해놓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들어가 볼 것을 독자들에게 권한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mpilation-of-articles-on-the-gaza-uprising-2023/>. 특히, 11개 언어로 발표된 다음의 첫 번째 RCIT 성명을 보라. <[긴급성명] “점령자들을 쫓아내야 할 때다!”- 영웅적인 팔레스타인 저항을 지지하자!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2023년 10월 7일, <https://blog.wrpkorea.org/2023/10/blog-post.html>.

[7] Yossi Schwartz: More News from the War, 9.10.2023, <https://the-isleague.com/more-news-from-the-war/>

[8]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하마스 “테러 단체” 운운에 대하여>, 2023년 10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3/10/blog-post_21.html

[9] 이에 대해서는 다음 팸플릿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overty of Neo-Imperialist Economism. Imperial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 a critique of Ted Grant and his school (CWI, ISA, IMT), Jan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antism-imperialism-and-national-question/>

[10] Peter Taaffe: What's Left? - not Nick Cohen! 08/03/2007, <https://www.socialistparty.org.uk/articles/2154/08-03-2007/what-s-left-not-nick-cohen/>

[11] Peter Taaffe: A socialist World is possible - the history of the CWI, CWI Publications & Socialist Books, London 2004, p. 86, <https://>

internationalsocialist.net/en/pdf/docs/CWI_History2004.pdf

[12] Michael Pröbsting: Gaza Uprising: Another Turning Point in the World Situation. Thoughts on Israel's war against the Palestinian people and its possible regional and global consequences, 11 October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gaza-war-and-consequences-for-world-situation/>

2부.

오늘날의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

2.1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2 "다극 세계질서": 공정 제국주의? 개량 제국주의?

- 푸틴 & 시진핑/스탈린주의/"진보 인터내셔널" 등이 제창하는 한 개념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2.3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2.4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해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정세인식 토론 총괄정리: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노동자혁명당(준), 2023년 5월

I. 자주파: 탈미자주의 새로운 세계질서와 “다극화”

- 1) 자주파의 “다극화”론: 비(非)제국주의 세계질서?
- 2) 반제국주의 임무를 대신하는 ‘탈미자주’의 대외정책 전환
- 3) 다극 세계질서와 남한 국가: 자주파의 탈미친중 견인과 계급협조
- 4) “다극화”론 = 강대국 패권경쟁 가속화/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지간 모순 격화를 은

폐하는 이데올로기

- 5)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고조와 함께 반식민지에 대한 공격·침탈도 고조되고 있다
- 6) 현 세계질서와 레닌 제국주의론

II. <전진>: 제국주의-반식민지 모순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대리전” 이론

- 1) 억압민족-피억압민족 구분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
- 2) 맑스주의 반식민지 규정
- 3) 민족해방전쟁 없는 오직 “대리전”뿐인 세계질서?
- 4)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세인식과 “대리전” 이론
- 5) 민족자결권 부정의 정세인식 논리: “오늘날의 상황”에선 북한도 “대리전”?
- 6) “노동자 세계 혁명 전망”과 민족해방전쟁
- 7)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반제국주의 임무

오늘 미·중 대결을 비롯한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세계 질서 전환’에 관한 담론이 운동진영 내에서도 대거 유통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과거 냉전 구도를 떠올리는 서방 대 러·중 대립구도와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다시 새롭게 부각되면서 “세계질서가 근본에서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라거나, “다시 한 번 전 세계가 위기와 전쟁으로 뒤덮이는 시대”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현 시기 격동적인 세계사적 사건들을 고려할 때, 미·중 간 충돌을 비롯한 서방 대 중·러 대립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정세인식의 중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역시 당연하게도 이러한 정세인식 토론은 현대 제국주의 규정과 제국주의론에 대한 인식, 그리고 특히 중국·러시아와 같은 신흥 열강에 대한 계급적 성격규정 문제를 끌어들인다.

노동운동 내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 민족자주파는 서방 대 중·러 대립을 제국주의 진영에 대항하는 반제 진영의 대결이라며, 미·중 대결을 비롯한 현 시기 가속화하고 있는 강대국 패권경쟁에 대해서도 제국주의 간 경쟁임을 부정한다. 자주파는 따라서 노동운동이 이 대결에서 미국(및 그 동맹들)에 대항하여 중·러를 편 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제국주의는 미국뿐이고, 반면 중국은 “사회주의”며 러시아는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제국주의의 미국에 맞서는 반제 세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 자주파의 “다극화”론: 비(非)제국주의 세계질서?

이러한 논리의 연장선에서 자주파는 러시아 푸틴 정권과 중국 시진핑 정권이 함께 내걸고 있는 “다극 세계질서”론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중러 진영의 지배계급 이데올로그들은 미국 주도의 “일극” 제국주의 체제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지 않는 “정의로운 민주적 다극 세계질서”로 대체되고 있고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자주파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세계질서전환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패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에 패권이 없어지는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는 것이다.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명실상부 새로운 세계질서, 다극화 세계질서를 주체적으로 세우는 과정인 것이다. 다극화 세계질서는 미국처럼 일극패권국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극이 되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호혜와 평등, 견제와 균형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통일시대, <손정목의 세상읽기> 현 정세인식의 37기 오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51>)

미중 대결에 대한 태도 문제와 함께 정세인식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다극 세계질서”론은 한편으로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상의 주요 문제들을 제기한다. 오늘날의 제국주의는 무엇인지, 노동자계급 · 피억압인민의 오늘날 반제국주의 과제는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또는 그러한 반제국주의 과제가 더 이상 있거나 한 것인지), 나아가 레닌 제국주의론을 비롯한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은 오늘날의 세계정세에, 21세기 글로벌 경제·정치 현실에 여전히 유효한지 (아니면 시대에 뒤져 낡았는지) 등의 문제들까지 쟁점이 번지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다극세계질서론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에서도 다양한 세력이 저마다의 내용을 채워 계급·계층 속에서 유포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속에서는 자주파가 이 담론을 가장 정력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자주파에 의하면, 다극 세계질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같은 지배와 예속 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세계질서”다. 오늘의 세계가 기존 미국 ‘일극’의 제국주의 세계 질서에서 이 같은 다극 비(非)제국주의 세계질서로 나아가는 전환기에 있다는 정세인식인 것이다. (서방 대 중러 대결 등 이른바 “진영 대결구도” 또는 “신냉전” 대결구도도 이러한 탈 제국주의 다극화 세계질서 전환의 한 부분이라고 규정한다.)

“다극화세계질서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는 성립될 수 없다. 모든 예속국가들은 자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선행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중남미 거의 전역에 진보적 자주정권이 들어서고, 중동의 친미국가들이 탈미화 하여 자주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아프리카연합(AU)국가들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세계사적 대 변화다. 이들 나라 모두는 중러와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고, 맺으려 하고 있다.

미국의 지배와 예속, 압박과 간섭에 시달리던 수많은 신흥국(global south)들이 이제 자주적 정권, 자주적 정책을 내오면서 미국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역인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월 새로운 국제안보질서인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GSI)’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이 6개 원칙에는 주권평등과 냉전적 사고, 일방주의, 패권주의 반대 등이 제시되었다. 이렇듯 평등과 호혜의 새로운 세계질서 건설에 한국, 일본, 유럽과 같은 예속국들은 참가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듯 다극화세계질서는 패권이 아예 없어지고 오직 주권국가들만이 참가할 수 있는 자주의 신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질서 전환을 위한 투쟁은 인류의 자주적 염원에 부응하는, 더 이상 지배와 예속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인류사적 진보다.” (위 통일시대, 같은 글)

2) 반제국주의 임무를 대신하는 ‘탈미자주’의 대외정책 전환

중러가 탈미자주의 다극화 세계질서를 여는 진보의 기수이므로 “중러와 우호적 관계를 맺”는 “자주적 정권, 자주적 정책을 내오는” 것이 진보진영의 투쟁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세계질서에서 중러는 비제국주의 진보 세력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이지만, 이 문제는 일단 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제기된 문제부터 이야기해보자. 자주파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의 기존 세계질서에서 “더 이상 지배와 예속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전환하는 투쟁을 “자주적 정권, 자주적 정책을 내오는” 문제로 제기한다. 즉 중남미에서 새로 들어선 룰라 정권이나 중동에서 사우디-UAE처럼 “자주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그러한 대외정책 전환을 ‘세계질서 전환 투쟁’의 주요 기제로, 핵심 지렛대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조차도 “자주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이기보다는 실리 외교 차원에서, 즉 기존 친미 중심 또는 친미 일변도에서 미중 간 등거리 외교정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브라질 룰라 정권이나 사우디 정권 등이 “자주적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 즉 강대국 사이의 ‘중립’ 외교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 “미국 패권 몰락” 정세를 일으킨 원인이 아니라 그러한 정세가 낳은 효과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자주적 태도” 전환은 다극화를 밀어가는 동력이 아니라 미국 절대 패권의 종식으로 이미 다극화된 질서의 반영이다. 룰라의 중국-러시아 순방을 통한 ‘탈미’ 행보는 세계정치의 새로운 변동을 상징한다기보다 이미 진행된 주요 변동을 반영하는 것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십여 년래 미국의 절대 패권이 소멸되고 미 제국주의가 쇠퇴를 맞고 있는 한편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신흥 열강으로 떠올랐고, 특히 중국은 미중 대결 속에서 새로운 패권도전자로 부상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최대 무역 파트너도 이미 중국이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자본/독점체들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주요 외국인투자자다. 룰라의 탈미 대

외정책 전환은 미국이 자신의 “뒷마당”에 대해서도 장악력을 이미 잃고 있는 정세의 효과이자 반영인 것이다. 최근 아르헨티나가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국제 협력기구)에 정식 가입 신청을 한 것도 이러한 정세 발전의 또 다른 결과물이다. 이와 같이 미국의 절대 패권이 종식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주요 주자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이들 정권들의 탈미 대외정책 전환은 이미 예견된 것으로, 무슨 “자주의 신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돌파 같은 것으로 성격 부여하는 것은 아전인수식 평가거나 희망적 사고에 따른 평가에 불과하다.

그 보다 더 문제는 반제국주의 의무, 민족해방 과제의 철저한 실종이다. “세계질서가 근본에서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니 “자주의 신시대”니 운운하면서 정작 제국주의-식민지 관계, 지배-예속 관계를 타도 청산하는 반제국주의 의무를 정권의 정책 문제로 축소, 왜곡하고 있다. 식민지·반식민지 피억압 인민의 민족해방 과제를 대외 ‘정책’ 전환의 문제로 호도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반식민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해방 전쟁은 미제의 대리전쟁이라 비난하고, 패권 공백을 틈탄 브라질 룰라 정권의 미중 간 줄타기 실리외교는 자주의 신시대를 여는 세계질서 전환투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는 것이다.

자주피는 제국주의 타도 없이도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질서로 나아갈 수 있다며 노동자들 속에서 “다극세계질서” 깃발을 흔들어댄다.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 민족해방혁명 없이도 정권들의 대외정책으로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내올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속인다. 제국주의 금융자본에 의한 경제종속 초과착취와 민족억압의 굴레를 깨부수고 떨쳐버리는 것 없이도 단지 대외정책 전환으로 “더 이상 지배와 예속 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인류사적 진보”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내올 수 있다고 노동자들을 속인다.

문제는 대외‘정책’이다! 문제는 제국주의 ‘체제’가 아니다! 제국주의 타도도 필요 없고, 민족해방혁명도 필요 없는 이러한 탈미 친중러 (또는 적어도 탈미 ‘중립’)의 대외정책 전환이 현 시기 세계 ‘진보’진영의 투쟁방향이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억압 민족이든 피억압 민족이든 관계없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 두루 ‘보편적인’ 자주와 주권의 문구들을 내세우는 것을 본다. 그러나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과는 달리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해왔다. 강대국/억압민족들이 약소국/피억압민족들을 금융자본의 종속 그물망에 얽어매고 민족억압의 굴레를 들씌우는 한, 다시 말해 강대국들이 해외투자/자본수출로 남반구 “제3세계” “개도국들”, 즉 반식민지 나라들에서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치관으로 높은 이자를 거둬들이는 한, 그래서 이 낙후되고 가난한 약소국 인민들이 억압의 굴레에 속박되어 있는 한, 모든 민족의 자주와 주권에 대해 장광설을 늘어놓는 것은 역겨운 위선일 뿐이라고 말이다.

레닌 <제국주의론> 당시에 카우츠키 같은 기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단계’로 보길 거부하고 금융자본이 선호하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카우츠키가 제국주의 정치를 제국주의 경제로부터 분리시켜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흐리는 데 봉사한 것처럼 자주파는 대외정책을 경제종속 초과착취와 민족억압의 현실로부터 떼어내서 제국주의 질서를 숨기는 데 봉사한다.

3) 다극 세계질서와 남한 국가: 자주파의 탈미친중 견인과 계급 협조

이와 같이 자주파의 다극세계질서론은 현 세계질서의 제국주의적 본질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다. 자주파는 한국에 대해서도, “예속국”이므로 “자주적 정권, 자주적 정책을 내오”고 있는 다른 “수많은 신흥국들”과는 달리 이러한 평등과 호혜의 다극화세계질서 건설에 “참가할 수 없을 것”이라 한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의 젤렌스키로서 미국의 패권몰락을 저지하기 위해 북중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세계질서에서 국가들 상호간의 계급적 성격은 — 즉 자본주의 제국주의인가, 자본주의 반(半)식민지인가는 — 일차적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적 사회구성체에 의해 규정된다. 그러나 자주파에게는 정권의 대외정책에 의해 국가들의 성격과 지위가 규정된다. 그래서 자주파에게는 제국주의 국가인가, (반)식민지 국가인가가 아니라 “자주적 정권, 자주적 정책”인가, 아닌가 기준이다. 윤석열 정권의 자주적이지 않은 대외정책 탓에, 정권의 “자해 외교” 탓에 한국은 “예속국”으로 다시 굴러 떨어졌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 대해 “친미자주 정권”으로서 “탈미자주”로까지 견인 가능한 정권이라며 자본가정부에 계급협조를 비쳤던 자주파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대외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예속국”으로 되돌아갔으므로 탈미자주의 다극화 세계질서 건설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이제 자본가정부에 대해서는 계급협조 대신 ‘정권 심판·퇴진’으로 맞서야 한다고 한다. (물론 자주파는 여기서도 자본가정부 타도에는 반대한다).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같은 자본가 정치세력 간의 정권 교체로 남한 국가의 계급적 성격이 자주국에서 “예속국”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퇴진으로 다시 정권교체를 이루면 예속국에서 자주국으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자주파는 그에 따라 다시 탈미 견인/자본가정부 지지 정책으로 복귀할 것이다. 자주파의 탈미 견인에

따라 남한 국가도 다시 자주국으로서 다극화 세계질서 건설에서 배제
가 아니라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열린다. 세계질서에서 남한 국가의
성격과 지위를 이와 같이 탈미 친중러로 (최소한 탈미 '중립'으로) 바꿔
낼 수 있도록 정권교체를 이루고 대외정책 전환을 견인하는 것, 이것이
자주파가 제시하는 현 시기 노동운동의 투쟁방향이다.

지배계급 한 분파에 대항하여 다른 분파를 지지하고 계급협조를 바쳐
온 자주파의 그 동안의 정책논리에서 볼 때 이 같은 친중러 계급협조
세계질서 구상은 전혀 놀랄 것이 없다. 강대국 한 진영에 대항하여 다
른 한 진영을 지지하고 노동자들 속에서 이 강대국 진영 지배계급의 이
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를 홍보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자주파가
그러한 계급협조 정책을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놀라울 것이다. 자주
파의 다극화 깃발은 이와 같이 국내·국제 계급협조 정책을 본질적 구
성요소로 바탕에 깔고 있다.

자주파와는 달리 오늘 진실 된 사회주의자들은, 진실로 지속 가능한
정의롭고 민주적인 세계질서는 그 모든 현존 자본가정부들에 의해서
가 아니라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고 자본가계급을 수탈하기 시작하는
노동자정부들에 의해서만 구축될 수 있다는 명명백백한 진실을 대중
에게 설명해야 한다. 진실로 지속 가능한 호혜와 평등의 세계질서는
부르주아 정권교체와 대외정책 전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국주의 세
계질서를 타도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세계로 대체하는 노동자·피억압
자의 해방투쟁과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명명백
백한 진실을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

4) “다극화”론 = 강대국 패권경쟁 가속화/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
지 간 모순 격화를 은폐하는 이데올로기

자주파는 “세계질서가 근본에서 바뀌는 대격변의 시기”라고 서두에서 운을 떼더니 대격변과는 거리가 먼 지극히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정세 발전의 그림을 내놓고 있다. 해방투쟁과 사회혁명이 아니라 대외정책 전환으로 “패권이 아예 없어지는” 호혜와 평등의 세계질서로 나아가갈 수 있다는 실천방향을 전제해놓고 있기 때문이다.

자주파의 현 시기 정세인식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쇠퇴해가는 자본주의도, 그 속에서 격화하는 자본주의 세계경제 공황도, 그로 인한 혁명적·반혁명적 위기 정세도 모두 없다. 그리고 파이가 줄어드는 이 시기에 노획물 분배를 둘러싸고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경쟁 정세에 대해서도 ‘양비론’ 비판을 내세워 부정한다.

노동자들을 속이는 이러한 현실 호도의 정세인식과는 반대로 우리는 세계가 이제 ‘사회주의인가 야만인가’ ‘사회주의인가 석기시대인가’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절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호혜와 평등의 새로운 다극화시대가 아니라, “자주의 신시대”가 아니라 재앙 자본주의, 파국 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주장한다. 그 때문에 강대국들 간의 모순이 계속 심화되고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에 따라 모든 강대국은 반식민지 나라들을 자신의 배타적 지배하에 두면서 동시에 경쟁상대방 강대국과 대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더 추동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전 상태로 당장은 정리된다 하더라도 곧 러시아와 미국뿐만 아니라 서유럽 열강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남반구 나라에 대한 군사 개입을 감행할 필요를 점점 더 강하게 느낄 것이다.

군사 개입을 넘어 직접 침략 (이를테면 미국 (및 남한)의 북한 침공, 중국의 대만 침공 등)도 충분히 예측되는 정세다. 그와 함께 강대국 자신들 간의 긴장과 대결이 더욱 고조될 것이다. 유럽에서 서방 열강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나 대만해협/삼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나아가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미일한 대 중러 간의 전쟁이 다음

몇 년에, 늦어도 10년 내에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다. 그에 따라 3차 세계대전도 가능하다. 그 전에 지배계급을 타도하지 않는 한 말이다. 대외정책 전환을 통한 다극화 세계질서 구축 (즉 전쟁물이 세계 질서 구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에 의해 지배계급을 타도하지 않는 한 말이다!

5)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 고조와 함께 반식민지에 대한 공격·침탈도 고조되고 있다

말로는 ‘사회주의’되 행동으로는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 자들과는 달리, 우리를 비롯한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 입각해 중국·러시아는 반제 세력이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임을 여러 문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해왔다. 중러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약소국·약소민족들을 (자본수출해외투자, 차관 등을 통해) 금융자본의 종속·그물망에 얽어매고 민족 억압의 굴레를 들씌우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단지 푸틴 정권의 침략적 ‘대외정책’ 때문에 러시아를 제국주의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에 제출한 우리의 팸플렛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을 보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에 대해 (그리고 나토/서방에 대해서도)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혁명적 방위주의 입장을 취한 것은 단지 누가 침략을 했고 누가 침략을 당했는지 라는 기준에서 한 것이 아니다. 전쟁에서 관련 제 세력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 전술은 일차적으로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인식에 기초한 각각의 사회구성체 평가분석 — 즉 제국주의 국가인지 반식민지 국가인지 — 으로부터 도출한 것이다. (우리의 팸플렛 <우크라

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도 보라.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강대국 패권경쟁 고조와 전쟁몰이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오늘의 세계정세다. 기존 서방 열강 (미국·EU·일본)뿐 아니라 신흥 열강 중국·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 없이는 현 시기 올바른 정세인식을 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그러한 평가분석에 따라 모든 제국주의 열강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는 오늘 미중 대결을 비롯한 강대국 패권경쟁을 중심축으로 전개되는 세계정치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한편 세력권 쟁탈과 반식민지 노획물 분배를 둘러싼 강대국 패권경쟁 격화와 함께 제국주의 열강과 반식민지 나라 간에 충돌·분쟁도 더욱 늘어나고 있는 세계정세다. 남반구 나라들의 반식민지 성격에 대한 맑스주의적 평가분석 없이는, 즉 이들 인민이 제국주의 열강과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의해 억압·초과착취 당하고 있는 현실 사회구성체 평가분석 없이는 현 시기 올바른 정세인식을 내올 수 없다. 또 그러한 평가분석에 따라 제국주의 공격·침탈에 대하여 반식민지 나라와 피억압 인민을 방어할 의무를 인식함이 없이는, 즉 혁명적 방위주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는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 지배·개입과 억압민족·피억압민족 모순을 여전히 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현 시기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올바른 투쟁방향을 내올 수 없다.

각각의 사회구성체 평가분석에 더해 우리는 현대 제국주의체제의 성격을 올바르게 규명하는 차원에서 “다극화 신세계질서”라는 것도 비제국주의 질서가 아니라 미·중을 비롯한 복수의 제국주의 강도들이 반(半)식민지 노획물 분배를 놓고 패권경쟁을 벌이는 동일한 제국주의 세계체제임을 밝혀왔다.

6) 현 세계질서와 레닌 제국주의론

오늘의 제국주의 세계질서는 1914년 1차 제국주의 세계대전으로 치달던 세계질서와 닮아 있다.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통해 규명했던 그 동일한 세계질서의 귀환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영국 패권에 후발 신흥 열강 독일이 도전하며 식민지반식민지 세력권 쟁탈과 노획물 분배를 둘러싼 패권경쟁 격화 속에서 제국주의 전쟁으로 치달은 그 세계질서 말이다.

물론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전변을 겪었다. 대략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현 시기 제국주의 체제는 확실히 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미국이 절대 패권을 행사하던 세계질서와는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오늘 미국은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며, 오히려 굴욕적인 아프간 패주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났듯이 미 제국주의의 쇠퇴와 중국의 신흥 강대국 부상이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세계질서다.

강대국 패권경쟁은 다시 한번 세계정치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다. 미 제국주의의 쇠퇴와 이에 대한 패권 경쟁자로서 중·러의 부상이라는 이러한 정세발전은, 우리가 광범위에 걸친 사실과 수치를 비탕으로 연구보고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치·경제·군사 모든 차원에서 일어났다. 이와 같이 오늘의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레닌이 당대 제국주의 분석을 통해 밝혀준 그 세계체제에 더 닮아 있다. 오늘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 타당한 이유다.

강대국 패권경쟁과 함께, 민족억압과 초과착취 같은 제국주의 체제의 본질적 지표들도 레닌 제국주의론 시절과 마찬가지로 “일극 세계 질서”든 다극 세계질서든 그러한 본질적 지표들에서 다른 것이 없다.

자주파 등 다극세계질서론자들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폐절하지 않고도 그 안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지 관계 같은 지배와 예속 관계가 더 이상 성립할 수 없는” 체제를 내올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따라서 레닌 제국주의 이론의 유효성을 부정 기각하는 주장이다.

지배와 예속, 민족억압과 초과착취 같은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정치적·경제적 지표들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는 반(半)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는 보통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즉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연히 남아있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본질적 지표다. 즉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를 지배하며 직간접적으로 타 민족들을 억압하고 (초과)착취한다는 것, 제국주의의 이 본질적 측면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제국주의 국가에 대해 레닌이 내린 다음과 같은 간결명료한 정의를 보라. “제국주의 강대국, 즉 제 민족 전체를 억압하고 금융자본 종속의 그물망으로 엮어매는 열강들.” 이 정의는 오늘 현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현대 제국주의 규정에 따라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 간 패권경쟁/제국주의 상호 대결에서 서방이든 중러든 어느 한 편, 어느 한 ‘진영’을 지지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 뿐 아니라 양측 모든 제국주의 국가 지배계급을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을 취해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제국주의 패권경쟁/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국내전으로, 계급전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내란으로 전화시키는 것이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임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처럼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 시에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고조를 맥락으로 하여 일어났다 하더라도) 반식민지 피억압 인민의 저항투쟁/민족해방 전쟁을 지지하고 이

에 대해 혁명적 방위주의 전술을 취하는 것 또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임무다. 이것이 오늘날 반제국주의 임무의 핵심 구성요소들이다.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반식민지 나라에 대한 혁명적 방위주의, 이것이 오늘의 반제이고 21세기 제국주의 타도다!

* * * *

II. <전진>: 제국주의-반식민지 모순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와 ”대리전“ 이론

노동운동 내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좌파들 중에는 중국-러시아를 제국주의 국가로 인식하고 미-중 대결을 제국주의 간 “패권대결”이라면 서도 한 축으로는 이와 다른 성격을 갖는 “다극 대립구도”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정세인식을 내놓는 조직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이 그렇다. <전진>은 이 같은 제국주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반식민지 약소국에 대한 제국주의 강대국의 도발-공격에 대해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인민의 저항투쟁에 대해서도 방어하길 거부한다.

1) 억압민족-피억압민족 구분 없는 새로운 세계질서?

최근에 발표한 세계정세에 대한 글에서 <전진>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과 이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세계질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큰 틀에서 보자면, 미국의 압도적 우위가 관철돼 온 세계질서가 미·중 패권대결로 흔들리기 시작하자, 경제력에 비해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된 러시아·인도·사우디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기회를 붙잡기 위해 세계질서를 더욱 뒤흔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기존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 나토를 이끌며 우크라이나의 대리전을 적극 지원하면서 반격해 온 과정이기도 하다.” (양준석, <자본주의 시대전환: 다시 위기전쟁·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는 세계 자본주의>, 35쪽,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334&me_id=20&me_code=&type=web)

“그러므로 이후 세계질서는 한편으로 미국과 중국이 패권대결을 펼치지만 이와 별개로 여러 열강들이 보호주의에 입각해 독자노선을 추구하면서 다극 대립구도가 병행하는 양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러시아·인도·사우디는 이미 세계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보호주의가 맹렬히 확산하거나 극우 세력이 집권한다면, 주변 지역을 이끄는 맹주로 스스로를 재정립하면서 미국 패권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아직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지 않지만 지역의 맹주가 되고자 하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튀르키예도 복병이 될 수 있다. (반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리정치적 조건 때문에 미·중 패권대결의 영향이 강력하게 미치면서 모든 나라가 그 구도 아래로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에 덧붙여 여러 열강들이 보호주의에 입각해 각자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다극 대결구도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금융화를 가능케 했던 미국 유일 패권의 ‘단일한 세계질서’와는 상당히 다른 질서가 될 것이다. (만일 미국과 중국의 패권대결을 중심으로 각국이 결집하는 진영 간 대결구도로 재편된다 하더라도 역시 상

당히 다른 질서가 될 것이다.)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충돌과 다양한 수준의 전쟁이 일상이 되고 나아가 점점 더 격화되는 격동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양준석, 같은 글, 36쪽)

새로운 세계질서에서는 미중 패권대결과 함께 “다극 대결구도” 또는 “진영 간 대결구도”가 펼쳐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대결구도든 이 세계질서에서는 제국주의 국가대 (반)식민지 나라 간 대립·모순은 없다. 이 세계질서에서는 억압민족·피억압민족도, 지배·예속 관계도, 초과착취도 없다. 패권대결을 벌이는 미·중 두 열강과 그밖에 “각자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는” (또는 패권대결의 영향이 강력히 미칠 경우에는 미·중 양 진영으로 나뉘어 “결집하는”) “여러 열강들”이 있을 뿐이다. 이 열강들은 단지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인 열강들이다. 자본주의 제국주의인가, 자본주의 반식민지인가와 같은 사회구성체 수준의 차이가 아닌, 자본주의 발달 정도가 다를 뿐인 열강들로 구성된 세계질서다.

그래서 제국주의 러시아와 반식민지 인도·사우디가, 제국주의 독일·프랑스와 반식민지 튀르키예가 “여러 열강”으로 한 묶음으로 취급되고 있다. 인도·사우디, 튀르키예 모두 러시아, 독일·프랑스와는 달리 외국 독점자본이 이들 나라 경제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자본 수출보다 수입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래서 외국인직접투자나 차관 또는 세계시장에서의 부등가교환으로 초과착취를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점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실제로 <전진>의 이 글에서는 “국가별 비중 비교”의 기준으로 GDP, 해외투자(FDI), 수출, 군비지출 같은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지표들 어느 것도 경제적 종속과 초과착취 같은 국가 간 지배·예속 관계에 대해서는 말해주는 게 없다. GDP는 나라의 인구 규모에 따른 경제 규모에 대해서나 말해줄 뿐,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내국 독점자

본인지 외국 독점자본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보여주지 않는다. 수출 지표도 마찬가지다. 해당 나라의 경제를 외국 독점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 나라의 대외무역에서도 외국 독점자본이 지배적인 비중을 점할 것이다. 따라서 이 외국 자본의 수출액이 포함된 수출 규모로는 세계질서에서 해당 나라의 성격과 지위에 대해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

외국인직접투자 FDI도 유출(자본수출)과 유입(자본수입)을 비교해서 어느 액수가 월등히 더 큰지를 조사해야 해당 국가가 초과착취를 하는 나라인지 당하는 나라인지 알 수 있는데, 위 글에서는 단지 “여러 열강들”의 FDI 유출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위 인도나 사우디나 튀르키예가 해외투자자로서 상당 액수를 국외로 자본수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보다 월등히 더 큰 액수의 자본수입을 하고 있다면, 유출액만 가지고 독일·프랑스, 러시아 같은 제국주의 국가와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현실 관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뿐이다. 한 국가가 해외투자를 통해 얼마간의 이윤을 얻더라도 그보다 월등히 더 큰 액수로 다른 국가의 해외투자, 즉 국내 유입 외국인투자에 대해 (이윤 본국송금, 차관상환 등으로) 지불해야 한다면, 그러한 국가는 통상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 인도/사우디/튀르키예/브라질 같은 소위 “개도국”들의 자본수출-수입 관계를 제국주의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 놓은 다음 표를 보라.

표. 인도/사우디/튀르키예와 한국의 FDI 유입 및 유출 잔고, 2021년 (백만 달러 이하는 반올림)

나라	FDI 유입 잔고	FDI 유출 잔고
인도	5142억 9100만	2063억 7700만
사우디	2610억 6100만	1514억 9900만

튀르키예	1207억	573억 5600만
브라질	5927억 6100만	2961억 8500만
한국	2632억 5200만	5515억 4900만

(출처: <https://unctad.org/topic/investment/world-investment-report>)

이 수치들은 인도/사우디/튀르키예/브라질이 주되게 해외투자 대상 국가, 즉 월등히 자본수입국인 데 반해 한국은 주되게 해외투자 발원 국가, 즉 월등히 자본수출국임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이들 네 나라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종속적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수치인 것이다. FDI 유입액이 FDI 유출액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은 이들 나라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부터 잉여가치를 뽑아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제국주의 독점체들에 의해 이들 나라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표시다.

결국 전진 글의 “국가별 비중 비교”는 질적 차이, 사회구성체 차이는 무시하고 양적 발달 수준만 따지는 비교다. 그 때문에 인도나 사우디나 튀르키예가 러시아/독일/프랑스와 같은 반열의 “열강들”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다, 즉 모두 (글로벌 수준에서든, 지역 수준에서든 패권경쟁을 벌이는) 제국주의 열강들로 압히는 비교 방식인 것이다.

이와 같이 전진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만 있고 식민지·반식민지는 없는 세계질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과 전쟁이 일상화”하지만,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나라 간의 충돌·전쟁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질서다. 그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충돌과 전쟁”이라는 것도 세력권 쟁탈과 반식민지 노획물 분배를 놓고 벌이는 충돌이 아니라, 순 지정학적 이해를 둘러싼 충돌로 제시되고 있다.

“제국주의”는 누구나 이야기한다. “미 제국주의” 또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좌익 조직들 사이에는 흔한, 공통된 관행이다. 그러나 이들이 “제국주의” 범주를 맑스주의 이론에서의 제국주의 의미로 사용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의미를 배제한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제국주의” 범주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는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인식의 확고한 옹호자이지 않고는 진정한 사회주의자일 수 없다고 본다. 레닌을 비롯한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세계가 한줌의 제국주의 국가와 세계 인구 다수가 살고 있는 종속국 — 식민지·반식민지 나라 — 으로 나뉘어 있다고 설명해왔다.

“제국주의는 한줌의 강대국들에 의한 전 세계 민족들의 억압이 누적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민주주의 [맑스주의자들은 당시에 스스로를 이렇게 칭했다 - 인용자]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 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 구분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시각에서나, 자본주의 하에서 독립 민족들 간의 평화적 경쟁이라는 속물적 유토피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유의미한 것이다.”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그리하여 레닌은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의 구별이 맑스주의 강령의 중심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회민주주의 강령은 이 소 부르주아 기회주의적 유토피아에 대항하는 균형추로서 다음을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제 민족이 나뉘어 있는 것은 제국주의 하에서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불가피하다는 전제 말이다.”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2) 맑스주의 반식민지 규정

제국주의 세계체제에서 피억압 민족으로는 식민지만이 아니라 반(半) 식민지 나라도 있다. 반식민지는 정치적으로는 형식상 독립국이지만, 사실상 강대국에 종속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제국주의 독점체에 의해 초과착취 당하는 나라다. 오늘 “남반구”, “개도국”, “제3세계” 등으로 불리는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의 나라들 대부분이 그러한 반식민지다. 이러한 유형의 나라들은 최근 현상이 아니라 레닌 <제국주의론> 시절부터 존재했다. 1916년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에서 레닌은 “중국, 페르샤, 터키”를 그 같은 반식민지의 예로 들었다. 또 <제국주의론>에서는 이렇게 썼다.

“반식민지” 국가에 대해 말하자면 이 나라들은 자연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과도적 형태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금융자본은 온갖 경제관계와 온갖 국제관계에 있어서 자국히 큰, 결정적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기 때문에,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누리고 있는 국가들까지 종속시키는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종속시키고 있다. 우리는 곧 뒤에서 그 실례를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종속된 나라들에게서 민족의 정치적 독립까지 뺏는 종속 형태가 금융자본에게 가장 큰 편리함과 가장 큰 이윤을 준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 점에서 반식민지 나라들은 ‘중간 단계’의 전형적인 예다. 나머지 세계가 이미 분할돼버린 금융자본의 시대에 이들 반 종속 나라들을 전취하기 위한 투쟁이 특히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하다.” (레닌, <제국주의론>)

이어서 레닌은 몇 쪽 뒤에서 이렇게 말한다.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정책을 논함에 있어, 금융자본과 그에 조응하는 대외정책 — 이것이 바로 강대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세계분할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진다 — 이 국가 종속의 일련의 과도적 형태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식민지 보유국과 식민지라는 이 두 개의 기본적인 국가집단들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형식상 독립국이지만 실제로는 금융상·외교상으로 종속의 그물에 얽매어 있는 각양각색의 종속국들도 이 시대에 전형적이다. 이 형태들 중 하나인 반식민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다. 또 다른 형태의 예로 아르헨티나를 들 수 있다.”(〈제국주의론〉)

2차 세계대전 이후 반식민 봉기 물결, 영국·프랑스 제국주의의 쇠퇴와 미국의 부상으로 대부분의 식민지들은 형식상 독립국이 됐고 자본주의 반식민지로 전화됐다. 하지만 자본주의 반식민지들은 기본적으로 여전히 금융적 예속·억압 하에 있다는, 제국주의 열강 및 독점체들에 종속, 착취 받고 있다는 것을 사회주의자들은 언제나 분명히 했다.

반식민지도 초과착취와 민족억압이라는 제국주의 지배-종속 관계의 본질에서 식민지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오류인데, 그 차이란 간단히 말해서 반식민지 나라들의 형식상 정치적 독립 및 이로부터 나오는 줄타기 여지, 즉 강대국들 사이에서 운신 폭을 더 높은 정도로 가진다는 차이이다. 이는 미국·중국·EU·러시아·일본 등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기와 같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자주파가 호혜/평등/자주의 다극화에 힘을 실어주는 정권들이라고 지목한 브라질 룰라 정권과 사우디 정권이 오늘 그러한 예다. 또 전진이 러시아, 독일·프랑스와 함께 “세계질서 재편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행위자로 나서고 있”는 국가들로 꼽은 인도, 사우디, 튀르키예도 그러한 줄타기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식민지 부르주아지의 예다).

제국주의 시대에 세계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반)식민지 나라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규정은 언제나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근간이었다. 트로츠키가 쓴 제4인터내셔널 강령적 선언문에서는 계급적 성격이 서로

다른 나라들로 세계가 나뉘어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인지, 식민지 국가인지, 노동자 국가인지, 국가의 계급적 성격 및 그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와 각각의 내적 모순을 노동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그 형태에서 지난 세기에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그 본질에서는 여전히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동일한 체제로 남아있다. (반)식민지 세계의 인민들과 제국주의 중심부의 민족 소수자들 및 이주자들에 대한 경제적 초과착취에 의존하는 동일한 체제인 것이다. 제국주의 (초과)착취와 민족억압은 여전히 현대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이다.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의 패권경쟁도 여전히 세력권 쟁탈과 (반)식민지 노획물 분배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지, (소부르주아 민족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 국제정치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슨 순 지정학적 경쟁 같은 것이 아니다. 이 같은 (반)식민지 노획물 분배를 둘러싼 패권경쟁 없는 제국주의는 없다. 따라서 제국주의 지배와 민족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은 혁명적 계급투쟁 강령의 필수 요소였고 지금도 여전히 필수 요소다.

이 점은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 간의 충돌 시에 특히 그렇다. 혁명과 함께, 전쟁은 언제나 사회주의 조직들에게 가장 큰 시험대였다. 국가 간 또는 진영 간의 무력충돌은 모든 조직과 정파들에게 자신의 이론과 강령을 구체적인 전술과 행동으로 옮기도록 강제한다. 이 점을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해당 조직의 경향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민족 방어에 대한, 그리고 식민지에 대한 그 조직의 태도다. 실천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태도 말이다."

3) 민족해방전쟁 없는 오직 "대리전"뿐인 세계질서

그러나 피억압민족/ (반)식민지 없는 전진의 세계질서에서는 그에 따라 민족 투쟁도, 민족해방전쟁도 없다. 그냥 모두 강대국의 “대리전” 일 뿐인 세계질서다. 그래서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 저항도 간단히 “대리전”이라고 한다. 전쟁에 관련된 제 세력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급적 성격 분석도 없고, 억압 전쟁과 해방 전쟁의 구별도 없다. 그래서 전진의 세계질서에서는 러시아의 제국주의 식민전쟁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전쟁도 반동적 전쟁이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억압전쟁에 대항하는 약소국의 전쟁 일체가 다 “대리전”이며, 따라서 어떤 진보적 요소도 없는, 국제 노동자계급이 지지할 가치가 없는 다 반동적 전쟁일 뿐이다. 그리고 언제나 대안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라고 한다. 제국주의 강대국의 억압 전쟁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해방 전쟁에서 반식민지 나라를 편 들길 거부하고 해방 전쟁을 지지하길 보이콧하는 ‘중립’ 기권주의 입장으로 ‘단결’하자고 한다. 사실상 제국주의 억압전쟁을 돕는 입장으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도모하지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리전” 주장과 ‘중립’ 기권주의 입장에 반대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구체적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줄곧 밝혀왔다.

“이 전쟁은, 러시아 측에서는 반식민지 약소국을 강탈하고 세력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제국주의 전쟁이고,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제국주의 강도 전쟁에 대항하는 피억압 인민의 조국방위 전쟁, 정의의 민족 전쟁이다. 서방측에서는 강대국 패권경쟁에서 상대방 러시아를 약화시키고자 마름 젤렌스키를 지원하는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일환이다. 따라서 러시아 측의 제국주의 전쟁과 서방 측의 제국주의 패권쟁투 둘다에 대한 혁명적 패배주의 전술, 우크라이나 측의 민족 전쟁에 대한 혁명적 방어주의 전술, 이것이 이 전쟁에서 혁명적 노동자계급의 전술 방침이다.

반대로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는 이 전쟁에서 서방-러시아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요소를 절대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민족 전쟁의 요소는 부차화 내지 부정하고 나아가 “대리전”이라며 우크라이나 피억압 인민의 민족 전쟁에 대한 혁명적 방어주의 전술을 부정한다. 국제 노동자계급은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술 (이러한 혁명적 패전주의 + 혁명적 방어주의의 이중 전술)을 통해 진정한 혁명적 단결을 이룰 수 있다. ‘대리전’이라며 민족 전쟁의 계기를 기각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항전에 대해 러시아-서방에 대해서와 동일하게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노동자계급을 단결시키는 길이 아니라 단결을 파괴하는 길이다.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자로서 피억압 민족의 자결권을 일관되게 옹호한 레닌이 아군 내에서 맑스주의를 회화화시키고 실추시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와 싸워야 했던 것도 같은 이유다.”

우리는 21세기 들어와 20여 년간 세계정세의 주요 발전동향을 인식하는 데 있어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비롯한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결정적 중요성을 항상 강조해왔다. 이러한 21세기 정세발전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강대국 패권경쟁의 극적 고조와 함께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지 나라 간 충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에 따라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 및 그로 인한 국가 간 대결-분쟁의 구체적 성격을 인식하지 않고서는 현 세계정세에서 올바른 방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함을 항상 강조해왔다.

많은 좌파 조직들이 우크라이나의 반식민지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고, 그에 따라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해왔다. 이러한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들 좌파 조직 중 적지 않은 부분이 “북한 비핵화”를 앞세운 미국 (및 남한)의 북한 침공 시에 반식민지 북한 인민의 민족방위전쟁에 대해서도 “대리전”이라며 방어하길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거듭 경고해왔다.

좌파 조직들의 이러한 “대리전” 이론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시대에 민족자결권/민족전쟁은 가능하지 않다며 모든 약소국들도 다 제국주의 양대 진영 중 한 진영으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과거 제국주의적 경제주의자들의 정세인식 논리에 닿아 있다. 실제로 “[약소국의]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민족자결권이 사실상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오늘날의 특징”이라고 주장하는 전진의 다음 글을 보라.

“오늘날의 상황은 어떤가?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미국 제국주의 진영 대 중국-러시아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서 중위, 하위 파트너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강력한 제국주의 모국이 아닌 경우에도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제국주의 진영의 한 부분을 떠맡도록 강요되고 있다.

러시아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민족해방 구호를 살펴보자.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로부터 독립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맞서면서, 사회주의 혁명의 한 부분으로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의 ‘민족자결’ 요구는 사실상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민족자결’을 앞세워 조국방위 전쟁을 제기하지만, 미 제국주의 진영의 한 사슬을 이루면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의 흐름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을 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지지하지 않는다. 민족자결권을 내건 흐름에 대해 접근할 때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핵심은 그 흐름이 피억압 대중의 주도권과 자주성을 반영하느냐 여부다. 1970년대 베트남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하는 반면,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내거는 위선적인 민족자결을 지지하지 않는 핵심 이유다.

북한 체제가 제기하는 ‘핵무장’도 그러한 맥락 위에 놓여 있다. 북한만

이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민족자결권이 사실상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오늘날의 특징이다. 2003년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독립운동이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라크 정부의 탄압으로부터 민족자결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들은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에 협력해 약간의 자치권을 확보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반대로 오늘날 진정으로 민족자결권을 실현하는 전망은 노동자 세계 혁명이라는 전망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혁명의 사회주의 혁명으로서의 성장 전회라는 연속혁명의 정식은 노동자계급 주도로 민족자결권의 완전한 실현을 세계 사회주의 혁명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다는 연속혁명 전망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최영익,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핵무장이 아닌 평화를 향한 세계 노동자 총단결>, http://socialism.jinbo.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238&sfl=wr_subject%7C%7Cwr_content&stx=-%ED%8F%89%ED%99%94%EB%A1%9C%EC%9A%B4+%ED%95%9C%EB%B0%98%EB%8F%84%EB%A5%BC&sop=and&page=1)

여기서도 억압민족-피억압민족, 제국주의 지배-예속 관계는 없고, 따라서 (반)식민지 나라도 없다. “강력한 제국주의 모국”은 있는데 식민지·반식민지는 없다. “제국주의 진영의 한 부분을 떠맡도록 강요되고 있”는 “중위, 하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만 있을 뿐이다.

제국주의에 대해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 중 하나가 피억압 인민에 대한 민족억압과 초과착취임을 망각하고 있다. 아니, “오늘날의 상황”을 내세워 부정하고 있다. 전진이 말하는 “오늘날의 상황”은 모든 나라가 제국주의 양대 진영 중 하나로 편입되는, 따라서 제국주의 국가 대 반식민지 나라 간의 모순과 대립·충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질서다.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중위, 하위의 자본주의 국가들뿐인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민족자

결권도 마찬가지다. 이들 국가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민족자결권은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게 오늘날의 특징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민족 전쟁도 존재하지 않으며 다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대리전일 뿐이다. 한 마디로 오늘날의 제국주의 양대 진영 패권전쟁 상황에서는 민족자결도, 민족해방전쟁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억압민족-피억압민족의 구분과 민족자결권 지지를 강조한 레닌 제국주의론은 “오늘날의 상황”에서 유효하지 않으며, 시대에 뒤져 낡았다. 이와 같이 전진의 현 정세인식은 사실상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부정에 입각해 있다.

4)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세인식과 “대리전” 이론

과연 레닌 제국주의론이 시대에 뒤진 이론인지, 아니면 전진의 “오늘날의 상황” 인식이 맑스주의를 희화화시키는 정세인식인지 레닌의 다음과 같은 언급들을 보자.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자결권/ 민족해방전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논리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이 어떤 조건 하에서는 다른 강대국에 의해 똑같이 제국주의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가 민족자결권을 인정하길 거부하는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은 일어날 법 하지 않다. 부르주아지가 정치적 기만과 금전적 약탈을 목적으로 공화주의 슬로건들을 이용하는 수많은 경우들 (예를 들어 라틴 나라들에서처럼)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자가 자신의 공화주의를 거부하는 일이 일어날 법 하지 않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말이다.” (레닌, <사회주의혁명과 민족자결권>)

“제국주의 시대의 민족전쟁은 유럽에서조차도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될 수 없다. 제국주의 시대'는 현 전쟁을 제국주의 전쟁으로 되게 했고, 불가피하게 (사회주의가 승리할 때까지는) 새로운 제국주의 전쟁을 낳는다. 이 '시대'는 현 강대국들의 정책을 철저히 제국주의인 것이 되게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시대'가 민족전쟁의 가능성, 이를테면 약소국들 (병합된 나라이거나, 민족적으로 억압받는 나라)이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여 벌이는 민족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 동유럽의 대규모 민족운동을 배제하지 않는 것처럼 — 아니다....

우리가 '민족전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는 그릇된 가정을 상세히 다루었던 것은, 단지 이론적인 면에서 틀렸기 때문만은 아니다. 제3인터내셔널의 건립이 오직 맑스주의의, 속류화 되지 않은 맑스주의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한 이 시점에서 '좌파'가 맑스주의 이론에 대해 안이한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몹시 통탄할 일일 것이다. 그러나 실천적 정치면에서도 이러한 오류는 매우 해롭다. 왜냐하면 반동적 전쟁 이외에는 다른 어떤 전쟁도 가능하지 않다는 단정 하에 '군비철폐'라는 어리석은 선전을 낳기 때문이다. 또 그 오류는 민족운동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훨씬 더 어리석고 완전히 반동적인 태도의 원인이다. 유럽의 '강대'국 민족, 즉 약소국이나 식민지의 인민을 억압하는 민족의 성원들이 박식한 체 하며 '민족전쟁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공언할 때 그와 같은 무관심은 배외주의가 된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민족전쟁은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며, <진보적>이고 <혁명적>이다.” (레닌, <유니우스 팜플렛에 대하여>)

“그러나 세계의 민족 대다수에 대한 제국주의적 억압자들인 우리 유럽인들이 몸에 밴 야비한 유럽 배외주의 (쇼비니즘)로부터 '식민지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많은 경우 피억압 민족들의 민족 전쟁 또는 민족 봉기다. 제국주의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장 낙후된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그럼으로써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을 확대, 격화시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 사실

로부터 불가피하게 제국주의는 많은 경우 민족 전쟁을 낳게 마련이라는 결론이 뒤따른다. 위에 인용한 ‘테제’를 자신의 소책자에서 옹호하고 있는 유니우스 [로자 룩셈부르크]는, 제국주의 시대에는 어느 한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어떠한 민족 전쟁도 그 강대국과 경쟁하고 있는 타 제국주의 강대국의 간섭을 초래하며, 그에 따라 모든 민족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으로 전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주장도 옳지 않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언제나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900년에서 1914년 사이의 많은 식민지 전쟁이 그러한 경로를 밟지 않았다.”

“제국주의 하에서의 민족 전쟁의 가능성 일체를 부정하는 것은 이론상으로 틀렸고, 역사적으로 명백히 오류이며, 실천적으로는 유럽 배외주의에 다름 아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에서 수억 명의 사람들을 억압하는 민족에 속하는 우리가 피억압 민족에게 당신들은 ‘우리’ 민족에 대항하는 전쟁을 벌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는 셈이다!” (레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군사 강령>)

“제국주의 강대국들 (즉, 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금융자본에 대한 종속의 그물 속으로 얽어매는 열강들) 간의 전쟁, 또는 그들 강대국과의 동맹 속에서 벌이는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바로 1914~1916년 전쟁이 그러하다. 이러한 전쟁에서 ‘조국 방위’는 기만이고 전쟁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피억압 (예를 들어 식민지) 민족이 제국주의 국가, 즉 억압 국가에 대항하는 전쟁은 진정한 민족 전쟁이다. 그러한 전쟁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 억압 국가에 대항하여 피억압 민족이 수행하는 전쟁에서 ‘조국 방위’는 기만이 아니다. 사회주의자는 그러한 전쟁에서의 ‘조국 방위’에 반대하지 않는다.

민족자결은 완전한 민족해방과 완전한 독립을 위한 투쟁, 병합에 반대하는 투쟁과 동일한 것이며, 사회주의자는 — 사회주의자이기를 그만두지 않는 한 — 봉기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가 어떠하든 그

러한 투쟁을 거부할 수 없다.” (레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우리는 현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 반식민지의 부르주아지/지배계급이 일차적으로 강대국 전쟁의 하수인으로 역할하는 그런 대리전쟁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현 강대국 패권경쟁 정세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일 뿐이다. 왜냐하면, 동시에 그러한 패권경쟁은 남반구 “제3세계”에서, 즉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제국주의 열강의 도발-공격 물이를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은 피억압 인민에 대한 더 많은 공격을 유발하며, 따라서 대리전만이 아니라 해방전쟁의 증가도 유발한다.

실제로, 21세기 들어 지난 20년은 제국주의 열강의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점령으로 점철된 시간이다. 2001년 이래 미국의 아프간 점령전쟁과 2003년 이래 이라크 점령전쟁, 2000년을 전후로 한 러시아의 두 차례 체첸 인민에 대한 전쟁과 2015년 이래 시리아 인민에 대한 전쟁, 최근 세 차례의 가자 전쟁 (2009, 2012, 2014년)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인민에 대한 점령전쟁, 말리를 비롯한 아프리카 나라들에 대한 프랑스·EU 군대의 군사 개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또 다른 예는 이란-북한과 같은 반식민지 국가에 대한 미국의 도발-공격이다. 2007년 이래 서방이 지원하는 AMISOM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임무단)의 소말리아 군사 개입도 제국주의 열강에 봉사하는 반동적 점령전쟁의 한 예다.

이와 같이, 패권경쟁 격화 속에서 강대국들이 지역 분쟁을 대리전으로 이용하려는 책동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반구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도발-공격도 증가한다.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속에서 강대국과 반식민지 나라 간의 모순,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 간 모순도 격화하기 때문이다. 파이가 작아지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모든 착취자들

은 불가피하게 남반구의 노동자·피억압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한 결과로, 향후 어느 하나의 대리전(대만?)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리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피억압 인민의 민족방위 전쟁과 같은 민족해방전쟁이 증가하는 것을 훨씬 더 현실성 있는 현상으로 예상한다.

우리의 예상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한 것이다. 1919년에서 1939년 양차 대전 사이의 전간 기간을 보자. 그 당시에 지배적인 특징은 무엇이었나? 정당한 민족방위전쟁이었는가, 아니면 제국주의 대리전쟁이었는가? 분명히 그것은 전자였다. 물론, 당시도 제국주의 상호간의 패권경쟁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민족방위 전쟁에 ‘대리’의 요소가 끼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 시기에 일어난 거의 모든 민족전쟁들에서처럼 그러한 사실이 이 전쟁들의 민족전쟁 성격을 없애지는 못했다. ‘대리’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 전쟁들이 대리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바뀔 수 있고, 우리가 2월 24일 이래로 반복해서 말했듯이 서방의 직접 군사개입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을 바꿔놓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술도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나 내일 있을 수 있는 사태발전에 근거하여 오늘에 대한 우리의 전술을 정한다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당시 예를 들어, 1930년대 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선 반식민지 중국의 저항(항일전쟁)에 미 제국주의가 무기 지원을 포함한 물질적 지지를 주고 패권경쟁 상대방 일본에 대해 초강력 경제제재를 가한 것을 떠올려보라. 중국의 항일전쟁이 태평양에서 미-일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격화를 배경으로 한 전쟁이고 그와 같이 다른 강대국(미국의 개입이라는 대리 요소가 끼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전쟁이 민족 전

쟁의 성격을 잃고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리전이 된 것은 아니다. 또 다른 예로,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다양한 (항일, 항독) 파르티잔 투쟁들에 대한 서방 (영·프·미) 제국주의의 지지를 보라. 1935-36년 이탈리아 제국주의에 맞선 에티오피아의 항전에 대한 서방 및 나치 독일 제국주의의 지지도 보라. 이러한 종류의 강대국 개입으로 이 민족전쟁들의 정당한 성격이 제거되고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리전이 됐는가? 이 전쟁들은 레닌과 트로츠키의 전통에 있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했던 민족해방 투쟁들이었다.

반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대리전”으로 규정했던 전쟁의 예를 보자. 유니우스 팜플렛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1차 세계대전에서 세르비아의 경우를 예로 들어 제국주의 시대에 민족 전쟁은 가능하지 않으며 모두 대리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였다. 레닌은 이러한 일반화에 대해 반박했지만, 세르비아가 영/프러 제국주의 진영의 대리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당시 세르비아 대리전의 배경이 되었던 1차 세계대전은 모든 강대국이 참전한, 즉 세계인구의 4분의 3이 이 재앙의 영향을 입은 세계 전쟁이었다. 당시 세르비아 군은 발칸 반도에 군대를 파견 배치한 연합국 (영국/프랑스/러시아) 지휘 하에 연합국 군대의 일부로 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싸웠다.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리전이 된 것이다. 영/프러 제국주의 진영의 세르비아 지지, 개입은 무기 지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군대를 투입하여 직접 군사 개입을 하고 이 군대에 세르비아 군을 편입시켜 직접 전쟁을 치른 것이라는 점에서 세르비아로서는 영/프러 연합국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이 됐다.

이것을 전진이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전쟁이라고 평가한 우크라이나 민족방위전쟁과 대비해보라. 오늘, 무기

지원을 넘어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배치하고 있는 서방 열강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종류의 군사원조를 받는다고 우크라이나 군대가 미군이나 나토군 지휘 하에 그 군대의 일부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전쟁 전부터 젤렌스키 정부가 친서방 이해를 대변하고 우크라이나가 사실상 서방 진영과의 동맹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진의 평가처럼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과 패권 ‘경쟁’에서 제국주의 한 진영의 동맹으로 복무하는 것은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여전히 이 전쟁에서 러시아 대 서방 간에는 패권 ‘경쟁’이지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패권 ‘경쟁’과 패권 ‘전쟁’은 냉전과 열전이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다. 이것이 혼동되어선 안 된다. (여전히 이 전쟁은 러시아-서방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지,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 아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아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의 ‘전쟁’이라면 준 세계대전, 사실상 3차 세계대전이라는 얘기가 된다).

서방-러시아 패권경쟁에서 젤렌스키 정부가 한 축으로 서방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변하여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쟁의 객관적 조건이 위와 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 전쟁에서 반식민지 우크라이나의 민족자결권은 무의미해지거나 부차화 될 수 없다. 이는 위에서 예로 든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친미 매판 장개석 정부가 당시 미-일 패권경쟁에서 미 제국주의 진영의 동맹으로 복무하며 한 축으로 미 제국주의의 이익을 대변하여 일본과 싸웠다 하더라도 중일전쟁에서 반식민지 중국의 민족자결권이 결코 부차화 될 수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도 이 전쟁은 일-미 제국주의 상호 간 패권 ‘경쟁’을 배경으로 한 일본과 중국 간의 전쟁이지,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이 아니다. 이 중일전쟁 이후 1941년 12월에 일본과 미국 간의 태평양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는 말이다).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선 중국 인민이 그랬듯이, 우크라이나 인민은 미국서방 제국주의가 시켜서 푸틴의 침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민족자결권을 비롯한 그들의 기본적인 민족적 권리를 지키고자 싸우는 것이다.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지배계급”의 그 어떤 반동적인 목표를 공유해서 러시아의 침략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을 패퇴시키고 점령된 영토를 해방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전진은 이와 같이 패권경쟁에서 제국주의 한 진영의 동맹으로 복무하는 것과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수행하는 전쟁을 미서방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국주의 한 진영의 군사 원조를 받고 동맹으로 복무한다는 것이 민족 전쟁을 제국주의 대리전쟁으로 전화시킨다면 역사상 민족 전쟁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중일전쟁에서 미국의 트로츠키주의자들은 장개석 정부가 ‘자’국 미국 제국주의의 군사 원조를 받고 미-일 패권경쟁에서 ‘자’국 미국 제국주의 진영의 동맹으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장개석 정부를 지도부로 하는 중국의 민족 전쟁을 방어했다. “대리전에 불과하다”며 ‘중립’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는 것에 반대하여 중국 인민의 민족방위전쟁을 지지한 것이다. 그들이 틀렸는가? 이 중일전쟁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자’국 미 제국주의 둘 다에 반대해 양측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그리고 반식민지 중국에 대한 혁명적 방위주의, 이러한 이중 전술을 취한 것은 잘못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유고슬라비아 파르티잔들의 민족 전쟁과 2차 세계 대전 동안의 여러 항일·항독 민족 투쟁들, 또 영국·프랑스 등 서구 열강들이 이탈리아에 제재를 가했던 1935-36년 에티오피아 전쟁 등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인터내셔널은 이 모든 정의의 민족 방위전쟁에 대한 지지를 이어간 데서 절대적으로 옳았다.

5) 민족자결권 부정의 정세인식 논리: 북한도 대리전?

이 문제를 길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전진이 북한에 대해

서도 “지배계급이 추구하는 민족자결권이 사실상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된다며 미 제국주의의 도발·공격에 맞서 반식민지 북한의 민족자결권을 방어하길 거부하기 때문이다. “비핵화”를 앞세운 미 제국주의의 북한 무장해제 압박·공격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할 권리에 대해서도 전진은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흐름”으로 규정하며 방어하길 거부하고, 나아가 “북한의 핵무장 포기”를 요구한다. “모든 자본주의 나라들이 미국 제국주의 진영 대 중국·러시아 제국주의 진영 사이에서 중위, 하위 파트너로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 때문이라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정세에서는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흐름”만 존재할 뿐, 민족자결권/민족해방전쟁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우리는 제국주의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길 거부하는 좌파 조직들이 그 연장선에서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반식민지 북한의 민족자결권에 대한 전진의 입장이 위와 같은 것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일진대, “북한 비핵화”를 앞세운 미국 (및 남한)의 북한 침공 시에 반식민지 북한 인민의 민족방위전쟁에 대해서도 “대리전”이라며 방어하길 거부하지 않겠는가!

패권경쟁에서 제국주의 한 진영의 동맹으로 복무하는 것을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전진이 김정은 정부를 지도부로 하는 북한의 민족전쟁을 종려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에 불과하다고 규정하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리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우크라이나의 민족전쟁에 대해서 그러듯이 말이다.

우리는 북한이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을 수행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 위에서 언급한 미 제국주의의 북한 침공 시에 중국 제국주의가 북한에 대한 무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군사개입을 할 경우, 즉 군대를 북한에 투입하고 중국-북한의 합동군체제로 싸우는 경우다. 그 경우 이 전쟁은 양대 제국주의 간 전쟁이 되고 북한은 더 이상 민족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된다. 이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이 직접 군대를 투입해 러시아와의 전쟁을 촉발하는 위험까지 감수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처럼 중국도 직접 군사개입이 아닌 무기 지원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전쟁 첫 단계에서는 그렇다. 설사 어느 가능성이 더 크다고 가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으로선 무기 지원에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전진은 이 두 경우를 따지지도 분별하지도 않고 오로지 “오늘 날의 상황”에서는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리전” 이외에 다른 것일 수 없다는 논리다.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전쟁에 대해서 이 두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간단히 “대리전”이라며 보이콧하는 것으로 보면 북한에 대해서도 이 논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제국주의의 반식민지 침략 전쟁이 아니라 제국주의 양 진영 간의 전쟁, 즉 미일한대 중러 간의 전쟁 시에 반식민지 북한이 중러 진영으로 참전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북한이 제국주의 대리전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의 맥락이 아니고서는 미일한대 중러북의 동시 전쟁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전쟁은 세계전쟁일 것이고, 따라서 제국주의 양 진영 간의 전쟁과는 별개의 ‘북한 민족전쟁’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구조일 것이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동맹 완성”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다시 첨예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 구도를 실제 “전쟁” 구도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단지 ‘대립’이 아니라 실제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전쟁’이라면 그것은 여지없이 세계대전(의 한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대리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될 것이고, 북한의 민족자결권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와 함께 ‘반식민지 북한 방어’가 아니라,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북한에 대해 다른 모든 교전국에 대해서처럼 혁명적 패전주의 전술을 가져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향후 전쟁을 모두 이러한 미묘한 대 중러북 동시 전쟁으로, 사실상 3차 세계대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 대 반식민지 나라 간의 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해선 안 된다. 이러한 제국주의 대 반식민지 간 전쟁의 계기를 배제하고 다 제국주의 양 진영 패권전쟁으로 귀착, 환원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패권 ‘경쟁’과 패권 ‘전쟁’을 동일시할 수 없는 것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과 한미일 대 북중러 ‘전쟁’을 동일시할 수 없다. ‘대립’이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 둘 간의 구별을 없애지 않는다. 그러나 전진은 중위, 하위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제국주의 패권 진영의 일부로 편입”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전쟁’을 구별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은 이 ‘대립’ 단계에서 이미 (중러 제국주의 진영의 군사 원조를 받으며 동맹으로 복무하는 수준을 넘어)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아직 전쟁도 아닌 단계에서 이미 “대리전”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립’을 ‘전쟁’으로 귀속 환원하지 않고 ‘대립’ 단계를 독립적인 계기로 인정한다면, 이 당면의 ‘대립’ 정세는 북한이 “제국주의 패권전쟁에서 한 축을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정세가 아니다. 이 반식민지 나라 대(對) 제국주의 국가(미국) 간의 충돌·전쟁이 문제가 되는 정세다. 즉 한미일 대 북중러 동시다발 세계대전이 아니라, 미국(및 한

국의 북한 공격·침공이 문제가 되는 정세다. 따라서 이 당면의 ‘대립’ 정세에서는 북한의 대리전이 아니라 북한의 민족자결권과 민족방위 전쟁이 문제가 된다. 전진은 이 계기를 무시하고 제국주의 양 진영 간 전쟁에 모두 귀속시켜 대리전 이외에 민족 전쟁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 ‘대립’ 정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 제국주의의 (또는 제국주의 한미 동맹의) 북한 침공 시에 미국의 (또는 미·한의) 전쟁은 제국주의 전쟁, 반동적 전쟁이고, 북한의 전쟁은 해방을 위한 전쟁, 진보적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김정은 정부가 군사 원조를 받으며 중러 제국주의 진영의 이해를 한 축으로 대변하며 싸운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친 중러제국주의 김정은 자본가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고서 이 해방 전쟁을 방어하지만 말이다. 여기서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민족방위전쟁에 대해서 취했던 입장처럼, “미 제국주의의 침략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라! 미·한 제국주의에 패배를! 미·한 제국주의와 중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가 구체적 정세에 대한 구체적 방침이다. 반대로 전진이 우크라이나 민족방위전쟁에 대해 취했던 태도처럼, 북한 민족방위전쟁에 대해 “제국주의 진영을 대변하는 대리전에 불과”한 “반동적”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중립”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는 — 사실상 북한에 대해서도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는 — 것은 제국주의 억압전쟁을 돕는, 사회제국주의에의 투항이다.

현 세계질서에서 제국주의-반식민지 모순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제국주의 패권전쟁”으로 귀속시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논리는 이와 같은 대리전 이론을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 시기에 민족자결권/민족해방전쟁은 가능하지 않다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세인식은 레닌 제국주의론 당시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도 틀렸는데,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 격화 정세에서 민족전쟁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노획물이 줄어드는 자본주의 쇠퇴기에 제국주의 간 패권경쟁도 가속화함에 따라 제국주의 열강 대 반

식민지 나라 간의 모순-대립도 격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민족자결권을 위한 투쟁/민족해방 전쟁도 더 한층 촉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미중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 격화, 또는 서방 대 중러 간 제국주의 세력권 쟁탈전 격화 정세는 남반구 반식민지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민족해방전쟁을 더욱 더 유발할 것이다.

6) “노동자 세계 혁명 전망”과 민족해방전쟁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세인식은 실천적으로 노동자계급의 반제국주의 투쟁에 난관을 조성하고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해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혁명을 희화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전진은 “사회주의혁명의 한 부분으로” 내거는 “노동자계급의 민족자결 요구”가 아니라면 모두 “제국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을 차지하는 반동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진정으로 민족자결권을 실현하는 전망은 노동자 세계 혁명이라는 전망의 일부분으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

사회주의혁명 전망 속에서 행해지는 민족자결 투쟁이 아니라면 지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동자 세계 혁명이라는 전망의 일부분으로” 민족해방전쟁을 이끄는 강력한 노동자계급 혁명당이 존재하지 않는 한, 따라서 해방전쟁이 비혁명적 지도부 하에서 진행되는 한 전진은 이 해방전쟁을 지지하길 거부한다는 뜻이다. 오늘 혁명적 세력이 위약함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민족자결을 위한 투쟁, 민족해방전쟁이 대개 비혁명적 지도부 하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오늘 전진은 지도부의 비혁명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민족 투쟁,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노동자 세계 혁명이라는 전망의 일부분으로”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이끄는 민족해방전쟁만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민족해방전쟁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프롤레타리아 세계혁

명 전망 속에서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가 이끄는 전쟁이라면 그 전쟁은 이미 '민족해방'을 넘어선 사회해방을 위한 계급전쟁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전진은 민족해방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레닌, 트로츠키와 같은 혁명적 맑스주의자들은 언제나 이러한 태도를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투항이라고 고발해왔다.

“우리는 모든 전쟁을 같은 지평에 두지 않으며 그렇게 둔 적도 없습니다. 맑스와 엥겔스는 영국에 대항하는 아일랜드인의, 차르에 대항하는 폴란드인의 혁명적 투쟁을 지지했습니다. 비록 이 두 민족주의 전쟁에서 지도자들이 대부분 부르주아지의 성원들이고 심지어 어느 경우엔 봉건 귀족이거나 가톨릭 반동들일지라도 말입니다.... 제국주의 민족과, 인류 대다수를 이루는 식민지·반식민지 민족을 구별하는 것이 일치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레닌은 수백 페이지를 썼습니다. 착취국과 피착취국을 구별함이 없이 ‘혁명적 패배주의’ 일반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불세비즘을 한심하게 희화화하는 것이고 그러한 희화화를 통해 제국주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트로츠키, <중일전쟁에 대하여>, 1937년 9월)

비혁명적 세력이 이끄는 민족 전쟁에 대해 전진처럼 적대적인 반대 정책을 제창하는 그룹이 트로츠키 제4인터내셔널 당시에도 있었다. 이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 트로츠키의 다음과 같은 언급도 들어보라.

"아이펠주의 그룹의 멍청이들은 이러한 정책을 조롱하려 듭니다. ‘트로츠키주의자들은 말로는 프롤레타리아에 봉사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장개석에 봉사한다’고 아이펠주의자들은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전쟁에 [기권, 보이콧하지 않고] 참가하는 것은 ‘장개석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장개석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나라의 독립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당에 반대하는 선전은 대중에게 장개석 타도를 교육하는 수단입니다. 불행하게도 독립 전쟁에서 지휘권

을 가진 것이 장개석이므로 장개석의 지휘 하에 진행되는 군사투쟁에 참가하여 장개석의 타도를 정치적으로 준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혁명적 정책입니다. 아이펠주의자들은 ‘계급투쟁’ 정책을 가져와 이 ‘민족주의적·사회애국주의적’ 정책에 대립시킵니다. 레닌은 이 추상적이고 아무 쓸모없는 대립시키기엔 맞서 한평생을 싸웠습니다. 레닌에게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은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적·애국적 투쟁에 나선 피억압민을 원조하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4번세기가 흐르고 10월 혁명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혁명적 전위에 의해 최악의 내부적으로 가치 없이 내쳐져야 합니다.” (<중일전쟁에 대하여>)

전진은 지도부 문제를 들어 정당한 민족투쟁/민족해방전쟁을 보이콧하고, “노동자 세계 혁명의 전망”으로 모든 것을 넘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순수한’ 세계 노동자계급 대 세계 자본가계급의 결전이 올 때까지는 추상 속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을 내거는 것으로 당면의 임무를 (반제국주의 과제들을 사회혁명의 과제들과 결합시키기 위한 전술적 임무를) 대신하려는 경향에 대해 레닌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정세인식에서 나오는 필연적인 실천적 결론이라고 고발했다.

“식민지와 유럽의 약소민족들에 의한 봉기 없이도, 모든 편견을 갖고 있는 소부르주아지 일부에 의한 혁명적 분출 없이도, 지주와 교회와 군주제에 의한 억압 및 민족 억압에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각성되지 못한 프롤레타리아·반(半)프롤레타리아 대중의 운동 없이도 사회혁명이 가능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사회혁명을 부정하는 것이다. 한 쪽의 군대가 어느 한 장소에 정렬하여 ‘우리는 사회주의에 찬성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 쪽의 군대가 다른 한 장소에 정렬하여 ‘우리는 제국주의에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사회혁명일 것이다! 이와 같이 우스꽝스럽게 현학적인 견해를 가진 자들만이 아일랜드 반란을 ‘폭동’이라고

부름으로써 그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이다. ‘순수한’ 사회혁명을 기대하는 자는 누구든 살아서는 결코 그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혁명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이 없이 혁명에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다.“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정리>)

오늘 “노동자 세계 혁명의 전망”은 사회주의자들이 반식민지 나라들의 민족 전쟁에 대해 기권주의 입장을 취하고 이와 같은 반제국주의 과제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열릴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계급의 권력 장악 임무에 이러한 반제국주의 과제를 결합시키는 것으로 열릴 것인가?

7)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과 반제국주의 임무

제국주의 열강은 서로를 겨냥한 패권쟁투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억압 민족을 억압·착취함으로써만 존재할 수 있다. 패권쟁투와 (반)식민지 억압·착취는 서로 연관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제국주의 강대국들 및 독점체들은 서로 경쟁상대방을 희생시켜 자신의 세력권과 세계시장 지분을 확대하고 동시에 피억압인민에게서 더 많은 부를 짜냄으로써만 그들의 이윤·권력 증식의 본성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이 같은 모순적 본질 때문에 이미 레닌은 제국주의 열강 간의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피억압민족의 해방투쟁이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에 그와 같은 어떤 민족 봉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레닌은 강대국 패권쟁투와 (반)식민지 인민에 대한 제국주의 억압 간의 밀접한 연관을 완전하게 파악하고, 이 연관을 수십 번 강조했다. 제국주의 ‘시대’의 규정성을 내세워 민족자결권과 민족전쟁의 현실 가능성을 부정하는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유행을 거슬러 레닌 홀로 이 연관을 강조해야 했던 것이다. 또 민족·식민지 모순이 (“제국

주의 패권전쟁의 한 축으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쟁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전쟁과 결합할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해서도 레닌 홀로 강조해야 했다. 민족·식민지 문제에 대한 대국 배외주의적 오만과 무지의 흐름을 거슬러 말이다.

“모든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계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완전히 오류다. 현 제국주의 전쟁은 양대 열강의 제국주의적 정치의 계속이며, 이 정치는 제국주의 시대의 제 관계의 총체에 의해 생겨나고 배양되었다. 그러나 또한 이 시대 자체가 필연적으로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투쟁의 정치를,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의 정치를 낳고 배양하기 마련이며, 그 결과로 첫째 혁명적 민족봉기와 민족전쟁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둘째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과 봉기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셋째 그 두 가지 혁명전쟁의 결합의 가능성과 필연성을 또한 낳고 배양하기 마련이다.” (레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맑스주의자들은 폭력이 자본주의의 총체적 붕괴와 사회주의 사회의 탄생에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망각한 적이 없다. 이 폭력이 세계사의 한 시기 전체, 각종 전쟁들의 한 시대 전체를 점할 것이다. 제국주의 전쟁과 국내전, 그 둘의 뒤섞임, 그리고 민족전쟁이 그러한 전쟁들이다.” (레닌, <당 강령 검토 및 당명 변경에 관한 보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대해 비타협적인 반대 입장을 취하며, 자본주의 타도를 준비하는 데 그 어떤 전쟁이든 다 활용할 것을 제창하는 이유다. 따라서 제국주의 패권전쟁/전쟁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을 피억압 인민의 해방투쟁과 결합시키는 반제국주의 전략으로 노동자·피억압

자 선진부위를 결집시키기 위해 언제나 힘써야 한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민족전쟁은 가능하고 개연성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며, 진보적이고 혁명적이다. 물론 그러한 민족전쟁이 승리하려면 피억압국의 다수 인민대중 (우리가 예로 든 인도와 중국의 수억 인민들)의 일치된 노력이나, 국제 정세에서 특별히 유리한 조건들의 조합 (예를 들어 제국주의 열강이 힘의 소진, 전쟁, 상호적대 등으로 마비되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나, 강대국 중 한 나라에서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총 봉기나 이러한 것들이 요구되겠지만 말이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승리를 위해 무엇이 가장 바람직하고 유리한가라는 관점에서는 이 마지막 경우가 첫 번째 지위를 점한다.)” (레닌, <유니우스 팸플릿에 대하여>)

추상 속에서가 아니라 이 같은 구체적 전쟁 조건에서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이와 같이 제국주의 패권쟁투에 대항하는 패전주의 투쟁을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민족 전쟁과 결합시키는 반제국주의 전략으로 노동자·피억압자 선진층을 단결시키는 것 없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 가능한가. 제국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피억압민족의 민족자결권/민족해방전쟁을 부정하고 제국주의 ‘조국방어’/제국주의 ‘민족자주’를 내거는 사회제국주의·사회배외주의와 투쟁하는 것 없이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단결”이 가능한가.

제국주의 나라에서 맑스주의자들의 의무에 대해 토론하는 대목에서 레닌은 피억압민족의 자결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필수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피억압민족 해방투쟁의 정당성 때문에만이 아니라 제국주의 나라의 원주(原住) 노동자계급을 국제주의·반배외주의의 정신으로 교육시켜야 할 필요 때문에도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한을 비롯한 제국주의 나라들에서 노동자계급 운동이 “두 개의

국제적 진영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은 레닌 시절이나 오늘날의 제국주의 체제에서나 똑같이 진실이다. 한 진영은 제국주의 초과이윤의 빵부스러기에 매수되어 부패해버린 한쪽의 사회배외주의/계급협조 ‘민족자주’/사회제국주의 진영이고, 다른 한 진영은 일관된 국제주의 반제국주의·반배외주의 진영이다.

“중요한 것은 사회주의혁명 이전에 소 민족들의 50분의 1이 해방되느냐, 아니면 100분의 1이 해방되느냐가 아니라, 제국주의 시대에는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 프롤레타리아트가 두 개의 국제적 진영으로 분열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한 진영은 지배 민족의 식탁에서 떨어진 — 무엇보다도 약소 민족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착취로부터 얻어진 — 빵부스러기로 인해 부패해버린 반면, 다른 한 진영은 약소 민족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대중을 반배외주의적, 즉 반병합주의적, 즉 자결주의적 정신으로 교육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해방시킬 수 없게 되었다.” (레닌, <민족 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트로츠키도 1934년 <전쟁과 제4인터내셔널>에서 같은 사상을 제시했다.

“[제국주의 나라에서] 민족 방어를 설파하는 ‘사회주의자’는 쇠퇴 사멸하는 자본주의에 봉사하는 소부르주아 반동이다. 전쟁 시에 자신을 민족국가에 매어놓지 않는 것, 전쟁 지도가 아니라 계급투쟁 지도를 좇는 것은 이미 평화 시에 민족국가와의 비타협적인 전쟁을 선언한 그러한 당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제국주의 국가의 객관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을 완전하게 인식함으로써만 프롤레타리아 전위는 모든 유형의 사회애국주의에 끄떡없는 난공불락 상태로 될 수 있다. 이것의 의미는, ‘민족 방어’ 이데올로기 및 정책과의 실제적 단절은 국제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관점에 설 때에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쟁과 제4인터내셔널>)

실제로, 사회주의 10월혁명 지도자들의 이 중요한 사상은 오늘날의 제국주의 세계질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혁명가들은 반배외주의 정신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으로, 국제 노동자계급 연대의 정신으로 대중을 교육하기 위해 사회제국주의·사회배외주의 진영과의 투쟁 사안들 - 다름 아닌 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제국주의 식민 전쟁과 같은 사안 - 을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오늘 강대국 패권쟁투 격화 정세에서, 제국주의-반식민지 모순 격화 정세에서 노동자운동 조직들,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의 진정한 성격이 판가름 나는 것도 이 지점이다. 모든 형태의 배외주의와 일관되게 투쟁하는가의 문제, 즉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반제국주의인가의 문제가 결정적인 판정 기준이 되는 오늘의 정세다. 그 조직은 제국주의 지배계급에 맞서 싸우며 동시에 사회제국주의·사회배외주의와 단호한 투쟁을 벌이는 진짜 투사들인가, 아니면 노동운동을 계급협조 타락으로 모는 부르주아지의 사회제국주의 시종들인가, 또는 동요하며 사회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경제주의자들인가?

“다극 세계질서”: 공정 제국주의? 개량 제국주의?

- 푸틴 & 시진핑/ 스탈린주의/ "진보 인터내셔널" (룰라, 샌더스, 바루파키스) 등이 제창하는 한 개념에 대한 맑스주의적 비판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RCIT) 국제서기, 2023년 2월 24일, www.thecommunists.net

들어가며

- 1) "다극 질서": 푸틴 & 시진핑 대외정책 노선의의 핵심 요소
- 2) 국제 스탈린주의: "노동자 연대와 다극 세계 만세!"
- 3) 진보인터내셔널: "독점자본주의" 극복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다극체제"?
- 4) 중국·러시아는 "진보적" 열강인가?
- 5) 강대국들 간의 평화공존이란 불가능하다
- 6) 역사적 선구자들: 노획물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 독일·이탈리아·일본
- 7) 맑스주의 대 멀티(多)제국주의

들어가며

우리가 자본주의의 쇠퇴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가속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파이가 작아지면, 강도들은 노획물을 두고 서로를 상대로 더욱 더 수위를 높여가며 싸운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기존 제국주의 강대국(미국, 서유럽, 일본)과 떠오르는 제국주의 강대국(중국-러시아) 사이의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이유다.[1] 그 결과는 한편으로는 미-중 간 무역전쟁[2], 서방의 러시아 제재[3], 그리고 모든 강대국들의 군비확충이었다.[4] 다른 한편 지난 20년 우리는 반식민지 나라들을 상대로 한 강대국들의 몇 차례 제국주의 전쟁을 목격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아프간[5] 및 이라크[6] 침공과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7]이다.

이 글에서는 현 단계 강대국 패권경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중러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 등에 대한 RCIT의 평가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현재 가속화하는 강대국 패권경쟁을 맥락으로 하여 자칭 좌파 정당들 사이에서 중요한 노선적 지위를 획득해온 한 이데올로기적 개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다극 세계질서”라는 것이다. 이 개념의 주창자들에 의하면 이제까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이 지배해온 기존 “단극” 세계질서가 새로운 글로벌 체제로 대체되고 있고, 또 그렇게 대체되어야 한다. 푸틴과 중국 정권, 그리고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이 이데올로기의 핵심 주창자들이다. 또 브라질 대통령 룰라, 미국 ‘민주사회주의자’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그리스 시리자(SYRIZA) 정부 당시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키스 등을 주요 대표자로 하는 리버럴 개량주의 “진보 인터내셔널”도 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의 홍보대사로 봉사하고 있다.

1) "다극 질서": 푸틴 & 시진핑 대외정책 노선의 핵심 요소

언젠가부터 "다극 질서" 개념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2022년 2월 초 푸틴-시진핑 회담을 통해 나온 공동선언에서도 이 "다극 질서"를 공식 천명했다. 이 선언에서 푸틴과 시진핑은 "진정한 다극체제"와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핵심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를 촉구했다.[8]

푸틴은 각종 연설에서 이 구상을 반복해서 제창했다. 최근 신년 연설에서 푸틴은 자신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의로운 다극 세계질서"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의 나라, 우리의 이익,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다극 세계질서를 추구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의심할 바 없이 고무적인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9]

그리고 2022년 10월 러시아의 대표적인 친 정권 싱크탱크 발다이 토론 클럽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을 통해 푸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극 세계의 진정한 민주주의는 일차적으로 어느 국가든, 어느 사회든, 어느 문명든 자신의 길을 추구하고 자신의 사회-정치체제를 조직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10]

최근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제1부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회담에서도 이 같은 구상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양국 관리들은 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안정적으로 수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민주적인 다극 세계질서를 함께 구축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11]

당시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베이징에서 열린 2019 중국현대국

제관계연구소 포럼 연설에서 "중국은 다극 세계의 가치를 믿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지지한다"고 밝혔다.[12]

또 환구시보는 최근 기사에서 "그러나 세계는 바뀌었고, 다극 세계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라고 선언했다

실제로 바이든 정부 국가안보회의에서 현재 중국대만 수석국장을 맡고 있는 러시 도쉬가 최근 출간한 책에서 보여주듯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은 이미 수년 동안 중국의 대외정책 독트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미 1997년 대사 회의에서 당시 장쩌민 총서기는 "세계 다극 체제"를 거론했다.[15]

2) 국제 스탈린주의: "노동자 연대와 다극 세계 만세!"

많은 스탈린주의 당들이 "다극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푸틴과 시진핑의 목표를 공유한다. 그들에게 주적은 미 제국주의가 지배하는 "단극 질서"다. 2022년 8월, 겐나디 주가노프가 이끄는 러시아의 최대 "공산주의"당인 러연방공산당(KPRF)은 다음과 같은 강령적 제목을 단성명문을 발표했다. "미 제국주의를 타도하라! 노동자 연대와 다극 세계 만세!"[16]

이 성명은 "미국 및 그 위성국들이 러시아를 상대로 추구하는 공격적인 정책에 대한 항의"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탈무장화와 탈나치화에 대한 지지"를 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이 말하는 "다극 세계"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드러내주고 있는 성명이다. 다시 말해, "다극 세계"라는 구상을 전파하는 것은 1)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2)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여 사회제국주의적 "조국 방어"를 하는 것, 이 두 가지와 불가분의 관계라

는 점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성명이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언급했듯이,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 인민을 적으로 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회제국주의 정책은 주가노프의 러연 방공산당으로 국한되지 않는다.[17] 2022년 10월 아바나에서 열린 22차 공산당·노동당 국제회의에 참가한 34개 “공산”당들이 서명한 성명서도 같은 정책, 같은 구상을 표명하고 있다.[18]

또 2021년 6월 26개국 공산당들이 채택한 또 다른 국제 성명은 이들 스탈린주의자들이 강대국 패권경쟁을 “제국주의 진영 대 사회주의 진영 간의 대결”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편에서 미국 주도의 제국주의 열강들과 다른 한편에서 미국 지배의 “단극,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 및 그 동맹국 러시아, 이와 같이 두 서로 다른 체제 간의 충돌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토 동맹의 사실상의 리더 미국은 자신의 이익이 반중·반공 프로파간다를 중심으로 한 ‘신냉전’을 점화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것은 전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위협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악명 높은 ‘아시아로의 회귀’ 이래로, 미국 자본주의 엘리트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떠오르는 성공과 힘을 단극, 신자유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음이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는 반중·반사회주의 정책을 더욱 더 공격적으로 밀고 갔고, 많은 이들이 ‘신냉전’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국가가 빈곤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왜 나토 열강에 안보 위협이 되는가?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패권과 자본가의 이윤에는 위협이 된다. 중국과 그 전략적 동맹국 러시아, 양국 모두 수백 개의 미국 및 나토 군사 기지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어 있다. 동유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끊임없이 러시아 국경에 점점 더 가까이 확장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반러시아 파시스트 세력을 돕는

동시에 러시아 인민을 겨냥하여 경제 제재를 사용하고 있다. 세계가 또 다른 반공 냉전으로 추락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19]

이 성명에 서명한 당들이 현재 자본가정부의 일원으로 있거나 (예를 들어 브라질, 스페인, 남아공), 몇 년 전 그러한 일원이었던 (프랑스) 사실만 지적하고 넘어가겠다.

요컨대, 스탈린주의자들은 그 정확한 근거에서는 다소 다르지만 전략적 목표에서는 푸틴 및 그의 이데올로그들과 매우 유사하다. 미국 주도의 "단극 세계질서"를 "다극 세계질서"로 대체하는 것, 즉 중러 제국주의의 글로벌 역할 강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3) 진보인터내셔널: "독점자본주의" 극복으로 가는 하나의 단계로서 "다극체제"?

비슷한 전략을 판촉운동 하고 있는 것이 진보인터내셔널이다. 이 진보인터내셔널은 일련의 집권당 정치인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개량주의·포퓰리즘 당들의 네트워크다. 미국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 룰라의 PT(브라질), 아니스 바로파키스와 그의 DiEM25(그리스), 라파엘 코레아 전 대통령(에쿠아도르), 제러미 코빈 전 노동당 대표(영국), 멜랑송의 “굴하지 않는 프랑스” 소속의 저명한 정치인들, 볼리비아 에보 모랄레스의 당, 아르헨티나의 집권 키르치네르주의 당 등이 여기에 속해 있다.[20]

진보인터내셔널 사무국장 파웰 워건은 최근 친 스탈린주의 성향의 저명한 미국 학술지 먼슬리 리뷰에 강령적 차원의 내용을 담은 논설을 발표했다. 이 논설에서 워건은 레닌과 트로츠키 당시의 공산주의인터내셔널을 비롯하여 그 밖의 식민주의 반대자들이 제창한 관점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처음으로 세계의 경제적 무게중심이 결정적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무역의 균형추는 이제 중국으로 기울고 있고, 제3세계 국가들은 탈식민지 사회들의 저발전을 가속화한 강요된 세계자본주의체제 불균형의 시기였던 미국 패권 시대의 종말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의해 촉발된 구조운동이 전 지구에 진동을 보내고 있다. 자본의 지배로 수세기에 걸쳐 형성된 이른바 '서방세계'는 기아, 빈곤, 기후변화의 재앙 앞에서 무력하다. 사회 개선을 위해 경제적 힘을 배치하는 것 — 사적소유의 우위에 도전하는 과정 — 이 금지되어 있는 구 식민 열강들은 자원을 사유재산 보호 방향으로 돌려놓고 있다. 파시즘이 고개를 들고 있고, 자주적 발전의 길로 들어서려는 국가들에 새로운 X표가 그려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구 냉전의 반혁명 드라이브가 새로운 세기로 밀고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동일한 규모로 약속과 테러로 채워지고 있다." [21]

"러시아가 이제 모방해야 할 모델로 정식 격상시키고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글로벌 동맹이 제국주의 질서에 도전할 것이다. 지난 세기의 식민 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신 냉전에서 존엄한 삶을 건설하려는 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단층선을 가로질러 나아간다, 오늘, 제3세계 나라들 사이의 유대는 제국주의 위협에 맞서 공고해지고 있다. 정치 프로젝트와 소신에서 전혀 다른 중국의 시진핑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는 '냉전 사고방식'을 거부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여, 워건이 "다극체제" 개념을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신냉전의 유혹에 대한 단호한 저항은 다극체제의 시급함을 부각한다. 다극체제는 지난 500년 단극 질서가 굳혀놓은 세계자본주의의 강

요된 불균형에 대한 해독제다. 인류가 팬데믹에서 빈곤에 이르기까지, 전쟁에서 기후재앙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의 문명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려면 제국주의의 종속 드라이브에 맞서 자주적 발전과 협력에 기초한 대외정책을 구축해야 한다.”

아예 더 나아가 이 진보인터내셔널의 사무국장은 중국-러시아가 강력한 지위를 점하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질서가 독점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극체제는 독점 자본주의의 축적 드라이브 영역 밖에서 대안 정치 프로젝트들을 명확히 하고 서로 접합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다극체제는 집단서방이 직면한 가장 심대한 위협이다.”

이와 같이 진보인터내셔널은 중-러 제국주의의 핵심 전략 개념을 채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푸틴주의 범주들 (“집단서방 collective West”과 같은)까지 그 안에 통합시켜놓고 있다.

4) 중국-러시아는 "진보적" 열강인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은 러시아-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서뿐만 아니라 스탈린주의 세력 및 개량주의-포퓰리즘 세력의 이데올로기 체계에서도 핵심 역할을 한다. 언제나 RCIT는,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다극 세계질서” 개념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이것은 러시아-중국 제국주의의 이익에 봉사하는 개념이다.

중국이 “사회주의 나라”라는 스탈린주의 신화와는 달리 중국은 10여년 전 제국주의 강대국이 됐다. 우리가 여러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1990년대 초에 여전히 스탈린주의 당이 권력을 (1991년의 소련과는 대조적으로) 유지한 채로 자본주의 복고가 이루어졌다. 그 이래

로 대규모의 자본가 계급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만들어져 진화해나가고 있다. 아래 표 1과 2에서 보듯이, 중국은 이미 미국보다 더 많은 억만장자와 독점체를 보유하고 있다.

표 1. 포춘 세계 500대 기업 보유 상위 10개국 (2020년) [22]

나라	기업 수	점유율(%)
1 중국	124개	24.8
2 미국	121	24.2
3 일본	53	10.6
4 프랑스	31	6.2
5 독일	27	5.4

표 2. 중국과 미국, 후론 글로벌 부자 리스트 1위국과 2위국, 2021년 [23]

"알려진" 글로벌 억만장자 점유율 2021년

중국	1058명	32.8%
미국	696명	21.6%

중국의 "사회주의" 정권은 실제로는 스탈린주의-자본가 독재다. 이것은 몇 달 전 전례 없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계엄령 식제로 코로나 정책이나[24], 2019/20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잔학한 진압이나[25], 위구르인에 대한 끔찍한 민족 억압[26]과 같은 몇 가지 예만으로도 명백하다. 중국 정권에 "사회주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러 문서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중국은 오랜 패권국 미국에 도전하는 제국주의 열강이 됐다.[27]

마찬가지로, 푸틴 러시아에도 "진보"적이나 "반제국주의"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여러 팸플렛에서 보여주었듯이, 러시아도 제국주의 열강이 되었다.[28] 비록 중국에 비해 경제력은 덜하지만, 미국과 더불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두 체제 간 핵심적인 차이는 중국이 레토릭 상으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을 주장하는 반면 푸틴은 그런 레토릭 상의 가장조차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푸틴은 오히려 이반 일리인과 같은 우익 군주제주의 이데올로그들을 공공연하게 찬양하고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광적인 반 페미니즘·반 LGBT+ 사상을 중심으로 한 극보수적인 세계관을 홍보 전파한다.[29]

맑스주의자들은 “다극 세계질서” 개념의 의미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극 세계질서”는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를 복수의 열강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질서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배권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것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바, 20세기 전반에 세계는 그러한 격렬한 강대국 패권경쟁의 시기를 경험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패권경쟁은 1914-18년과 1939-45년 두 번의 파괴적인 세계대전으로 결과했다.

5) 강대국들 간의 평화공존이란 불가능하다

강대국들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스탈린주의의 발상 자체가 완전히 터무니없다! 수천 년 계급사회의 전 역사에서 제국들 간의 그러한 평화 공존은 존재한 적이 없다. 조만간에 지배계급의 세력권 확대와 잉여생산물 증식 물이는 곧 경쟁자들과의 충돌과 전쟁으로 결과했다.[30] 이것이 21세기에는 왜 달라져야 하는가? 모든 강대국들이 최신 무기들의 병기창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더더욱 왜 달라진다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팜플렛 중 하나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이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닌, 복수의 강대국 중 하나에 불과한” 이 다극 세계질서란 “더 평화로운 세계질서는 확실히 아니다! 그것은 일방주의와 제3차 세계대전의 중간 단계인 강대국들 간 공공연한 패권쟁투 단계일 뿐이다!”[31]

실제로 푸틴주의 이데올로그들 중 보다 영리한 자들은 “다극 세계질서”가 “평화적” 질서가 아니라 강대국 패권경쟁의 가속화, 군사적 긴장의 증가, 본격 전쟁의 위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심분 인지하고 있다. 발다이 토론클럽의 프로그램 편성자이자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크렘린의 공식 싱크탱크)의 프로그램 편성자를 맡고 있는 대표적인 푸틴주의 지식인 이반 티모페예프는 이렇게 썼다. “객관적으로 세계는 러시아 대외정책 독트린에서 말하는 다극 세계로, 또는 패권국 없는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작금의 동향을 고려할 때, 그러한 세계는 정치적 현실주의를 대외정책 사고의 핵심 패러다임으로 하는 무정부 상태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32]

그리고 푸틴주의 중앙기관지 러시아투데이에 기고하는 러시아 정치 분석가 티무르 포멘코는 “다극 세계질서”가 1914년 또는 1939년 이전의 세계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이 패권을 되찾으려 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그 결과로 자신들이 지배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 역량과 전략적 자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새로운 군비 경쟁과 새로운 기술 경쟁, 그리고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과 같은 서방에 대한 대체 블록의 확대를 가져왔다. 미국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애초 막으려 했던 다극체제의 현실이다. 세계는 이제 1914년 이전, 아니 더 나빠게도 1939년 이전의 모습과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 경쟁하는 두 강대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로 영향력을 다투는 국가들이 늘어서 있는 모습 말이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려고 애쓰면서 도전자 중국·러시아와 맞붙겠지만, 다른 신흥 열강들도 있다.”[33]

그렇다. 자본가들 간의 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국가들 간의 세력권 경쟁, 패권경쟁이 없는 자본주의는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설명했듯이, 1948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정한 예외기가 존재했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제국주의 간 패권 경쟁이 제약됐던 기간이다.

- a) 소련 및 그 밖의 스탈린주의 국가들을 향한 제국주의 열강들의 공동의 적대
- b)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일본 패배의 결과로 제국주의 진영 내 미국의 절대적 패권[34]

그러나 이 특별히 평화로웠던 시기조차도 "냉전"기라 불렸으며, 많은 지역·국지 전쟁을 겪었다.

제국주의는 경제적으로 독점체들에 의해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는 글로벌 자본주의 체제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맹렬한 노획물 다툼과 세력권 경쟁에서 피할 수 없고 경쟁자에 대해 우세를 차지하려고 다툰다.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즉 생산수단 사적 소유 체제가 직접적인 노동자계급 민주주의와 국유화된 계획경제에 기초한 사회주의 질서로 대체되기 전까지는 이것이 세계정치를 계속 지배할 것이다.

6) 역사적 선구자들: 노획물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 독일·이탈리아·일본

미국의 패권을 종식시키는 것이 진보라고 스탈린주의 이론가들은 주장한다. 물론 사회주의자 누구나 미 제국주의를 혐오하며, RCIT는 다른 진정한 맑스주의자들처럼 패권국 미국 및 그 동맹국들에 대항하는 해방투쟁을 지지해 온 오랜 전력을 가지고 있다.[35] 그러나 한 강대국의 지배를 여러 강대국의 지배로 대체하는 것에는 아무 진보적인 것도 없다! 왜 우리가 강도 한 놈이 지배하는 세계보다 강도 여러 놈이 지배하는 세계를 선호해야 하는가?! 강도들 간에는 후자의 경우가 보다 '공정'하고 '개량'일지 모르겠지만,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강도에 반대한다. 국제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인민들에게 전자의 경우는 후자의 경우든 "덜 나쁜" 쪽은 없다. 어느 것도 "차악"이 아니다.

미국의 패권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도전은 무슨 진보적인 요인에 의해 추동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강도들의 빅 테이블에서 자신의 "타이틀이 붙은 자리"를 얻고자 하는 이 신참 강도들의 제국주의적 욕망에 의해 추동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것은 없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독일 지배계급의 주요 정파들은 영국-프랑스와는 대조적으로 식민지를 거의 소유하지 못한 통탄스런 상황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1900년부터 1909년까지 독일의 총리였던 베른하르트 폰 빌로는 의회 연설에서 "우리는 태양 아래 우리의 자리를 요구한다"는 유명한 말을 한 바 있는데, 이는 독일이 식민지에 대한 "공정한" 몫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글로벌 열강이 되기 위한 독일의 드라이브는 필연적으로 기존 패권국 영국에 대한 적대와 전쟁을 초래했고 이어서 1차 세계대전과 이후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마찬가지로 엔리코 코라디니와 가브리엘레 단눈치오와 같은 이탈리아 배외주의-국수주의자들도 20세기 초에 그들의 나라가 대국 정치에서 낙오된 "프롤레타리아 민족"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이 원칙의 인정에서 출발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프롤레타리아 민족도 있다. 즉, 그 생활 조건이 불리하게 타 민족의 생활 조건에

종속된 민족 말이다... 이탈리아는 도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프롤레타리아적인 민족이다.”[36]

이 사상은 나중에 무솔리니와 그의 파시스트들에 의해 채택됐다.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한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식 파시스트 신문 아키아이오는 1936년 이탈리아는 그저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원할 뿐이라고 주장했다.[37]

그리고 1940년 파시스트 정권이 출판한 공식 <<정치 사전>>은 "태양 아래 자신의 자리를 요구하는 젊고 강한 국가들"만이 "국가들 간의 다른, 새로운 힘의 균형"을 확립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38]

후발 제국주의 열강 일본에서도 비슷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1920년대에, 전향한 맑스주의자 다카하시 가메키치는 일본이 "뿌리 제국주의"라는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일본이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일본의] 국제적 계급 위상은 영국-미국과 같은 제국주의 나라들의 위상이라기보다는, 중국, 인도 그밖에 제국주의에 종속된 나라들의 위상과 훨씬 더 일치한다." [39] 따라서 대국이 되고자 하는 일본의 욕망을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40]

물론, 후발 열강의 그러한 욕망이 보통 어떻게 끝나는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신흥 열강들이 보다 강해지고 기존 패권국에 도전할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며 궁극적으로 전쟁으로 결과한다. 패권국이 지배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2천 년 전에 로마제국이 그랬고, 중화제국과 비잔틴제국도, 그리고 훨씬 최근 19세기와 20세기에 대영제국과 지난 수십 년간의 미국도 그러했다. 마찬가지로 신흥 제국이 패권국에 도전하려는 것 또한 논리적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평화로운 시기로 결과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하지 않고 터무니없이 부조리하다!

결국, 자본주의가 존재하는 한 하나의 제국주의 열강 (또는 한 제국주의 진영)은 경쟁 제국주의 열강을 정복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이 패권적 지위를 유지해내는 데 성공하거나 아니면 그 최대 경쟁자인 중국이 기존 서방지배 질서를 무너뜨리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다. 따라서 "다극 세계질서"는 안정적인, 장기적인 일 시기일 수가 없고, 오직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다. 여러 제국주의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미국 학자 앤드류 쿠친스는 다음과 같이 제대로 지적했다. "중국은 자신의 일방적인 지배가 실제로 모두의 눈에 명확해질 때까지 다극체제 이데올로기에 계속해서 립서비스를 할 것이다." [41]

7) 맑스주의 對 다극 제국주의

요약하자면, 푸틴주의-스탈린주의 "다극 세계질서" 요구는 "태양 아래 자기 자리"를 가지려는 후발 열강들의 오래된 제국주의적 요구를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 권위주의 차르 제국에 대한 동경을 결코 숨긴 적이 없는 푸틴 정권의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이 그러한 낡은 이데올로기 도식을 집어든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그 보다는 스탈린주의-개량주의 당들이 그러한 극반동적인 이론들을 이다지도 열정적으로 지지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RCIT가 늘 강조해왔듯이, "다극 세계질서" 개념을 제창하는 것은 중·러 제국주의 및 그들의 미 제국주의 패권 종식 열망을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탈린주의-개량주의 당들은 부르주아지의 한 분파에 대항하여 다른 한 분파를 지지하는 오랜 전통 (소위 "인민전선 전략")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들은 제국주의 상호 전쟁에서 한 제국주의 진영에 대항하여 다른 한 제국주의 진영을 편 들었다. 1930년대와 1940년대에는 사민주의자들이 독일에 대항하여 서

방 제국주의자들을 지지했던 한편, 스탈린주의 당들은 1935-39년 및 1941-45년에 독일에 대하여 서방 제국주의자들을 (히틀러-스탈린 조약 기간에는 독일에 암묵적인 지지를 주면서) 지지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다극체제 개념에 대한 스탈린주의자들의 지지는, 이론 분야에서는 "일국 사회주의"라는 그들의 오래된 도그마에 그 연원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제국주의 열강들의 현존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글로벌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42]

이와 같이 "다극세계질서"의 제창은 결국 러중 제국주의를 지지하는 철두철미 사회제국주의적인 정책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서방 나라들의 일부 스탈린주의자들은 '자'국 지배계급에 반대하므로 자신들이 "반제국주의자"라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러한 스탈린주의 당들은, 1940-45년에 조국을 "배반"하고 독일 점령 당국과 협력했던 벨기에 사민주의자 헨드릭 드 만이나 프랑스 사회당원 루도비크-오스카 프로사르만크이나 "반제국주의"다. 레닌과 트로츠키는 이러한 세력을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 — 즉 자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지하지 않고 다른 "외국"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지지하는 세력 — 이라고 불렀다. 그 같은 전도된 사회제국주의자들은 통상적인 사회제국주의자들보다 나올 것도, 더 나쁠 것도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스탈린주의자·개량주의자·민중주의자(포퓰리스트)들의 중러 제국주의 지지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중국 러시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물질적 이해가 있는 독점 부르주아지 분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팜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에서 지적했듯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인도와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서유럽에

서도 많은 자본가들이 중국·러시아와 광범위에 걸친 사업 운영을 하고 있다. 친중·친러 사회제국주의자들이 객관적으로 이들 국내 부르주아지 분파들의 이익 또한 대변하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다극 세계질서"는 평화적이거나 진보적인 글로벌 체제를 의미할 수 없고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 보다는 멀티(多)제국주의 — 즉 경쟁하는 복수의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세계 — 를 의미하며, 오직 그것만을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개념은 털끝만치의 진보도 담고 있지 않다!

맑스주의자들이 "일극"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반대한 것은 그것이 "일극"이여서가 아니라 제국주의여서 반대한 것이다! 우리는 "단극" 제국주의 질서든 "다극" 제국주의 질서든 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양 '질서'에 똑같이 반대한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또한 애플 사(社)나 마이크로소프트 사 사이에, 페이스북이나 웨이보 사이에 선호가 없다! 제국주의자들 사이에, 자본가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마라.

RCIT와 모든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에게, "일극" 제국주의 세계질서에 대한 대안은 "다극체제"가 아니라, 그 어떤 형태든 제국주의 체제를 국제 사회주의로 대체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모든 강대국에 대항하여 국제 계급투쟁을 조직하고 세계 프롤레타리아혁명을 준비하는 것이다!

[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

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팸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 미-중 냉전에 대한 우리의 가장 최근 문서로는 다음을 보라. <칩 제재: 미-중 간 전쟁으로 가는 또 하나의 행보>, 2022년 10월 25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html>. 세계무역전쟁에 대한 우리의 문서들을 다음 링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3] 우리는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많은 기사와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가장 최근 기사로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Less Than 9%. Many Western corporations continue to make business with Russia despite the official sanction policy, 11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estern-corporations-continue-to-make-business-with-russia/>

[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hreats of Nuclear War between Great Powers. On some consequences for the world situation and for socialist tactics in the defence of the Ukraine, 5 Octo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hreats-of-nuclear-war-between-great-powers/>; 다음도 보라. Medina Guni: Recession, Energy Crisis, Strengthening of the Imperialist Blocs - The World Situation will change soon enough, 23 August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orld-situation-will-change-soon-enough/>; 미하엘 프리브스팅, <[팸플렛] 세계정세: 글로벌 정치 토네이도의 한가운데서 - 우크라이나 전쟁/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세계 에너지·식량 위기/자생적 대중항쟁 등, 정세 발전에 관한 노트>, 2022년 10월 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7.html; 같은 저자, <특별한 폭발적 조합 - 현 세계정세에 관한 노트>, 6 October 2022, https://blog.wrpkorea.org/2022/10/blog-post_100.html.

wrpkorea.org/2022/10/blog-post_12.html.

[5] RCIT는 미국의 아프간 침략과 패배에 대해 일련의 팸플렛과 기사들을 발표했다.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collection-of-articles-on-us-defeat-in-afghanistan/>.

[6]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보라. Michael Pf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7]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160여 편의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korea.org/2022/05/rcit.html>; 다음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즈음한 RCIT 격문 - 영웅적인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승리를! 러시아 제국주의에게 패배를! 나토 제국주의를 지지해선 안 된다!>, 2023년 2월 10일, <https://blog.wrpkkorea.org/2023/02/1-rcit.html>.

[8] Joint State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Entering a New Era and the Global Sustainable Development, 4 February 2022, <http://en.kremlin.ru/supplement/5770>. 푸틴-시진핑 회담에 대한 비판적 평가분석 글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시진핑 회담의 의의 - 러시아와 중국이 공동의 적에 맞서 결속을 과시하다>, 2022년 2월 5일, https://blog.wrpkkorea.org/2022/05/blog-post_963.html.

[9]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New Year Address to the Nation, 31

December 2022,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70315>

[10]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Speech at the final plenary session of the 19th meeting of the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27 October 2022, Moscow Region, <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9695>

[11] Echo Xie: China to aim for stronger ties with Russia this year, top diplomatic official says, South China Morning Post, 4 Feb, 2023, https://www.scmp.com/news/china/diplomacy/article/3209106/china-aim-stronger-ties-russia-year-top-diplomatic-official-says?module=lead_hero_story&pg-type=homepage

[12] 다음에서 인용. Zhiqun Zhu: China's Grand Strategy toward North America, in: David B. H. Denoon (Ed.): China's Grand Strategy. A Roadmap to Global Power?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2021, p. 215

[13] Carlos Martinez: Decoupling from China, Russia suicidal for Europe, Global Times, 15 January 2023, <https://www.globaltimes.cn/page/202301/1283833.shtml>

[14] Rush Doshi: The Long Game. China's Grand Strategy to Displace American Order,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2021, see in particular pp. 110-111, pp. 128-129 and pp. 159-177

[15] 같은 글에서 인용, 110쪽

[16] KPRF: Down with American imperialism! Long live workers' solidarity and a multipolar world! 4 August 2022, <https://cprf.ru/2022/08/down-with-american-imperialism-long-live-workers-solidarity-and-a-multipolar-world/>

[17] RCIT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연방공산당(KPRF)의 사회배외주의 정책에 대해 논박하는 일련의 글을 발표했다. 우리의 가장 최신 글로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Russia: Friends Among Themselves. KPRF leader Gennady

Zyuganov meets President Putin to confirm his role as a loyal servant of Russian imperialism, 15 Febr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russia-friends-among-themselves-zyuganov-meets-putin/>

[18]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스탈린주의 당들 사이의 정치적 분화: 우크라이나 전쟁과 제국주의 패권경쟁 문제를 둘러싸고 - 아바나 22차 “공산당 노동당 국제회의”에 대한 노트>, 2022년 11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22.html>.

[19] Joint Statement (initiated by the CP USA): The Communist and Workers’ Parties Condemn NATO’s Cold War Rhetoric, 29.6.2021, <http://www.solidnet.org/article/CP-USA-JOINT-STATEMENT-THE-COMMUNIST-AND-WORKERS-PARTIES-CONDEMN-NATOS-COLD-WAR-RHETORIC/>; 다음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중국 제국주의의 벗들은 어떻게 착한 글로벌 자본주의를 꿈꾸고 있는가>, 2021년 3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5.html; 같은 저자, Stalinist and “Trotskyist” Supporters of Chinese Imperialism under the Fig-Leaf of “Anti-Imperialism”. A commentary on the statement “No to U.S. war threats against China!” by the “United National Antiwar Coalition” in the U.S., 4 April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stalinist-and-trotskyist-supporters-of-chinese-imperialism-under-the-fig-leaf-of-anti-imperialism/>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아테네 선언”: 투쟁 방향을 흐트러뜨리는 연막탄 - 샌더스, 롤라, 바루파 키스, 코빈의 “진보인터내셔널”이 낸 성명 비판>, 2022년 5월 1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55.html.

[21] Paweł Wargan: NATO and the Long War on the Third World, Monthly Review, Vol. 74, No 08 (January 2023), <https://monthlyreview.org/2023/01/01/nato-and-the-long-war-on-the-third-world/>

[22]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0, <https://fortune.com/global500/>

[23] Hurun Global Rich List 2021, 2.3.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2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중국 민중반란: “봉쇄 반대!” “제로 코로나 반대!” 대중시위가 빠르게 정치적, 반체제적으로 변해 가고 있다>, 2022년 11월 28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blog-post_30.html

[2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홍콩 총파업: 베이징의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 무력진압을 준비하고 있다. 국제 연대운동으로 맞서자!>, 2019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91.html

[26]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성명, <중국 제국주의의 위구르 인민 탄압을 지지 서명한 37개국 - 무슬림 국가들 포함 37개국이 중국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서한을 유엔에 제출하다>, 2019년 7월 16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37.html>.

[27]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리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8]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음 잡지에도 실렸다. International Viewpoint, 2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18>);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같은 저자, <푸틴의 성소수자 억압에 찬성하는 러시아 스탈린주의자들 - “러시아연방공산당” 의원단이 연방의회에서 “LGBT 선전” 금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지지하다>, 2022년 10월 3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1/lgbt.html>.

[30] 이에 대해서는 다음 두 팸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위 <푸틴의 푸들들>,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산명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31] 상기한 팸플렛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을 보라.

[32] Ivan Timofeev: The Chinese View of the World: Is a Non-Zero-Sum Game Possible? 16 January 2023, <https://valdaiclub.com/a/highlights/the-chinese-view-of-the-world-is-a-non-zero-sum/>

[33] Timur Fomenko: How the year 2022 ended the American unipolar era, Russia Today, 31 December 2022, <https://www.rt.com/news/569087-2022-cold-war-us/>

[34] 다음 논문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주변부 국가인가? -아르헨티나 경제학자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35]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다음 논설을 보라. Michael Pr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36] 다음에서 인용. Ronald S. Cunsolo: Enrico Corradini and Italian Nationalism 1896-1923, New York University, June 1962, p. 97

[37] 다음에서 인용. Frank Vollmer: Faschistische Kultur. Revolution und Gewalt im totalitären Regime: Ein Fallbeispiel von zwei Peripherien, in: PERIPHERIE Nr. 106, 26. Jg. 2006, Verlag Westfälisches Dampfboot, Münster, p. 491 (our translation)

[38] 다음에서 인용. Monica Fioravanzo: Die Europakonzeptionen von Faschismus und Nationalsozialismus (1939-1943), in: Vierteljahreshefte für Zeitgeschichte, Jahrgang 58 (2010), No. 4, p. 512 (our translation)

[39] Germaine A. Hoston: Marxism and the Crisis of Development in Prewar Japan,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1986, pp. 80-81

[40] 이에 대해서는 상기한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fbsting: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pp. 54-56.

[41] Andrew C. Kuchins: China's Policy toward Russia and Europe: The Eurasian Hookup, in: David B. H. Denoon (Ed.): China's Grand Strategy. A Roadmap to Global Power? New York University Press, New York 2021, p. 207

[42] 다음을 보라. 상기한 팸플릿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9장 “일국 사회주의: 스탈린주의 ‘평화공존’ 개념의 역사적 뿌리”.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미하엘 프리브스팅, 2022년 8월 11일

1. 들어가며
2. "단극 세계질서": 카우츠키 "초제국주의"의 신 버전
3.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이다?
4. 공격적-군국주의적 대외정책으로서의 제국주의?
5. 러시아는 나도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반주변부 나라다?
6. 위험한 정치적 결론
7. 맺으며

1. 들어가며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의 진보 경제학자 클라우디오 카츠가 “러시아는 제국주의 열강인가?”라는 제목으로 4부작 논문을 발표했다.[1] 카츠 논문의 중심 테제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반(半)주변부 나라”이자 “태동 중인 비(非)패권 제국”이라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견해가 틀렸다고 생각한다. 2001년 이래로 나는 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이라는 테제를 옹호해왔다. 이는 21세기 초에 진행된 사태발전을 배경으로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정립하려는 나의 노력의 일환이었다.[2] 카츠가 그의 논문에서 거론한 몇 안 되는 러시아 제국주의 테제 옹호자 중 한 명으로서 나는 그의 비판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수년 동안, 러시아 (및 중국) 이 제국주의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의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다소 추상적-이론적 문제로 취급되었고, 실제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이후로 바뀌었다. 이제 많은 이들이 그 문제가 사회주의자들의 정치 전략-전술에 중요한 실천적 결과를 가져오는 일급의 이론 문제라는 것을 인식한다!

카츠의 논문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의 제국주의 개념이 오늘날 제국주의의 핵심적인 모순적 동역학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의 개념은 러시아 제국주의를 세탁, 면죄부를 주고 (우크라이나와 같은) 피억압국들을 방어하길 거부하는 노선들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한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데, 실제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경

우 거의 모두가 푸틴의 침략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클라우디오 카츠가 제출한 가장 중요한 논거에 대응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우리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평가분석을 보다 완성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서들로는, 위의 각주 [2]에 있는 문헌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

2. "단극 세계질서": 카우츠키 "초제국주의"의 신 버전

카츠가 러시아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자본주의적 제국주의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는 그의 잘못된 제국주의 이론이 바탕에 깔려 있다. 두루 알다시피, 레닌은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을 정립했다.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은 이 체제를 소수의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이 나머지 세계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자본주의 특수 역사 단계로 성격규정한다.[3]

카츠는 이 고전적인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그는 하나의 중심부(미국과 그 종속적 동맹국들)가 지배하고 이 중심부에 그 밖의 세계 모든 부분들이 주변부 또는 반주변부로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체제로서의 제국주의 인식을 제창한다.

"1914-18년 전쟁에서는 비슷한 힘을 가진 복수의 열강들이 현재와 같은 미 펜타곤(국방부)이 행사하는 중층적인 패권과는 거리가 먼 시나리오 속에서 충돌했다. 현대 제국주의는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아시

아오세아니아의 다른 제국 파트너들이 지지하는 복합구조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토는 워싱턴의 명령에 따라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비패권 경쟁자들과의 주요 분쟁에서 이 복합구조를 하나로 이어 붙인다. 중국도, 러시아도 이 지배적인 제국주의와 같은 레벨에 있지 않다. 20세기 초의 상황과는 차이가 크다."

"미국 주도 지배 블록의 존재가 현대 제국주의 체제의 주 특징이다. 그 세계 최강국이 새 모델의 대표자이자, 부국들의 지배를 확고히 해주는 국제 강제장치의 관리자다." [4]

비슷한 진술을 계속해서 더 인용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도 카츠의 현대 제국주의 규정을 드러내 보이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제국주의관은 현대 제국주의를 미국 지배의 "단극 세계질서"로 성격 규정하는 이마누엘 월러스타인 등의 소위 "세계체제론"과 매우 비슷하다. 많은 스탈린주의·볼리바르주의 당들과 언론인 페페 에스코바르나 세르게이 글라제예프 같은 중·러 제국주의 이데올로그들도 이 비슷한 관점을 공유한다. [5] 그들은 모두 이러한 "단극" 제국주의 체계가 "제국주의적 성격을 갖지 않는 '다극 세계질서'"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이론으로서 이러한 제국주의관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칼 카우츠키가 1914년에 비슷한 "초제국주의" 이론을 정립한 바 있다. 카우츠키는 모든 독점체가 하나의 카르텔로 통합될 수 있으며, 따라서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대체하지 않고 그 안에서 강대국 간 제국주의 패권경쟁이 지양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국주의 이론은 과거에도 틀렸고 오늘날에도 틀렸다. 복수의 제국주의 강대국 간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제국주의 체제란 없다. "초제국주의", "유일 제국주의", "단극 제국주의" 같은 것은 없다. 그 같은

제국주의 이론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을 아주 과소평가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사적소유와 함께 자본가 국가들의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경제 체제다. 언제나 자본주의는 자본가들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국가들, 특히 강대국들 간의 패권경쟁을 또한 기본 특징으로 해왔다. 레닌을 비롯하여 제국주의에 대한 고전적 맑스주의 이론가들은 19세기 말에 자본의 집적으로 자본주의가 몇 안 되는 강대국들과 연결된 독점체들이 지배하는 체제로 전화되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맑스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이 단계를 “제국주의”로 성격규정한다.

물론 제국주의 세계체제는 지난 수십 년간 맑스주의자들이 지적했듯이 다양한 전변을 겪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인 독점체들과 그들 간의 모순, 그리고 강대국들과 그들 간의 모순은 여전히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남아 있다.

카츠의 제국주의관이 그 근본 가정에서 오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계경제를 공동으로 관리 통제하는, 모든 독점체들의 초민족적 중심부(core) 같은 것은 없다. 또한 세계의 나머지를 공동으로 관리 통제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초민족적 중심부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국주의 이론은 소위 중심부의 독점체들 간, 강대국들 간의 모순을 과소평가한다. 1945년-1991년 기간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서로 간에 더 긴밀하게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소련이 이끄는 스탈린주의 국가들의 대단위 블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서는, 제국주의 열강과 스탈린주의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 간의 체제 경쟁이 제국주의 상호간의 모순을 어느 정도 대체하거나 뒤로 밀어냈다.

그러나 그 때조차도 강대국 패권경쟁은 계속 존재했다. 1956년 소위

수에즈 위기 때 미국과 영국·프랑스 간의 충돌이나, 또는 드골이 프랑스를 나토의 통합 군사 지휘부에서 철수시키기로 결정했던 당사를 생각해보면 된다. 어쨌든 1991년 소련 붕괴와 러·중의 새로운 제국주의 열강 부상 이래로 강대국 패권경쟁은 다시 한 번 세계정치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다.

실제로 미국은 이미 어느 때부터 더 이상 절대 패권국이 아니다. 우리의 연구문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모든 핵심 분야에서, 즉 자본주의 가치 생산과 세계무역, 최상위 독점체 및 억만장자 비중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의해 도전받거나 심지어는 추월당했다. 미국이 여전히 강력한 열강이긴 하지만, 더 이상 세계를 지배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이는 1991년 이후 매우 짧은 기간 동안만 해당되는 얘기다!)

미 제국주의의 쇠퇴와 중·러의 경쟁자로서의 부상이라는 이러한 정세 발전은, 우리가 광범위에 걸친 사실과 수치를 바탕으로 연구보고서들에서 보여주었듯이 정치·경제·군사 모든 차원에서 일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수치들 중 일부를 선별해서 제시하는 것으로 국한할 것이다. 이 수치들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경제에서 압도적인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표 1-4 참조)

표 1. 전 세계 제조업 생산 점유율 상위 10개국, 2018년[6]

중국	28.4
미국	16.6
일본	7.2
독일	5.8
한국	3.3
인도	3.0

이탈리아	2.3
프랑스	1.9
영국	1.8
멕시코	1.5

표 2. 세계 상품수출 점유율 상위 국가, 2020년[7]

중국(홍콩 포함 시)	14.7%(17.8%)
미국	8.1%
독일	7.8%
네덜란드	3.8%
일본	3.6%
한국	2.9%
프랑스	2.87%
이탈리아	2.8*
벨기에	2.4%

표 3. 포춘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상위 5개국, 2020년[8]

나라	기업 수	점유율
중국	124	24.8%
미국	121	24.5%
일본	53	10.6%
프랑스	31	6.2%
독일	27	5.4%

표 4. 2021년 세계 억만장자 비중, 중국과 미국[9]

나라	수	점유율
중국	1,058명	32.8%
미국	696명	21.6%

이 수치들은 모든 관련 분야에서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가 중국에 존재하지만 아직 경제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다"는 카츠의 주장을 터무니없는 얘기로 만드는 수치들이다.[10] 전면적인 자본주의 경제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주도적인 비중을 점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 글의 경계를 넘어 가는 것으로, 관심 있는 독자들은 우리의 관련 문서들을 참조하면 될 것이다.[11]

3. 러시아는 제국주의가 아니라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이다?

여기서 카츠는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우리 앞에 내놓는데, 이는 그가 신흥 열강으로서의 러시아를 성격규정하기 위해 고안해낸 개념이다.

"러시아는 지배적인 제국주의의 일부가 아니며, 그 네트워크 내에 있는 공동 제국 파트너도 아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강렬한 군사 활동을 통한 지배 정책들을 펼친다. 러시아는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에 적대적이지만 자신의 반경 내에서는 억압적 행보를 취한다. 이 모순적 행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 개념이 이 다양한 특징들을 종합적으로 합성해준다. 합성체의 구성부분들 중 비패권 요소는 러시아가 제국 권력 중심지들과의 관계에서 처한 포지션에 의

해 결정된 것이다. 중국처럼 러시아도 나토에 의한 조직적인 괴롭힘의 대상이다. 이 괴롭힘이 러시아를 21세기의 주(主)지배 회로 외부에 위치시킨다. 합성체의 구성부분들 중 제국 요소는 맹아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수세기에 걸친 억압적 관행을 가진 강대국에서 자본주의 복원은 이미 완성되었지만, 제국적 정책의 징후는 단지 가능성으로만 남아 있다. '형성 중인 제국'이라는 용어는, 미완성의 지위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귀환에 걸맞는 지위를 집중 조명해준다."

러시아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보다도 경제적으로 약하다는 지적은 분명 옳다. 그러나 러시아는 세계 2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상임이사국이며 미·중·EU와 함께 세계정치에서 핵심 주자다. (표 5 및 6 참조)

표 5. 세계 핵 무력, 2020년[12]

나라	실천배치 핵탄두	기타 핵탄두	총재고
중국		350	350
미국	1,800	3,750	5,500
러시아	1,625	4,630,	6,225
프랑스	280	10	290
영국	120	105	225

표 6. 세계 10대 무기수출국, 2016-20년[13]

나라	무기수출 점유율
미국	37.0%
러시아	20.0%
프랑스	8.2%

독일	5.5%
중국	5.2%

"비패권 제국" 범주의 문제점은 카츠의 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연관돼 있다. 독점체들 간의 모순 및 강대국들 간의 모순을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 모순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난 역사 시기에서 가장 강력한 열강(즉 미국)만을 제국주의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른 모든 열강들은 제국주의가 아니거나, 미국과 동맹으로 있는 한에서만 제국주의이거나일 뿐이다. 따라서 러시아-중국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들은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동어 반복 논리다.

그러나 실제로는, 현대 자본주의는 그 발전에 있어 언제나 불균등했다. 강대국들이 결코 대등하지 않았온 이유다. 보다 강한 열강들과 보다 약한 열강들이 항상 존재했다. 열강들은 서로에 대해 경쟁관계에 있고, 다른 열강과 동맹관계를 만들어내고, 서로 전쟁 위협을 가하다 때로는 전쟁을 벌였다. 식민지 정복을 위해서든, 또는 서로를 상대로든. 경제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군사적 수준에서 약한 열강이 있었는가 하면(1945년 이후 일본과 독일 같은). 군사적 수준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경제적 수준에서 약한 열강이 있었다. (1917년 이전의 러시아, 일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 그리고 1945년 이전의 일본, 이탈리아 등).

게다가, 이들 강대국은 세계정치에서 아주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거대한 식민제국을 보유했다. 독일과 미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오스트리아-헝가리는(내부 식민지를 제쳐둔다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19년에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8년까지 이 시기 동안 독일은 어떠한 식민

지도 보유하지 않았다. 실제로는,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독일의 초점은 1차 세계대전 패전의 결과로 잃은 독일 영토를 되찾는 데 맞춰져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유사성에 대해 다른 문서들에서 보다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몇 가지 사실들로 이 주장을 입증하는데 국한하겠다.[14] (아래 표 7 및 8 참조)

표 7. 1913년 1인당 상대적 GDP 및 상대적 공업화 수준[15]

1인당 상대적 GDP 수준 상대적 공업화 수준

영국	100	100
프랑스	81	51
독일	77	74
오스트리아	62	29
이탈리아	52	23
스페인	48	19
러시아	29	17

표 8. 산업생산/무역/자본수출에서 강대국들의 점유율, 1913년[16]

나라	산업생산	세계무역	해외투자
영국	14%	15%	41%
미국	36%	11%	8%
독일	16%	13%	13%
프랑스	6%	8%	20%

만약 카츠의 방법론을 받아들인다면, 어느 강대국이 1914년 1차 세계 대전 전야에 과연 제국주의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지 궁금해진다. (마찬가지로 1939년 2차 대전 전야에도!) 카츠의 이론을 따른다면, 맑스주의자들은 당시 낙후되고 뒤떨어진 러시아나 일본, 오스트리아-헝가리를 제국주의로 규정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1938/39년 이전의 독일은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의 대표 사례이지 않았을까?!

카츠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배적인 제국주의 세력(즉, "미국과 그 종속적 동맹들")에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러·중이 미국을 내몰고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패권적" 세력이 아니며 따라서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없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말이 안 된다. 이 개념에 따르면, 한 열강이 패권적 제국주의 세력을 이미 결정적으로 패퇴시킨 경우에만 제국주의로 규정될 수 있다. 오직 가장 강한 강대국만이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열강이 이미 제국주의이지 않다면, 패권을 놓고 기존 패권국에 도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할 따름이다?!

카츠는 제국주의를 하나의 중심부(미국)가 지배하는 체제로 정의함으로써 제국주의 국가의 본질적 지표들을 놓친다. 물론,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정치적·경제적 지표들에서 일어난 변화를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거 식민지였던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는 반(半)식민지가 되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지배는 보통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며, 특정 경우에만 직접적으로, 즉 군사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연히 남아있는 것은 제국주의 열강의 본질적인 지표다. 즉 세계경제와 세계정치를 지배하며,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타 민족들을 억압하고 착취한다는 것, 제국주의의 이 본질적 측면은 변함없이 그대로다. 1916년 레닌은 제국주의에 관한 그의 주요 논문에서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제국주의 강대국(즉, 제 민족 전체를 억압하고 금융자본에의 종속 그물망으로 얽어 넣

는 열강들).”[17]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지난 연구문서에서 다음과 같은 제국주의 정의를 제출했다. 제국주의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점체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가민족을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는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로부터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점을 얻는다.

4. 공격적-군국주의적 대외정책으로서의 제국주의?

카츠의 제국주의관은 독점억압/초과착취가 아니라 공격적-군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이 체제의 본질적 지표로 간주하는 사태를 낳는다. (말 나온 김에 이것은 카우츠키와의 또 다른 유사점임을 밝혀둔다).

"이 결정적인 사실이 레닌의 레시피에서 추출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서는 빠져 있다. 이 고전적인 정식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요소가 존재하냐 안 하냐를 놓고 따지는 것은 오늘날 한 나라가 제국 서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무가치하다. 이러한 지위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국외 개입, 대외 지정학적-군사적 행동, 미국이 이끄는 전쟁기구와의 긴장도를 보다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 그러한 조사는 단지 팽창주의적 언명이 아니라 사실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제국주의는 담론이 아니다. 제국주의는 체계적인 대외 개입 정책이다. 이 기준을 사용하여 우리는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러시아의 경우, 우리는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 개념을 제안한다."

"혁신 맑스주의 이론은 21세기 제국주의에 대한 가장 일관된 성격규

정을 제공한다. 혁신 맑스주의 이론은, 미국이 이끌고 나토를 통해 응집력을 갖춘 강압적 군사기구가 주변부(periphery)에 대한 지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러시아-중국과 같은 라이벌 비패권 세력들을 괴롭힐 수 있는 그 발군의 힘을 잘 드러내준다. 이들 비패권 세력은 오직 맹아적이거나 제한적 형태의 제국 양식만을 뿜 뿐이며, 일차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수행한다.”[18]

이러한 정의에는 여러 결함이 있다. 첫째, 그러한 공격적-군국주의적 대외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국가들은 제국주의로 간주될 수 없냐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독일과 일본을 제국주의 열강 대열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스위스, 호주, 한국, 네덜란드 같이 강대국들 못지않게 한반구 나라에서 제국주의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반식민지 노획물 분배에 참가하는 중위권 글로벌 열강들도 여기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난 10년 정말 러시아보다 더 많은 국외 군사 개입을 했던가!

러시아가 "일차적으로 방어적인 행동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사실인가? 시리아나 리비아 또는 말리에서 러시아 군대가 "방어"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인가? 또는 2022년 1월에 카자흐스탄에서는?

5. 러시아는 나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반주변부 나라다?

카츠는 '제국주의'를 미국과 그 동맹들로 제한, 축소시키므로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부정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 그는 러시아를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 제시한다.

“러시아는 글로벌 분업의 중간 고리에 위치한 반주변부 나라다.... 러시아는 세계자본주의를 지휘하는 강대국 클럽의 일원이 아니다. 생활수

준이나 평균 소비량 또는 중간계급 규모 등 모든 지표에서 선진국과 구조적인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아프리카·동유럽 경제와는 거리가 있는 점도 똑같이 중요하다. 여전히 반주변부에 있는 러시아는 독일·프랑스와 거리가 있는 만큼이나 알바니아·캄보디아와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있다.”

“러시아는 펜타곤이 자신의 요구를 무시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는 그 동일한 후안무치함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미국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이 아닌,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에서와 같이 막 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 라이벌과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그 국제적 영향력을 재건한 자본주의 나라이지만,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는 제국적 침략자의 일반적 면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더욱이 제국 체제가 이제 대적하는 세력은, 단지 태동 중의 제국적 경향을 보여줄 뿐인 다양한 비패권적 동맹들이다. 지배적인 중심부는 공격하고, 태동 중의 구성체들은 자신을 방어한다. 지난 세기 때와 달리, 동등하게 서로 공격적인 상대들끼리의 싸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19]

정말로? 사실을 말하자면, 강대국들은 언제나 서로를 “괴롭힌다”. 의심할 여지없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지위를 그 전통적 ‘세력권’에서 밀어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미국과 서유럽을 전통적 ‘세력권’에서 “괴롭히고” 있다. 시리아와 리비아, 그리고 그 밖의 중동 나라들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보라. 말리에서 프랑스군을 러시아군이 대체하는 것을 보라.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와의 좋은 관계를 보라. “괴롭힘”이라는 범주는 강대국 패권 경쟁/제국주의 세력권 쟁탈전에 대한 맑스주의적 논의에서 아무 의미도 갖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카츠는 초역사적으로 푸틴 러시아와 소련 간의 연속성을 상징하고, 나아가 동일한 사회구성체라는 전제를 깔고 논의를 전개한다. 이런 전제 하에 카츠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인 대외정책 또한 이런 동일시에서 비롯하는 것처럼 제시한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무자비함에는 한편으로 관성의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소련의 경험에 대한 역사적 기억의 측면도 있다. 20세기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을 배양한 나라를 와해시키려는 반동적 목표는 소련이 사라진 뒤에도 살아남았다.... 오늘날 러시아에 대한 도발·공격에는 소련에 대한 복수의 기미가 포함되어 있다."

(계획경제 소유관계에 기반한)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인 소련과 푸틴의 제국주의 러시아 사이에 단절과 격차가 존재한다는 것은 맑스주의자들 사이에 많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나토에 대하여 전자를 — 후자는 아니고 — 방어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불행하게도, 카츠의 이러한 언명에는 반미주의와 대러시아 (또는 범슬라브) 배외주의를 섞어놓은 반동적 경향이 배어나온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러시아 간의 충돌에서 어느 측도 지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만약 미국이 — 그러한 충돌의 결과로 — 국가로서 "와해" 된다면, 확실히 우리는 이것을 "반동적" 사건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많은 민족 소수자들이 억압받고 있는 반동적 제국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렇다. 사실을 말하자면, 카츠가 언명한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대러시아 배외주의자들과 다수의 스탈린주의자들 및 볼리바르주의자들뿐이다.

우리의 비판적 해석은 카츠의 이 논문에 나오는 또 다른 망언 수준의

언명으로 다시 뒷받침된다. "러시아는 나토가 선호하는 타겟이다. 펜타곤은 자신의 대적(大敵)의 모든 방어 장치를 와해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펜타곤은 모스크바의 해체 방법을 찾다가 열친 때 그것을 이루는데 거의 근접했다... 그 첫 단계가 유고슬라비아의 파괴이고 그에 따라 옛 세르비아 지방을 유령 코소보공화국으로 전화시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은 이제 러시아에 인접한 미국 다국적 기업의 에너지 회랑을 지키는 경비초소가 되어 있다."

이 언명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인 망언이다. "모스크바의 해체"라는 정식화는 저자가 무도하게도 "러시아연방" 국가를 이 국가의 중심 민족을 이루는 러시아계와 동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정식화다. "유고슬라비아의 파괴"라는 정식화는 저자가 비(非)세르비아계 인민의 민족자결 열망에 반대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정식화다. 그리고 더 무도한 것은, 그가 "유령(!) 코소보공화국"을 "옛 세르비아 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전쟁 중에 세르비아와 코소보를 여러 차례 가서 본 정치활동가로서 나는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파렴치한 능욕이며 반동적 대러시아·대세르비아 배외주의의 비속한 표현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코소보는 "옛 세르비아의 지방"이 아니다. 주민 다수를 이루는 토착 알바니아인의 의지에 반하여 1912년 세르비아 왕국에 의해 정복된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 내내 코소보의 다수자 알바니아계 주민은 세르비아의 일부가 되기를 원한 적이 없다! 코소보는 대러시아·대세르비아 배외주의의 신화적 판타지 세계에서만 "옛 세르비아 지방"이다![20]

6. 위험한 정치적 결론

카츠가 푸틴 정권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비판론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이 정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다. 그러나 오늘 사회주의자들의 핵심 의무인 우크라이나 인민의 민족방위 전쟁 지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야 한다.[21]

설상가상으로 그는 명시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푸틴의 침공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고 나토라고 주장함으로써 그러한 러시아 지지 입장에 이론적 정당화를 공급해준다.

"이러한 접근태도는 우크라이나 분쟁이 경제적 기원이 없었다는 것을 잊는다. 우크라이나 분쟁은, 키이우의 나토 가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서는 미사일로 러시아를 포위할 권리를 스스로에게 부여한 미국이 도발한 것이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괴롭힘을 무력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워싱턴은 상대방의 정당한 안보 주장을 무시했다."

카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또 다른 기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미국이 침략자 측을 지휘하고 러시아는 미사일 포위공격에 의해 타격을 입는 측이다." [22]

이것은 "나토 침략의 피해자", 즉 러시아 제국주의를 공공연하게 편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발언의 터무니없는 논리를 지적할 필요는 거의 없다. 확실히, 미국과 나토는 반동적 제국주의 세력이다. 그러나 1962년 소련이 쿠비에 미사일을 배치했을 때 다름 아닌 미국이 소련을 겨냥하여 내뿜던 것이 바로 그러한 주장이었다. 그리고 러시아가 향후 몇 년 안에 베네수엘라나 니카라과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면 우리는 미국을 "피해자"라고 부를 것인가? 세계 지도를 잠깐 들여다보면 나토가 러시아를 "포위"한 것이 아니라 나토가 러시아의 서방 쪽 국경에 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러시아 제국주의에 일정 동조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카츠

의 또 다른 언명이 있는데, 스탈린주의 KPRF (러시아연방공산당)의 선거 성공에 대한 그의 긍정적인 평가 발언이다. “지난 선거에서 좌파의 전도유망한 선거 결과는 터널 끝에 빛이 있다는 희망을 가져다준다. 러시아연방공산당(KPRF)은 1999년 이래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연방의회 하원에서 제2당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이 당이 정부 지지와 비판을 오락가락해왔지만, 사회적 투쟁에 결합해 있는 급진적인 흐름들을 향해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급진 유파들이 활동가들을 선거 후보자 명부에 포함시켜 놓으면서 선거운동 분위기를 바꿔냈다.”

주가노프의 KPRF가 "오락가락" 한 것이 아니라 대러시아 배외주의와 그 반동적 전쟁의 선봉 물이꾼으로 나선 사실을 카츠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카츠는 KPRF가 지난 1월 카자흐스탄의 민중봉기를 박살내기 위해 3,000명 러시아 군대가 카자흐스탄에 개입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을 듣지 못했는가? 그리고 이 당이 푸틴의 침공을 그 첫 순간부터 열정적으로 지지했다는 것을 카츠는 정말 모르는가? 나아가, 전쟁의 구실로 내세운 돈바스의 루한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결정적 법안을 의회에 앞장서서 제출한 게 누구인가![23] 실제로, 대러시아 배외주의를 지지한다고 하여 KPRF를 규탄하는 일련의 스탈린주의 당들 (그리스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노동당 국제 네트워크)까지 있지 않은가! 그러나 카츠는 이 사회제국주의 당을 "터널 끝의 빛"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국제주의자-반제국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짓이다!

7. 맺으며

이제 카츠의 제국주의 이론에 대한 우리의 비판적 토론을 몇몇 테제의 형태로 요약 정리해보자.

1) 카츠는 레닌의 제국주의 이론을 배격하고 그것을 "세계체제론"의 영향을 받은 제국주의관으로 대체한다. 그는 세계를 중심부 (미국 및 그 동맹국들)와 그 중심부가 지배하는 나머지 세계 (반 주변부와 주변부)로 나눈다.

2) 그러한 제국주의관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한 단계라는 것을 무시한다. 자본주의는 생산수단 사적소유와 자본가 국가들에 기반하며, 자본주의의 제국주의적 단계는 한줌의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제국주의는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중심부(core)가 아니라 독점체들 간, 강대국들 간 모순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시스템이다.

3) 카츠의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 개념은 이론적으로 결함이 있고 더군다나 그것을 러시아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을 호도한다. 그가 중국을 제국주의로 규정하길 거부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 자본주의가 존재하지만 아직 경제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그의 진술, 이 모든 것은 현실과 아무 관련을 갖지 못한다. 20세기 초 이래 제국주의 시대 내내 보다 강한 강대국과 보다 약한 강대국이, 보다 앞서가는 강대국과 보다 뒤떨어진 강대국이 언제나 있어 왔다.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두 제국주의다. 가장 강한 강대국만이 아니라! 더욱이 중국이 이미 몇몇 측면에서 미국을 뛰어넘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4) 제국주의를 일차적으로 공격적-군국주의적 대외 '정책'으로 규정하는 것은 오류다. 다음과 같은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제국주의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독점체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가-민족을 지배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제국주의 국가는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로부터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점을 얻는다.

5) 마찬가지로, 우리는 러시아를 나토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반주변 부 나라로 성격규정 하는 카츠의 논리를 배격한다. 사실상 그는 러시아를 제국주의의 희생자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일 뿐인 피해자로 제시한다. 실제로는, 언제나 강대국들은 서로를 “괴롭힌다”. 사회주의자들은 어느 측에 대해서도 동정심이 없다.

6) 카츠의 제국주의 이론과, 반주변부이자 “태동 중인 비패권 제국”으로서의 러시아라는 그의 개념은 위험한 정치적 결론을 내포하고 있다. 그는 푸틴 정권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지만, 우크라이나 방어를 지지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는 푸틴의 침공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고 나토라고 주장함으로써 모스크바를 지지하는 것에 이론적 정당화를 공급해준다.

우리는 맑스주의자들이 이론을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행동의 지침으로 본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와 같이 행동의 지침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이론이 현실 및 현실의 모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츠의 “단극 세계질서” 이론은 제국주의 상호간 패권경쟁/ 제국주의 간 세력권 쟁탈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실패한다. 그 결과, 그의 이론은 러시아-중국제국주의를 선택, 미화하는 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현실 호도 이론이다. 정치의 언어로 번역하면, 카츠의 “단극 세계질서” 이론은 러-중 제국주의 지배 계급의 반동 정책에 대한 사회제국주의적 지지를 가려주는 엄폐물로 복무한다.

[1] Claudio Katz: Is Russia an imperialist power? Part I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 Part II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2/>); Part III (<https://katz.lahaine.org/>)

is-russia-an-imperialist-power-part-3); Part IV (<https://katz.lahaine.org/is-russia-an-imperialist-power-benevolent/>). 이 논문은 여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카츠의 웹사이트에서 스페인어 원문도 볼 수 있다. (<https://katz.lahaine.org>).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인용문은 모두 이 논문에서의 인용이다.

[2]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이론에 대해 필자가 해설하고 현실 적용한 것으로 다음 두 책자가 있다.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RCIT Books, Vienna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nti-imperialism-in-the-age-of-great-power-rivalry/>);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다음도 보라. “Great Power Rivalry in the Early Twenty-first Century,” *New Politics*, Vol. XVIII, No. 3, Whole Number 67, Summer 2021, (https://newpol.org/issue_post/great-power-rivalry-in-the-early-twenty-first-century/).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한 필자의 문헌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michael-proebsting.net/publications/bibliography/>

[3] 다음을 보라. 레닌,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295-6쪽

[4] Claudio Katz, “The imperial system in crisis,”(<https://katz.lahaine.org/the-imperial-system-in-crisi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6 June 2022. 이 논문은 여러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다.

[5] 다음을 보라. “Events Like These Only Happen Once Every Century,” *Interview with Sergey Glazyev*, March 27, 2022, (<https://thesaker.is/events-like-these-only-happen-once-every-century-sergey-glazyev/>); Pepe Escobar, “Russia’s Sergey Glazyev introduces the new global financial system,” April 14 2022, (<https://mronline.org/2022/04/16/russias-sergey-glazyev-introduces-the-new-global-financial-system/>); Katharina Bluhm, “Russia’s conservative counter-movement: genesis, actors, and core concepts,” in: Katharina Bluhm and Mihai Varga (Editors), *New Conservatives in Russia and East Central Europe*, Routledge, New York 2019, pp. 25-53

[6] Felix Richter: These are the top 10 manufacturing countries in the world, World Economic Forum, 25.2.2020, <https://www.weforum.org/agenda/2020/02/countries-manufacturing-trade-exports-economics/>; output measured on a value-added basis in current U.S. dollars.

[7] Alessandro Nicita and Carlos Razo, “China: The rise of a trade titan,” UNCTAD, 27 April 2021, (<https://unctad.org/news/china-rise-trade-titan>)

[8] Fortune Global 500, August 2020, <https://fortune.com/global500/>. (여기서의 수치는 우리가 계산한 것이다).

[9] Hurun Global Rich List 2021, 2.3.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10] 다음을 보라. Claudio Katz, Deciphering China, Part II. (<https://katz.la-haine.org/deciphering-china-part-ii-capitalism-or/>).

[11] 중국 제국주의에 대한 필자의 문헌을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www.michael-proebsting.net/publications/bibliography/>

[13]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2021.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Summary, p. 15.

[14] 다음을 보라. 위에서 언급한 책 Anti-Imperialism in the Age of Great Power Rivalry, pp. 94-101. 필자의 다음 글도 보라.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Aug. 2014.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15] Francois Crouzet, A History of the European Economy, 1000-2000, University Press of Virginia, 2001, p. 148.

[16] 산업생산과 세계무역에 관한 수치들은 다음에서 인용했다. Jürgen Kuczynski: Studien zur Geschichte der Weltwirtschaft, Berlin 1952, p. 35

and p. 43. 해외투자에 관한 수치들은 다음에서 인용했다. Paul Bairoch and Richard Kozul-Wright: Globalization Myths: Some Historical Reflections on Integration, Industrialization and Growth in the World Economy, UNCTAD Discussion Papers No. 113, 1996, p. 12.

[17] 레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154쪽.

[18] Claudio Katz, The imperial system in crisis.

[19] 같은 글

[2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talinists Support Serbian Expansionism against Kosovo Albanians,” 13 Dec.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ts-support-serbian-expansionism-against-kosovo-albanians/>).

[2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의미 - 현 사태는 오는 시기 혁명 전략의 핵심 시험대다>, 2022년 5월 25일, https://blog.wrpukorea.org/2022/06/blog-post_80.html/.

[22] Claudio Katz, Duas confrontações na Ucrânia, 04/03/2022, <https://katz.la-haine.org/duas-confrontacoes-na-ucrania/>. (영역은 필자).

[23] 다음 팸플릿들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같은 저자,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다음도 보라. <푸틴 · 주가노프 식의 “사회주의” - 대통령에게 바치는 애국 스탈린주의 당 지도자의 어용 어릿광대 퍼포먼스>, 2022년 7월 13일. https://blog.wrpukorea.org/2022/07/blog-post_17.html/.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RCIT), 2023년 1월 www.thecommunists.net

서론

1.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반식민지 개념
2. 막장에 이른 관료제 스탈린주의
3. 자본주의 복고의 파괴적인 사회적·경제적 결과
4. 1991년 이래 우크라이나 자본주의의 반식민지적 기형화
 - 1) 올리가르히: 매판 부르주아지의 형성
 - 2)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위한 반식민지 원료 공급자
 - 3) 외채의 덩어리 깊이 빠진 경제
 - 4) 외국인투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약탈
 - 5) 이주: 우크라이나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다
5. 우크라이나: 동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찢겨진 종속국
6. 2022년 2월 이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식민지화·몰이와 나토의 영향력 확대 시도
7. 전진하는 길: 민족해방에서 사회혁명으로

서론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시작과 함께 이 동유럽 나라는 세계정치의 중심으로 급부상했다. 이로써 개개의 모든 정치 조류는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취해야 할 의무가 부과됐다. 나아가 이 또는 저 제국주의 강대국에 영합 내지 투항하는 조류와, 피억압 인민을 지지하는 원칙 있는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취하는 조류 사이에 핵심 경계선이 그어졌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과 RCIT 러시아 지부 (사회주의동맹)는 그 시작 시점부터 푸틴의 침공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민족방위 전쟁을 편 들었다. 우리는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지 않으면서, 우크라이나 인민의 해방투쟁을 지지해왔고 이에 대한 물질적 지원 (군사 원조를 포함하여)을 촉구해왔다. 피억압 인민의 편을 드는 이러한 접근태도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세 차례의 호송대를 비롯한 그 밖의 연대 활동들을 (공동) 조직했다.[1]

동시에, 우리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정의의 전쟁이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가속화하는 패권경쟁과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강조해왔다. 이 러시아와 나토 간 충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즉 양 진영 모두에 대한, 그리고 모든 형태의 대국배외주의·군국주의에 대한 비타협적 반대 입장을 취해야 한다. RCIT가 다음과 같은 국제주의·반제국주의 입장을 줄곧 제창해온 이유다. “푸틴의 침략에 대하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라! 러시아 제국주의와 나토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2]

우리의 입장에서 핵심 논거는 이 분쟁에 관련된 제 세력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평가 분석에 있다. 대다수의 자칭 사회주의 조직들과는 달

리, 우리는 20여 년 전부터 러시아가 제국주의 국가임을 제기해왔다. 러시아 경제는 내국 독점체들이 지배하며, 이 러시아의 다국적 기업들은 자본을 수출하여 반식민지 나라들 (일차적으로 중앙아시아와 동유럽 나라들, 그리고 그밖에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나라들)로부터 초과이윤을 뽑아내고 있다. 또 러시아의 경제는 값싼 노동력으로 초과 착취 당하는 대규모 이주자 층으로부터도 초과이윤을 짜낸다. 동시에, 러시아는 정치군사 강대국이자 세계 최대 핵 강국으로서 지난 15년 동안 여러 나라에 (영웅적인 체첸 인민을 상대로 한 두 차례 유혈 전쟁 외에도 여러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해왔다.[4]

이 팜플렛의 초점이 우크라이나의 계급적 성격이므로 여기서 러시아 제국주의 문제를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더욱이 이미 몇몇 팜플렛을 통해 그 문제를 다룬 바 있으므로 독자들은 그것들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5] 같은 이유로, 서방 열강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을 여기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독자들에게는 우리의 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를 비롯해 그 밖의 문서들을 참조할 것을 권한다.[6]

언제나 RCIT는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서유럽, 일본)과는 계급적 성격에서 다른 사회구성체임을, 즉 자본주의 반(半)식민지 나라임을 강조해왔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타 민족을 착취·억압하는 나라가 아니라 반대로 제국주의의 희생자, 제국주의에 의해 착취·억압 받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이래로 형식적으로는 독립 국가지만, 본질에서는 강대국들에 의해 억압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는 외국 독점체들에 의한 초과착취를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배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평가분석이 우크라이나의 종별적인 계급적 성격이 이

해하는 데 중요하며, 따라서 현 전쟁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팜플렛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종속적인 — 공업화가 상당히 진척되었음에도 — 자본주의 반식민지로 보는 우리의 평가 분석을 보다 상세하게 개진할 것이다.

끝으로, 우크라이나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이하에서 독자들이 보게 되겠지만) 1991년 이래 이 나라의 사회적·경제적 발전 동향에 대한 조사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반식민지적 기형화와 종속이 시작된 것은 형식적으로 독립 국가가 된 직후부터임을 밝히고 있다. 즉, 2014년 사태나 현 전쟁의 결과물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2014년 사태나 현 전쟁 등, 이 최근의 사태발전들이 의심할 바 없이 우크라이나 인민의 종속·피억압 처지를 가속화시켰지만 그것들이 근본 원인은 아니다.

진정한 독립·해방을 얻기 위해, 우크라이나 노동자·피억압자는 러시아의 침략을 패퇴시키고 나토 제국주의에 의한 종속을 털어내고 국내의 적 — 과두재벌 올리가르히와 그들의 부패한 정치권 시종들 — 을 몰수·수탈하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로 가는 길은 자본주의 착취와 제국주의 지배를 철폐하고 사회주의 미래의 문을 여는 우크라이나 노동자들의 정치·사회 혁명의 성공에 달려 있다!

1.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반식민지 개념

우리는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그 이론의 필수 구성부분으로서의 반식민지 개념에 대한 간략한 소개로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책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을 비롯한 여러 출판물에서 이 문제들에 대해 광범위하게 설명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

겠다.[7]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의 가장 중요한 공헌자인 레닌은 제국주의의 본질적 특징을 경제를 지배하는 독점의 형성이라고 기술했다. 이와 관련하여, 레닌은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융합으로서의 금융자본, 상품 수출과 함께 자본수출의 증가, 세력권 (특히 식민지) 쟁탈전을 주요 특징으로 꼽았다.[8]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은 분리 고립시켜서는 이해할 수 없다. 실제로 모든 국가들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글로벌 체제의 일부라는 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 한 나라의 계급적 성격을 타 국가, 타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만 하는 이유다. 계급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해당 계급의 성격은 타 계급과의 관계를 평가 분석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국주의의 핵심 특징은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의 형성으로 전 세계가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세력권들로 분할되고 이 몇 안 되는 강대국들 아래 대부분의 나라들이 예속된다는 점에 있다. 이로부터 레닌 제국주의 분석의 핵심 포인트가 나온다. 한편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가 덜 발달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대다수 인민이 있다. 이 양자 간의 연관관계를 억압 관계로 성격규정하는 것, 그것이 맑스주의적 제국주의 분석의 요체다. 레닌은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의 구분”을 “제국주의의 본질”에 해당한다며 다음과 같이 혁명적 사회주의 민족 강령에 대해 설명한다.

“사회민주주의 [레닌 당시에 혁명적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표현] 강령에서의 초점은, 모든 민족을 억압 민족과 피억압 민족으로 구분하는데 두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에 바로 제국주의의 본질이 있는데, 사회배외주의자들과 카우츠키는 이것을 기만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이 구

분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시각에서나, 자본주의 하에서 독립 민족들 간의 평화적 경쟁이라는 속물적 유토피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의미 없는 것이지만,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혁명적 투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극히 유의미한 것이다. 바로 이 구분으로부터 ‘민족자결권’에 대한 우리의 규정이 도출되어야 하는데, 그 규정은 철저하게 민주주의적이고 혁명적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당면 투쟁의 일반 임무와 부합하는 규정이어야 한다. 바로 이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권리에 대한 진실된 인정을 끌어내기 위한 투쟁 속에서, 억압 민족의 사회민주주의자는 피억압 민족의 분리의 자유를 요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들의 동등한 권리와 노동자계급의 국제적 연대를 인정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공문구에, 위선에 불과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9]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제국주의 국가들과 반식민지 국가들 간 관계의 경제적 기초는 레닌이 초과착취라고 불렀던 것, 즉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평균이윤율을 상회하는 추가 이윤을 이들 피억압국에서 뽑아내는 것에 있다. 이러한 초과이윤은 부유한 나라에서 독점자본이 이미 노동자들로부터 짜낸 이윤에 더해져 전체 이윤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 이 초과이윤은 제국주의 나라 노동자계급의 상층, 귀족층 및 특히 노동관료를 매수하는 핵심 재원이기도 하다. 독점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는 제국주의의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위에서 언급한 책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우리는 독점자본이 (반)식민지 나라들로부터 추가 이윤을 획득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의 초과착취에 대해 설명했다.

- i) 생산적 투자로서의 자본수출
- ii)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수출 (차관대출, 외환보유고, 투기 등)
- iii) 부등가 교환을 통한 가치 이전

iv) 이주를 통한 가치 이전 (노동자계급 내 피억압 소민족 노동자층인 이주자에 대한 초과착취에 기초하여)

언제나 국가들 간의 관계는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특징들의 총체 — “다양한 관계들의 총체” (레닌) — 속에서 보아야 한다.[10]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모든 형태의 억압과 초과착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특징들은 다양한 조합으로 존재할 수 있다.

우리 팸플렛의 주제가 자본주의 반식민지로서의 우크라이나 분석이므로 먼저 그러한 유형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제시하겠다. 반식민지 나라는 형식상 (식민지와는 달리) 독립 국가다. 그러나 본질적인 특징 — 즉 제국주의에 의한 지배와 초과착취 — 을 식민지와 공유한다.

이 점은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남반구 나라들의 형식적으로 독립적인 지위가 자아내는 착시 현상으로 혼동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그들은 이 나라들이 식민지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형식 외관 뒤에 있는 관계의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자본론>> 3권에서 맑스가 말한 내용으로 표현하자면, “눈에 보이는 단지 외적인 운동을 진정한 내재적 운동으로 풀어내는 것이 과학의 일이다.”[11]

결론적으로, 우리는 맑스주의 고전의 인식에 발맞춰 다음과 같이 반식민지에 대한 정의를 총괄 정리해왔다. 반식민지 국가란 무엇보다도 그들의 경제와 국가기구가 세계질서 속에서 타 국가·민족에 의해 지배당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국가다. 그 결과, 반식민지 국가는 초과착취와 억압에 기초한 그러한 관계를 통해 제국주의 독점체 및 국가에 초과이윤을 비롯한 그 밖의 경제적·정치적·군사적 이점

을 제공한다.

나아가 나라들을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라는 두 범주로 나누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각각의 범주 내에 서로 다른 많은 색조들이 존재한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에도, 반식민지 나라들 간에도 그렇다. 반식민지 나라들의 경우에 우리는 "한편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집트, 터키, 이란, 태국과 같은 앞서가는 또는 공업화된 반식민지와 다른 한편으로 볼리비아, 페루,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나라들 (남아공 제외),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와 같은 보다 가난한 또는 반(半)공업화된 반식민지"를 구분할 수 있다.[13]

끝으로, 우리의 접근법이 "도식적"이라는 반론에 대해 답하겠다. 우리는 그러한 비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명확한 범주들 없이는 세계의 주요 사태발전들 — 및 이 발전들 사이의 관계 — 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은 유물론적 변증법의 근본적인 진리다. 레닌은 헤겔을 인용하며 "이해한다는 것은 개념의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절대적으로 옳았다.[14] 위대한 독일 철학자의 훨씬 더 단정적 정식화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든 방법(method)에 완전히 복속될 때만 그것의 진실이 파악되고 인식된다."[15]

제국주의 일반, 특수하게는 반식민지에 대한 우리의 이론적 접근방식을 정리해 놓았으니 이제 스탈린주의 지배에 대해 몇 가지 언급하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평가분석으로 이동할 것이다.

2. 막장에 이른 관료제 스탈린주의

애초 대부분의 남반구 나라들은 형식상 독립한 반식민지가 되기 전에 유럽 제국들의 식민지였다. 그리하여 이들 나라의 경제는 그 시차

부터 지배 열강의 자본주의적 소유관계에 의해 그들이 주조되었다. (다른 많은 동유럽 및 아시아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는 그와는 상황이 다르다. 여기서는 자본주의가 1989-91년 스탈린주의 붕괴의 결과로 도입되었다.

당시까지 소련은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였다. 즉 탈자본주의 계획 경제에, 정치적으로 스탈린주의 관료가 지배하는 나라였다. 이러한 소유관계에 기초하여 소련은 수십 년에 걸쳐 공업화와 복지, 과학, 군사, 우주 탐사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었다. 선도적 열강으로서 소련의 글로벌 지위는 이러한 역사적인 대도약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경제적 잉여가 한줌의 자본가들의 사적 이익으로 전유되지 않고 어느 정도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자본주의 소유관계의 이점은 특권 관료층의 반동 독재에 의해 점점 더 훼손되었고, 마침내 파괴되었다. 이 관료층은 1923/24년 레닌의 외병 및 사망 이후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 국가가 고립되고 1927년에는 레온 트로츠키가 이끄는 좌익반대파가 패배하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권력에 오른 사회계층이었다. 스탈린이 이끄는 이 관료 집단은 10월 혁명의 정치적 성과물을 폐지하고 노동자계급과 소민족들을 억압했다. 트로츠키주의자 수만 명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굴라그(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죽었다.

스탈린주의 관료 정책은 또한 일련의 경제 파탄 (예를 들어 신 NEP와 이후의 강제 집단화)을 야기했고 1930년대 초의 대 기근과 같은 사회적 재앙을 불러일으켰다. 그 본성상 관료들은 늘어가는 특권의 수를 쌓아올리는 데 일차적으로 관심이 있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트로츠키와 그의 지지자들이 연속혁명 이론에 입각하여 제창했던 바와 같은, 혁명 과정을 다른 나라로 확대하는 방침을 폐기하고 현상 유지를 원

했다. (이를 위해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라는 보수적 이론을 발명해냈다.)[17]

집권 관료층은 정치적으로 지배 통제했지만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급이 아니라 특권층(카스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배 통제는 관료들에게 수많은 특권을 전유(專有)할 수 있는 기생적 생존을 허용해주었다. 따라서 관료들은 점점 더 프롤레타리아 소유관계를 허물어갔고, 나아가 사회의 생산 토대를 그 밑동에서부터 무너뜨려갔다.[18]

세계정치의 장에서 스탈린주의 독재는 보수적 요소로 작용했다. 모스크바가 (그리고 1972년 닉슨 방중 전까지 베이징도) 때때로 제국주의와 충돌했고 미국에 저항하는 피억압 인민들을 원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세계 계급투쟁에서 진압자 역할을 더 많이 했다. 현상 유지를 원하는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지배 관료층은 냉전기에도 항상 제국주의 열강과의 협정을 모색했고, 서방 나라의 스탈린주의 당들에게 지배계급 분파와 계급협조 정책을 취하도록 종용, 장려했다.

국내에서는 수십 년간 스탈린주의 지배가 일체의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사회에 공동묘지의 침묵을 강요했다. 이러한 노동자 민주주의의 결여는 노동자들을 생산수단으로부터 소외시켰고, 주도성과 참여의 결여를 유발했으며, 관료주의적 부실관리와 경제 정체를 초래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주의에 대한 평가분석에서 스탈린주의 독재하의 소련을 “과도기 사회”로 규정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의 진전을 가로막는 반혁명 관료층의 지배로 인해 사회주의로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가는 그 중간의 과도기 체제에 갇혀버렸다고 설명했다. 트로츠키가 그의

저술에서 예측했듯이, 이러한 국가들은 과도기적 현상이며, 그외 다른 것일 수가 없었다. 관료층을 타도하는 정치혁명을 통해 전진하거나, 아니면 사회반혁명과 자본주의 복고를 통해 후진하거나 둘 중 하나로서,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었다.[19]

그러나 스탈린주의 관료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는 무능했지만,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데는 꽤나 유능했다. 1989-91년 관료층의 지배적 분파가 국유화 경제에 대한 방어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소유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을 때, 노동자계급이 정치적 경험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 혁명적 지도력을 결여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이유다.[20] 위기를 승리의 정치혁명으로 전회시킬 결정적인 전제조건이 바로 이러한 정치적 경험과 혁명적 지도력이었음에도 말이다. 그러한 정치 혁명은 인민을 해방시키고 국유화 경제를 되살리고 세계 혁명 과정에 재차 기운을 불어넣는 길을 열 수 있었다. 그러나 필요한 전제조건이 결여되어, 퇴보·타락한 노동자국가는 내파했다. 그리고 정치 혁명의 과정은 패배로 끝나고 사회 반혁명으로 전회됐다.

3. 자본주의 복고의 파괴적인 사회적·경제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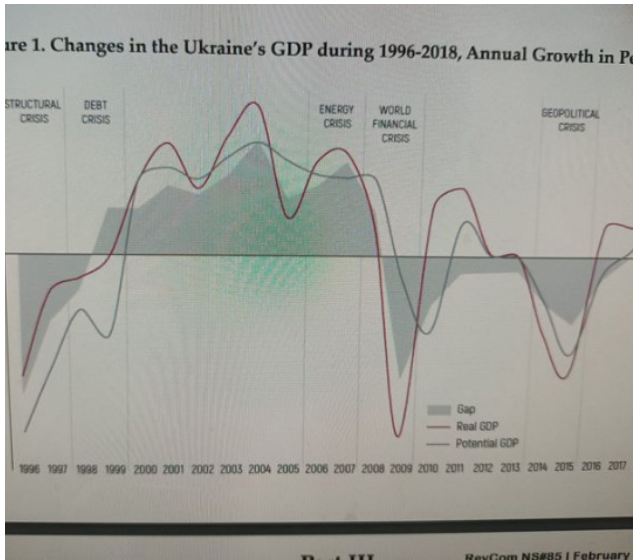
1991년 프롤레타리아 소유관계의 붕괴와 자본주의 복고는 소련, 동유럽 나라들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가 파괴되고 인민대중 생활조건이 끔찍하게 악화되는 과정을 열었다.

소련·동구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에서도 같은 과정이 시작됐다. 아래 표 1에서 우리는 첫 5년 동안에만 국내총생산(GDP)과 산업생산이 50% 가까이 붕락한 것을 볼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재앙이다. 그 이래로 우크라이나 경제는 고도로 취약한 기복 과정을 반복했다. (그림 1 참조)

표 1. 1991-1995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 및 산업생산의 붕락 [21]

구분	1991	1992	1993	1994	1995	누계
GDP	-11.9	-17.0	+4.2	-2.5	-11.8	-49.7
산업 생산	+4.8	-6.4	-8	-27.8	-11.5	-48.3

그림 1. 1996-2018년 우크라이나 GDP의 변화, 연 성장률 [22]



우크라이나 경제의 급락 사이클은 1999년까지 지속되었다. 어느 시점에서 중단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경제는 1991년 수준을 오늘까지 회복한 적이 없다. 표 2에서 보듯이 1999년 GDP는 1991년 수준의 44.7%에 불과했다. 또 다른 경제학자는 2000년까지 우크라이나의 실질 GDP가 1990년 수준의 43%로 감소했음을 나타내는 데이터

를 제공한다.[23] 이 수치는 2006년 73%, 2013년 76.2%로 다소 회복되었다가 2018년 69.6%로 다시 붕괴됐다.[24] 즉, 우크라이나 경제는 자본주의 복고 시작 이래로 30년 동안 생산량이 1991년 이전 수준의 3/4을 넘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극적인 방식으로 축소된 것이다!

표 2.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우크라이나 경제의 만성적 위기: 불변가격 국내총생산[25]

연도	1999	2006	2013	2018
1991년=100%	44.7%	73	76.2	69.6

이에 동반하여 투자도 대폭 감소했다. 특히 중공업과 원자재 추출 부문에서 크게 감소했다. 그 결과, 자본스톡 비중이 커진 것도 쓸모없게 되었다. 한 우크라이나 경제학자는 1991-99년 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이 -49.1%, 자본 투자가 -77.9% 감소한 것으로 계산했다.[26]

자본주의 복고 이후 우크라이나의 구조적 위기로 인해 대규모 탈공업화 과정이 초래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는 광업과 철강 생산에서 발달된 기반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자동차, 항공기, 항공우주, 조선 등의 부문에서도 고도 산업의 본거지였다. 그러나 1991년 이후 이들 산업의 상당 부분이 폐업하거나 대폭 축소됐다. 1991년과 1998년 사이에 산업 가동률은 계속 감소하여 50-51%로까지 떨어졌다.[27]

그 한 결과로,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을 비롯한 전체 공업 부문의 비중이 크게 감소했다.[28] 우크라이나 GDP에서 공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52.6% (제조업: 44.6%)였지만, 이 비중은 2000년 30.8% (제조업: 16.3%), 2013년 22.7% (제조업: 11.3%), 2019년 22.6% (제조업: 10.8%)로 감소했다. 즉, 나라의 총생산량에서 공업 및 제조업 비중이 불과 20년 만에 각각 5분의 3과 4분의 3으로 감소한 것이다! (

표 3 참조)

표 3. 1992-2019년 우크라이나 GDP에서 공업 및 제조업 비중 [29]

구분	1992	2000	2013	2019
공업 비중	52.6%	30.8%	22.7%	22.6%
제조업 비중	44.6%	16.3%	11.3%	10.8%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퇴보 역진 과정은 주민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1991년 이전의 계획경제 조건 하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률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1999년 4월,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실질 실업률을 30%로 추정했다.[30] 공식적으로, 2009년에 실업률은 9.6%였는데 그 뒤에 다시 증가했다.[31] 2000년 주민의 26.4%가 국가 빈곤선 이하로 살았는데, 이 비율은 2013년 (24.5%)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32]

자본주의 소유관계의 확립에 동반하여, 소득 불평등이 우크라이나 사회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 2010년 우크라이나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분위가 전체 소득의 21%를 차지한 데 반해 가장 가난한 1분위 층은 단 4.4%를 접했다.

이 파괴적인 과정의 결과로, 우울증, 건강 문제,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자살, 전염병 등이 주민 속에 급격히 번졌다. 남녀 일반 기대수명이 1991년-1995년 사이에 70.5세에서 67세로, 남성만으로는 1989년 66세에서 62.8세로 줄었다. 동시에 유아 사망률은 13.0 (1990년)에서 15.0 (1995년)으로 증가했다.[34]

상황이 나중에 개선되었어도, 기대수명은 2020년에도 여전히 1991년 (71세)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이것은 유럽의 다른 어느 나라들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35] 사망률 (인구 1,000명당)은 11명 (1989년)

에서 17명 (2005년), 16명 (2020년)으로 증가했다.[36] 동시에 출산율 (여성 1인당 출생 수)은 2명 (1988년)에서 1.1명 (2001년), 1.2명 (2020년)으로 감소했다.[37]

이러한 전례 없는 사회적 쇠퇴·부후화 과정의 필연적인 결과는, 우크라이나 인구가 1991년 5200만 명에서 2020년 약 4200만 명으로 20% 가까이 감소한 것이다.[38] 자유시장의 이점을 전파하는 데 실패할 일 없는 핵심 제국주의 경제기관인 OECD조차도 다음과 같이 밝힐 수밖에 없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독립 이래로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를 겪었다. 2000-2016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즉, 15-64세)는 7.8% 감소했고 전체 인구는 8.1%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이미 대부분의 OECD 나라들보다 고령이다. 65세 이상의 연령층이 2016년에 인구의 21%를 점했다." [39]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 중 하나 — 에서 자본주의 복고의 대차대조표는 파괴적이다. 물론, 이 과정은 현 러시아 침략 전쟁에 의해 지금 훨씬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보여주었듯이, 자본주의 복고 후 20년이 넘은, 그리고 러시아와의 적대관계가 시작되기 전인 2013년에도 우크라이나 경제가 1991년 수준의 76%밖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4년 국내 갈등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후퇴를 맞았다. 자본주의와 제국주의라는 사악한 힘들에 의해 파괴되면서 사회적·경제적 퇴보·역진의 과정을 겪은 것이다.

4. 1991년 이래 우크라이나 자본주의의 반식민지적 기형화

스탈린주의와 관료 계획경제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에 자본주의 소

유관계가 확립됐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유기적"으로 성장하지 않았고, 성장할 수도 없었다. 그러하기 보다는 자본주의 가치법칙이 외국 제국주의 기관 (서방 정부/은행/기업)과 국내 올리가르히 (과두재벌)의 결합된 힘에 의해 실행됐다. 결과는 제국주의 열강과 독점체들에 의한 파렴치한 강탈이며 이들이 지배하는 종속적 자본주의 경제의 성립이었다.

1) 올리가르히: 매판 부르주아지의 형성

동유럽의 다른 전(前) 스탈린주의 나라들과 비슷하게 우크라이나에서도 1991년 이후 친자본주의 정부들이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을 실시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9년 말 사유화된 기업들이 산업생산의 약 71%와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했다.[40]

사유화 과정은 독점화 과정으로 이어졌다. 즉 주요 경제 부문/기간산업을 장악한 소수의 기업들이 창출된 것이다. 1998년 2월까지 200대 기업이 우크라이나 산업생산의 90%를 담당했다.[41]

2022년 2월 전쟁 시작 이전 시기에 켈렌스키 정부는 사유화 과정을 지속, 확장하려 했다. 2021년 3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국유기업 민영화 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략" 기업으로 간주되어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들의 수를 줄여놓은 이전 법 (2019년 법)을 따른 것이었다. 2020년 우크라이나의 최대 파이프라인 회사 나프타가스과 우크르 트란스가스 등 에너지 부문 관련 회사들을 포함하여 국유기업의 부분 민영화를 허용하는 프로세스가 착수됐다. 여기에 의회가 나서서 2021년에 민영화 제외 대상 659개 기업 (주로 에너지, 방산, 항공우주 부문, 국영 철도, 우편)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이 프로세스를 법적으로 한 층 더 확실하게 했다.[42]

이 사유화 과정의 결과는 소수의 슈퍼리치 자본가 집단 — 이른바 올리가르히 — 이 가장 값나가는 기업들을 틀어쥔 것이다. 결코 사회주의에 친하다는 혐의를 받을 일 없는 미국의 한 신자유주의 싱크탱크가 최근 발표한 연구보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상위 100명의 부자들이 전쟁 전 우크라이나 경제의 25% 가까이를 지배했다. 많은 올리가르히가 에너지, 광업, 금속, 미디어를 포함하는 문어발식의 다각화된 지주회사들을 거머쥐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경제적 지배를 통해 올리가르히가 일부 정당에 상당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거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43]

소수의 새로운 자본가 집단에 의한 이 같은 축재 과정은 대규모 자본 도피 및 국유 재산 도둑질과 동반 진행됐다. 경제학자들은 1996년 우크라이나의 국외 자본 규모를 25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사이로 추정했다. [44] 이 과정은 우크라이나 자본가들의 소위 국외 "투자" 목적지의 특수한 성격에서도 나타나는데,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로부터 유출되는 전체 외국인투자 (해외투자)의 90% 이상이 조세 피난처이자 자본 도피 목적지로 잘 알려진 키프로스에 등록되어 있다. [45]

물론, 그러한 국외 "투자" 중 일부는 다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투자 (우리가 러시아에서도 관찰한 현상인 이른바 자본 "라운드트리핑" [우회투자])로 돌아왔다. [46]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잔고가 우크라이나의 국외 FDI에 비해 액수가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자본가들이 자국에 대한 그러한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작은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명백하다.

자본 도피의 또 다른 형태는 수출에 있다. 사회노동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일단의 우크라이나 진보 경제학자 그룹은 한 흥미로운 연구보고서를 통해 내국 자본가들이 소위 "상품 수출"을 통해 나라 밖으로 밀반

출한 화폐의 양을 계산했다. "자료를 종합하면 2012~14년 및 2015년 1-9월 동안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키프로스, UAE, 스위스, 레바논 등 무역 중계국들에 한해 우크라이나가 수출한 물량은 전체 상품 수출의 50%에 달하는 액수인 831억 흐리브냐 [우크라이나 통화 - 인용 자료], 이 중 25억7000만 흐리브냐(1,5%)만이 이들 나라에서 소비되었다. 우크라이나 수출이 이들 중계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상품 수출의 절반 이상이 세금 적은 나라들을 거쳐 가며, 우크라이나 수출기업들 이윤 대부분은 그들이 이 나라들 은행에 개설한 계좌에 쌓이고 있는 반면, 나라 예산은 상당액수의 법인세를 잃고 있다고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47]

이와 같이, 이 소수 과두재벌은 그들의 부를 일차적으로 국내 경제에서 자본축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 조세 피난처에서 기생적 축적을 위해 활용한다. 동시에, 과두재벌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글로벌 자본의 필요에 맞춰 종속적 경제로 전화시키는 데서도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즉, 과두재벌 올리가르히는 다른 많은 반식민지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익숙한 현상인 매판 부르주아지의 우크라이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우크라이나판 매판 부르주아지는 국가 경제를 약탈하여 국외 조세 피난처에 맡겨둔 이 흙친 부를 통해 기생적으로 살아가는 자본가계급이다.

그 본성상 올리가르히는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 관계망에서 올리가르히는 종속적 부분으로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에 완전하게 의존하고 있다. 여기에는 주되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올리가르히는 (대부분 서방 열강들이 통제하는) 국제 금융기관에 맡겨둔 그들의 부를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제국주의 독점체들과 강대국들에 의존한다. 둘째, 그들의 이윤은 그들이 독점체들과 맺을 수 있는 사업 거래에 크게 의존한다.

끝으로, 올리가르히가 — 러시아를 비롯한 전(前) 소연방 나라들과는 달리 — 우크라이나 국내정치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직접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2014~19년 젤렌스키의 전임 대통령인 페트로 포로셴코는 억만장자이자 제과회사의 오너로서 “초콜릿 킹”이라는 별명을 보유했다. 2002년 450명의 국회의원 중 300명이 백만장자 [달러 기준]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입법에 직접 관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기소 면책권에서 오는 특권은 탈세와 자금 국외 밀반출에 신경 쓰는 사업가들에게 절대로 과소평가될 수 없는 국회의원직의 이점이다.[48]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자본가계급의 최상위층인 올리가르히는 우크라이나 자본주의의 반식민지적 기형화를 밀어가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2)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위한 반식민지 원료 공급자

우크라이나에서 자본주의 복고의 주요 특징은 제국주의 지배 세계시장에 우크라이나 경제가 급속히 통합됐다는 점에 있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GDP 대비 무역 비율 (연간 총생산에서 수출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는)은 90%에서 110% 사이였다. 이후, 이 수치는 약 75-80% 수준으로 안정화되었다.[49] 이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훨씬 더 고도로 통합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GDP 대비 수출 비중은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하여 40%를 넘었고 2000년에는 약 60%로 늘었다.[50] 전체 세계 무역에서 우크라이나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0.3%에서 2005년 0.35%, 2011년 0.4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세계 GDP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0.22% 수준에 불과했다. 즉, 우크라이나가 세계 수출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생산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보다 두 배나 높았던 셈이다.[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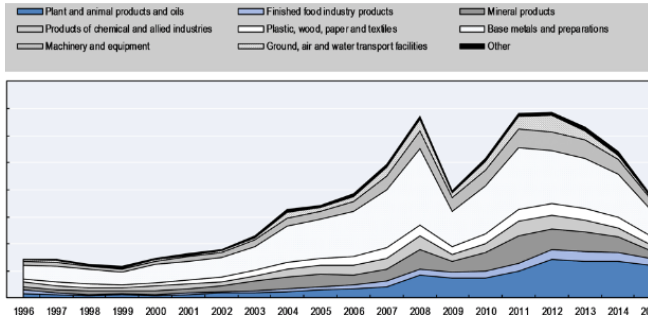
캐나다 경제학자 안톤 올레니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1990년대 중반 쿠치마 대통령이 '충격요법' 정책을 시행한 이래로 우크라이나는 대외무역 (수출과 수입을 합친) 비중이 GDP 규모를 줄곧 초과하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국 중 하나였다. 쿠치마의 충격요법은 1990년대 초 러시아에서 보리스 옐친과 예고르 가이다르 정부가 실행한 개혁보다도 더 급진적이고 더 신자유주의의 기준에 가까웠다." [52]

그러나 그 시작부터 우크라이나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경제를 위한 1차반제품 공급자로서 자본주의 세계시장에 진입했다. 지난 30년은 그러한 종속적 지위가 심화되는 시간이었다.

첫 번째 기간에는 공업 원료가 우크라이나의 수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수출물량에서 철 금속과 비철 금속의 비중이 1996년 초 약 30%에서 2001년 40%로 증가했다.[53] 구소련 이외의 나라들로 가는 우크라이나 수출물량에서 이 비중은 무려 50%를 넘었다.[54]

그러나 그 뒤에는 철강 비중이 줄고 대신 농산물 비중이 늘었다. 2008년과 2015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수출물량에서 비(卑)금속 비중은 42%에서 26%로 감소했다. 공산품 비중도 2008~2013년 사이에 73.6%에서 57.4%로 줄었다. 동시에 밀, 보리, 유채씨, 옥수수와 같은 1차 농산물 비중은 2008년 12%에서 2015년 32%로 3배 증가했다. (아래 그림 2 참조).[55] 지난 몇 년 농산물 수출은 훨씬 더 늘어 2021년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물량에서 약 41%를 차지했다.[56]

그림 2. 우크라이나 수출구조, 1996-2015년 [57]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제조업 수출품은 주로 비(非)금속류다. OECD는 2018년 "첨단 제조업 제품 수출은 미미한 수준으로 철도 차량, 항공기 부품 등이 대부분이다"라고 평가했다.[58] 이는 앞서 언급한 국내 제조업이 사유화와 세계화 과정으로 인해 붕괴된 결과다. "2017년 철도 차량 수출은 2013년에 비해 91% 감소했고 기계공업 제품의 경우 54% 감소했다."[59] 유명한 항공기 제조기업 안토노프 사는 2015년 이후 단 한 대의 비행기도 만들지 못했다.[60]

잔존 산업들은 국내 시장보다는 수출용으로 상당 정도의 생산을 한다. 키이우에 본부를 둔 사회노동연구소의 위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4년 전체 산업생산의 41.9%를 담당한 6개 산업이 제품의 절반 이상(54.3%)을 국외에 판매했다. [61]

우크라이나 경제에도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현대적인 고숙련 산업부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전쟁 이전에 이 부문은 GDP의 4%를 접하기까지 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기술 노동인력은 세계 4위권에 속했다. 우크라이나 정보통신 전문가들은 운전면허증, 코로나19 백신 기록, 여권 등 정부서비스를 자동화하는 데 기여한 이른바 "디아 앱"(Diia app)을 만들어냈다. 이 앱은 전쟁 상황에도 성공적으로 효능

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 난민 및 IDP 지원, 러시아 군사 활동 위치 파악 등).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수출액은 2011년 연간 10억 달러 미만 수준에서 2021년 68억 달러 넘는 수준으로 증가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2013년)에서 10%(2021년)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62]

그럼에도 이 부문은 국가 경제와 무역에서 여전히 작은 일부일 뿐으로, 우크라이나 경제의 반식민지적 기형화를 막는 강력한 상쇄 영향을 유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점은 전쟁 시작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 수출물량에서 첨단기술 부문 비중이 감소하는 것에서 잘 볼 수 있다. (아래 표 4 참조). 그리고 끔찍한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우크라이나 경제를 현대화하는 쪽보다는 정보통신기술 노동자들을 국외 이주자로 빼내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표 4. 우크라이나 전체 상품수출에서 첨단기술로 생산된 상품수출 비중, 2013-2018년 [63]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4.4%	20.4%	19.2%	17.3%	16.8%	17.0%

EU에 대한 수출 비중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조차도 제국주의 정부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열심이어서 곧 중요한 장애물에 직면했다. 동시에 EU는 우크라이나에게 시장 개방을 강요했다. 우크라이나의 진보 경제학자 마르코 보즈쿤은 우크라이나의 세계시장 편입에 관한 연구논문에서 이렇게 지적한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에 러시아와의 무역 비중을 약 80%에서 55%로 줄였다. EU에 가입 신청 중인 중유럽 국가들과의 무역도 20%에서 10%로 동시에 감소했지만, EU 회원국들과의 무역은 약 6%에서 20%로 증가했다.... EU 보호무역주의 체제가 우크라이나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품들 (철강, 화학, 식

품, 섬유 등, 우크라이나로서는 생산적 투자와 경제 현대화를 위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들의 수입을 막는 한 EU와의 무역관계 구조는 불만족스러웠다. 게다가, 반덤핑 조사 대상으로 지정된 우크라이나 수출 품목의 비율이 1990년대에 약 1/4에서 1/3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동안 우크라이나 소매 시장의 약 60%를, 원산지에서는 팔 수 없는 잉여 및 2등급 제품을 공급하는 외국인 업자들이 장악했다."[64]

같은 저자는 1996년에 절박한 경제 상황을 논평한 한 우크라이나 신문을 인용한다. "우리는 국외 시장만 잃은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의 것도 거의 다 잃었다.... 키이우의 한 슈퍼마켓은 지금 감자 바레니키 [만두와 비슷한 우크라이나 전통 음식]를 팔고 있는데 그것들은 뉴욕 브루클린에서 만들어진다!"[65]

이와 같이 우크라이나의 수출구조는 크게 변형되어버렸다. 주로 1차 반제품을 EU에 수출하는 반면, 주로 가공품을 수입한다. 2016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EU 수출 품목은 비금속과 그 제품(전체의 22.1%), 채소류 제품(16.1%), 광물 제품(12.8%), 기계 및 가전 (11.5%)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EU로부터 주로 기계 및 가전(26.1%), 화학 산업 또는 관련 산업 제품(16.8%), 운송 장비(10.7%), 플라스틱·고무 및 그 제품(7.1%) 등을 수입했다.[66]

우크라이나의 수출구조는 — 전쟁 시작 훨씬 전부터, 나아가 2014년 사건보다도 더 전부터 — 평균적인 반식민지 나라보다 더 낙후되어버렸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체 수출에서 첨단기술 제품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다른 중저소득국들과 비교해보자. 우크라이나는 2000년에서 2013년 사이에 이 비율이 평균 5% 수준이었는데 반해 중저소득국들의 평균은 17~20%였다.[67]

우크라이나의 많은 관측자들은 그들의 나라가 부유한 나라들을 위한 기초 상품 공급자로 전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다. 사회노동연구소의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향은 지난 20년 동안 좇은 논리에 부합한다. 우크라이나를 원료 공급자로 세계시장에 편입시키는 그 일반적 논리 말이다”라고 올바르게 논평한다.[68]

우크라이나의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조차 그러한 사태전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논평한다. 재무차관과 국제통화기금(IMF) 우크라이나 대표를 역임한 숨김없는 신자유주의 숭배자인 우크라이나 경제학자 올레 하브리신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수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원 기반 저부가가치 수출이 너무 많고 고도 첨단기술 제품은 충분치 못하다고 강하게 지적하는 논조의 관계자들 글이나 성명이 결코 없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곤차르와 바비라드-라주닌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과 러시아연방의 농업 부속물이 되었으며… 비록 국제 조사에서는 우크라이나의 과학 기술 잠재력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지만… 첨단기술 제품 수출은 매우 적다’고 말한다. 또 슬레프트소바도 우크라이나 수출이 철강이 1/3을 훨씬 넘게 차지하는 등 자원 집약도가 높다고 지적한다. 정부 프로그램들과 성명들도 비슷한 지적들로 채워져 있다. 단순, 자원 기반 저부가가치 제품의 높은 비중을 비판하는, 그리고 올바른 수출구조가 되려면 훨씬 더 정련된 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우크라이나의 선진 인적 자원 능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지적들이다. 개발경제학에 친숙한 독자들은 저소득 국가들이 농산물이나 자원 수출국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이 공통된 불평불만을 인정할 것이다.”[69]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 무역구조의 변화는 우크라이나를 무엇보다도 제국주의 국가들을 위한 1차·반제품 공급자로 만들었다. 지난 30년을 거쳐 우크라이나도 자본주의 반식민지의 특징인 세계시장에서의

종속적 지위를 떠안게 된 것이다.

우리가 낸 책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 설명했듯이, 그러한 종속적 위치에서 우크라이나는 다른 많은 반식민지 나라들처럼 제국주의 지배 세계시장에서의 부등가 교환이라는 불리한 조건을 맞고 있다. 보다 발달한 (제국주의) 나라의 상품과 덜 발달한 (반식민지) 나라의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교환될 때, 가치법칙은 제국주의 자본이 부등가 교환을 통해 추가이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제국주의 자본의 더싼 상품은 반식민지 나라의 더비싼 상품을 두 손 들게 하고, 반식민지 나라가 그들의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보다 강한 (제국주의) 자본은 자신의 상품을 생산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경쟁력이 낮은 (반식민지) 자본보다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더 싸다. 반식민지 자본은 자신의 상품을 생산 가격 이하로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되며, 그러면서도 제국주의 자본보다 세계시장에서 여전히 더 비싸다.[70]

그 결과, 더 강한 (제국주의) 자본은 더 약한 (반식민지) 자본에 의해 창출된 잉여가치의 일부를 성공적으로 전유한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대량 가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바로 부등가 교환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이러한 사태발전은 결코 “불가피”하지 않았다. 1991년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약한” 또는 “후진” 경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산업을 보유한 경제라는 점에서 전혀 불가피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열강에 (점점 더 농산물 비중이 늘어가는) 1차 반제품을 공급하는 반식민지 나라로 전화한 것은 다름 아닌 자본주의 복고 정책의 결과였다.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강대국들과 소수 올리가르히 집단 — 탐욕적인 매판 부르주아지 — 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추진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인 것이다.

3) 외채의 덮에 깊이 빠진 경제

언제나 제국주의 자본은 자본수출을 통해 가난한 나라로부터 추가 이익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진 그 한 가지 형태는 차관-대출 형태로 화폐자본의 수출이다. 이런 경우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반식민지 나라들에게 공여하는 차관에는 막대한 금리가 따른다. 외채가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초과착취로 결과하는 이유다.

처음에 독립 국가가 되었을 때 우크라이나는 미상환 외채가 없었다. 이것은 빠르게 바뀌었다. 1992년 말 어림잡아 14억 달러 수준이던 우크라이나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여 1999년 124억 파운드까지 치솟았다.[71] 2001년 3월에는 140억 7천만 달러로 상승했다. 그 결과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999년에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수출 대비 부채 총액도 1994-97년 43-48%에서 1998-2000년 65-77%로 증가했다. 또 수출 대비 부채 상환 비율 (한 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상품 판매를 통해 부채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도 1997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72]

그러한 차관-대출의 많은 부분이 외국 자본가들로부터 온 것이다. 1996년 정부가 국채 발행안을 내놓았을 때 외국인투자자들이 국고채 시장에 넘쳐났다. 1997년 말 외국인투자자들은 모든 국고채권의 45%를 보유하고 있었다.[73]

우크라이나 자본가들도 막대한 대출을 받았는데, 많은 경우 국가가 그 부채에 대한 공적 보증을 떠맡았다. 놀랍지 않게도, 자본가들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었을 뿐더러 대부분 갚으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노동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우크라이나 국가회계

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기업 중 수수료를 제대로 지불한 기업은 15% 미만이며, 이들 중 약 3분의 1은 받은 대출금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부채의 압도적인 부분이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한 지불 채무라는 것은 흥미롭다. 따라서 국가 예산은 국내 생산을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 대신에 외국 제조업자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버렸다.”[74]

1990년대 말 우크라이나 국가는 공적 보증 대출의 (이자 포함) 상환 비용이 국가 전체 부채 상환액의 31%로까지 증가하는 기괴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75]

당연히, 정부는 누적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2000년에 IMF에 대한 지급액만으로도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의 모든 통화 보유액을 초과했다. 2000년의 대외 공채 총 지급액은 37억 흐리우냐 [1흐리우냐 = 약 35원]에 도달하여 전년도에 두 배로 뛰었다.[76]

2000년대 들어 경제가 몇 년간 성장기를 겪으면서 상황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원인은 일차적으로 우크라이나 기업들이 수출하는 원자재에 유리했던 당시 세계시장 동향 때문이었다. 그 결과,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2007년에 최저 12%로 떨어졌다.[77]

그러나 2008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부채 상황은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다. 우크라이나의 자본가들은 외국 금융기관들로부터 계속해서 대출을 받았고, 그 결과 사기업 부문은 총 1,040억 달러의 대외부채 — 2009년에 달성한 GDP의 약 108% — 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 금액 중 430억 달러는 2009년 상황 예정인 단기 부채였다.[78]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 국가 부채도 2013년 730억 달러로 정점을 찍으며 빠르게 증가했다.[79]

더 이상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 왔다. 2013년 경상수지 적자는 GDP의 9.2%에 달했고, 외화보유액은 두달치 수입액을 조금 넘는 액수가 다였다. 2014년 통합 예산 적자가 GDP의 10%를 초과했다. 그 결과 흐리우냐는 대폭 평가절하 되었다.[80]

2016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채 상황은 일시적인 경기상승을 배경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부채는 2022년 2월 전쟁 시작 전 몇 년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2020년 중앙정부 부채가 (2016년 71.8%로 정점을 찍은 뒤) 58.7%였다.[81]

IMF 자료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대외부채 잔액은 56.9%(2007년)에서 78.8%(2013년), 123.2%(2016년)로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82.7%를 기록했다. (아래 표5 참조)

표 5. 우크라이나 대외부채 잔액, 2007-2020년 (GNI 대비) [82]

2007	2013	2016	2020
56.9%	78.8%	123.2%	82.7%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수출 소득의 상당 부분 — 약 5분의 1 또는 5분의 2 — 을 외채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아래 표 6 참조)

표 6. 우크라이나 총부채상환액 (상품·서비스 수출 및 1차 소득수지 대비), 2007-2020년 [83]

2007	2013	2016	2020
18.5%	42.3%	20.9%	23.8%

우크라이나가 외채의 덩어리 속에서 전쟁과 파괴의 현 조건에서 상황은 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제국주의 열강과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대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84] 주빌리

부채 캠페인 (Jubilee Debt Campaign)의 하이디 차우 사무총장은 위험한 상황이라며, 자본가들이 채권 만기 전에 현금화하려고 하는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지적하고 있다. "침공 이후, 2015년 채무 재조정의 일환으로 발행된 우크라이나 달러 표시 채권은 달러당 25센트 수준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우크라이나가 채무 상환을 계속할 경우 서방 은행과 헤지펀드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85]

이 수치들은 외채 사업이 제국주의 독점체들에게는 매우 수익성 높은 비즈니스지만 그들에게 초과이윤 지불의 짐을 져야 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인민에게는 매우 불리한 것임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다!

4) 외국인투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국주의 약탈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국주의 자본은 자본수출을 통해 가난한 나라로부터 추가 이윤을 얻으려고 시도한다. 차관대출로 화폐 자본을 수출하는 것도 그러한 형태 중 하나지만, 외국인투자는 반식민지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하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이다.

한편으로는 거대한 노동력 저수지 및 이 노동력 착취를 위한 값싼 비용을, 다른 한편으로 본국에서 이윤율의 저하 경향을 고려할 때, 제국주의 독점체들은 이 가난한 나라들에 자본을 수출하려는 강한 동기를 가진다. 독점자본한테 이 해외시장이 국내시장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대체물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해외시장은, 이 나라들의 평균 이윤율이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능한 추가 이윤의 중요한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한 자본수출은 독점체들이 현대 기계와 기술을 훨씬 더 값싼 노동력과 결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독점체들은 그들의 상품

에 대한 비용 가격, 즉 상품 원가를 낮춘다. 독점체들이 그들의 상품을 판매할 때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반식민지 시장과 제국주의 시장 모두에서 그렇다. 반식민지 시장에서는 이 독점체들이 반식민지의 경쟁 자본가들에 비해 더 현대적인 기계를 사용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효과적이고 더 생산성 높은 방식으로 상품을 생산하도록 했기 때문에 시장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있다. 제국주의 시장에서는 이 독점체들이 제국주의 시장의 다른 경쟁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임금을 반식민지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면 됐기 때문에 시장 가격보다 싸게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독점체들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추가 이윤을 내고, 이 추가 이윤의 일부는 반식민지 나라들에 재투자될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제국주의 나라의 오너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1990년대에 첫 번째 시기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투자 형태로의 외국인 자본수출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앞 장에서 보았듯이, 외국으로부터의 차관대출에 비해). 1998년 말, 우크라이나의 1인당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헝가리의 1,745달러, 체코의 822달러, 폴란드의 595달러, 러시아의 102달러와 비교하여 49달러에 지나지 않았다. 1999년 초,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24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공화국과 같은 작은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낮았다.[86]

그럼에도 외국 자본가들의 우크라이나 경제 진출은 그 중요성이 더해간다. 아래 표 7에서 보듯이 우크라이나 은행 중 외국 자본가들이 투자한 은행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갔다.

표 7. 우크라이나의 전체 은행 수와 소유권, 1991-2000년 [87]

구분	1992	1994	1996	1998	2000
전체은행수	113	2287	229	214	195
외국자본투자 은행	-	12	14	28	31

2000년대 동안, 특히 2004년 소위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가속화되었다. FDI 유입은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가중 평균 43.9%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88] 2012년 우크라이나로 들어오는 FDI 유입은 GDP의 4% 이상을 점했다.[89]

그 결과 우크라이나 은행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3%에서 2009년 50% 이상으로 증가했다.[90] 마르코 보즈쿰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2009년 4월 기준으로 가장 큰 10개 은행 중 7개 은행의 자산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영 은행들은 우크라이나 은행 자산의 8분의 1 미만을 보유했다. 이러한 상황은 호황기에 국립은행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었다. 그리고 민간 부문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1,000억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파산 당시에 이들 민간 은행들은 IMF로부터 16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아 자신들을 구제하고 자신들의 부실 채권을 공공 부채로 전환하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91]

2008-09년 공황의 여파로 일부 외국 은행들이 우크라이나 시장을 떠나거나 사업을 축소했다. 그리하여 외국인이 보유한 은행 자본의 전체 비중은 감소했지만, 2014년에도 3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래 표 8 참조) [92]

표 8. 은행부문 소유구조, 2008-14년 [93]

구분	2008	2010	2012	2014
----	------	------	------	------

내국 국영은행	11%	14%	17%	22%
내국 민간은행	40%	44%	54%	47%
외국 민간은행(러시아 은행 포함)	42%	33%	21%	21%
러시아 국영은행	7%	8%	8%	10.3%

동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가장 큰 기업들 사이에서 외국 자본의 비중이 낮다. 예를 들어 2014년 폴란드의 170개 대기업 중 90개(53%)가 외국인 소유로 누적 매출액의 43%를 차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최대 기업 32개 중 7개(22%)만 외국인 소유로 누적 매출액의 13%를 차지했다. (아래 표 9 참조).[94]

그럼에도 외국 자본가들이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았다. 2016년에 발표한 OECD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2012년, 유럽연합의 다국적기업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약 20만 명의 직원을 고용했고,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약 26,000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외국인 소유 기업들이 모바일 전화를 지배하고 있다. 모바일 사업자들이 현재 전국에 3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 기업들은 또 농업 기업, 소비재, 은행 및 소매 유통 부문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한다.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철강기업]은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통합 철강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다." [95]

표 9. 매출액 기준 우크라이나 최대 기업들의 소유권, 2012-14년 [96]
매출액 (전체 비중)

구분	2012	2013	2014
----	------	------	------

민간기업	59,679(53%)	63,714(54%)	42,612(55%)
국영기업	37,059(33%)	32,399(28%)	25,504(33%)
외국기업	15,356(14%)	21,274(18%)	9,870(13%)
총	112,095	117,386	77,985

우크라이나의 침체된 자본축적 수준을 고려할 때, 외국인 투자 비중은 상당히 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연간 FDI 유입은 2006년 이래 우크라이나 연간 총고정자본형성의 20%를 넘는 수준이었다. 2011년에 발표한 OECD 연구에 따르면, 이 비율은 "러시아(15%)를 포함하여 개도국 및 과도국 경제의 평균(2008년 14%)보다 높은 것이다."[97]

대부분의 FDI 유입은 금융부문, 광업 및 금속, 통신, 건설 자재, 식품 가공 등에서의 인수합병(M&A) 자금으로 들어갔다. 아래 표 10은 2005-2015년 기간 동안 가장 큰 15건의 인수합병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보다시피 여기서 러시아 기업들이 큰 역할을 했고 이 인수합병의 절반에 관여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유럽연합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FDI의 주요 공급원으로 전체 FDI 잔액의 75% 이상을 차지한다.[98]

표 10. 우크라이나의 주요 외국인 인수합병 거래, 2005-2015년 [99]

연도	부문	투자자	국적	가치(백만 달러)
2005	철강	아르셀로미탈	룩셈부르크	4,800
2005	은행	라이피젠인터내셔널	오스트리아	1,028
2005	은행	BNP파리바	프랑스	465
2005	텔레콤	빔펠콤	러시아/네덜란드	280
2006	은행	크레이아그리콜	프랑스	262

2006	은행	OTP뱅크	헝가리	821
2007	농식품	펄시코	미국	542
2007/8	철광석	에브라즈	러시아	2663
2008	은행	유니크레디트	이탈리아	2076
2008	은행	개인투자자	러이사	350
2008	은행	인테사산파올로	이탈리아	730
2010	통신	빔펠콤	러시아/네 덜란드	5515
2010	에너지	TNK-BP	러시아/ 영국	313
2011	철강	메첼	러시아	537
2014	은행	알파뱅크	러시아	276

우리가 다른 문서들에서 지적했듯이, 비록 궁극적으로는 외국 열강 및 독점체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지만 해외에 적지않은 규모의 투자를 하는 내국 기업들을 가진 선진 반식민지 나라들이 존재한다.[100] 우크라이나에는 확실히 그런 내국 기업들이 없다. 일부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는 모종의 "외국인투자"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이것은 국외로 돈을 밀반출 하는 형태다. FDI 유출입 및 FDI 잔액에 대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최신 수치를 보면, 우크라이나 자본가들에 의한 외국인투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비해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래 표 11 및 12 참조)

표 11. FDI 유출입 우크라이나, 2016-2021년 (백만 달러) [101]

FDI 유입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4055	3727	4732	6017	-36	6549

FDI 유출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100	281	-127	842	22	-198

표 12. FDI 잔액 우크라이나, 2000-2021년 (백만 달러) [102]

FDI 유입 잔액		
2000	2010	2021
3,875	52,872	62,131

FDI 유출 잔액		
2000	2010	2021
170	6,548	-295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 자본 — 서유럽과 러시아 — 은 우크라이나의 경제에서 강력한 역할을 해왔으며 우크라이나의 값싼 노동 비용으로부터 득을 봤다. 외국 자본은 은행 부문뿐만 아니라 몇몇 생산 부문들에서도 상당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우크라이나 자본가들의 국외 실제 투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우크라이나로부터 잉여가치를 전유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시 한 번 우크라이나의 반식민지 지위를 확인시켜준다.

5) 이주: 우크라이나가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다

자본주의 반식민지로서의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값싼 이주 노동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이다. 우리가 여러 문서들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듯이, 언제나 이주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의한 반식민지 초과착취의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나 이 요인은 1970년대 초 자본주의 공황기 시작 이후로 그 중요성이 더해 가다가 세계화의 개시와 함께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다.[103]

기본적으로, 독점자본이 반식민지 세계로부터 추가 이윤을 뽑아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주를 활용한 추가 이윤 전유도 있다. 제국주의 자본은 이주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노동력 가치 이하로 지불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i) 이주자들은 보통 그들 본국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전혀 교육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또는 제한적인 비용만으로 이주자들을 착취할 수 있다. 소련의 맑스주의 경제학자 아이작 루빈이 지적했듯이, 한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노동 생산물뿐만 아니라 “해당 직종 노동자의 훈련에 필요한 노동 생산물도” 포함된다.[104] 따라서 자본가는 상품 가치 일부를 비용 없이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

ii) 이주자들은 연금과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되어 있고, 노령화되면 많은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므로 자본가들은 이러한 사회복지 비용을 아예 지불하지 않거나 또는 조금만 지불해도 된다.

iii) 자본가들은 보통 자국, 즉 지배국 출신 노동자들의 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을 이주자들에게 지불한다. 민족 억압을 핵심 특징으로 하는 이주자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자본가들은 (내국인에 비해) 더 값싼 노동력으로 이주자를 착취할 수 있다. 이는 이주자가 제국주의 나라에서 시민권이 없을 경우 각종 권리의 결여로 인해 더더욱 그러하다. 이주자들의 모국어가 동등하게 취급되지 않고 그리하여 제국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일자리와 학교와 그 밖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매우 불리한 지위로 인해 또한 그러하다. 이주자는 또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차별을 통해 억압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억압은 1세대 이주자뿐만 아니라 2세대와 3세대 이주자에게도 해당된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19세기 이래로 대규모 집단이주(디아스포라)가 있었다. 이러한 대량 이주의 주요 원인은 러시아 제국과 합스부르크 제국에서 우크라이나 인민이 겪은 열악한 생활 조건과 민족 억압 때문이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대(大)러시아 배외주의는 푸틴의 발명품이 아니라 차르 제국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다.[105] 이미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2세는 바젠프스키 대공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크라이나인들이 스스로를 러시아인과는 전혀 다른 민족이라고 여기는데 이런 불경한 생각은 근절해야 한다. 소르시아 [우크라이나를 지칭], 리보니아, 핀란드는 그들에게 굳어진 권한으로 통치하고 있는 지방들이다. 그들 모두를 한꺼번에 침해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국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기준으로 그들을 대우하는 것은 단순한 어리석음 그 이상이다. 이들 지방과 함께 스톨렌스크 지방도 쉽게 단계적으로 러시아화 되어 늑대처럼 숲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106]

그러한 러시아화 정책 (그리고 한편으로 합스부르크 제국에서의 차별)에 직면하여, 많은 사람들이 당시 고향을 떠나 사회적 처지 개선을 희망하며 다른 나라들에 정착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991년 독립 전에 당시 우크라이나 강역을 떠난 최대 2천만 명에 이르는 우크라이나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자료들이 있다.[107] 1991년에서 2014년 사이에 4백만에서 7백만 명의 또 다른 이민자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 국제 이주에 대한 한 유엔 보고서는 2019년에 5-6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국외에서 이주자로 살고 있다고 추산한다.[108]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푸틴의 침략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 이주민 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많은 우크라이나 이주자들이 — 이주자 일반이 그렇듯이 — 값싼 노동

인력으로 주재국에서 일한다. "값싼"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이주자들이 그들의 노동력 가치 이하로 지불 받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그러한 우크라이나 이주자들 중에 첨단 기술을 가진 정보통신 노동자들도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사실과 모순되지 않는다. 한 미국 싱크탱크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2021년 우크라이나의 정보통신 노동자 수는 28만5000명으로 5년 전의 2배 수준이었다.[109] 현 전쟁의 파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서방 제국주의 독점체들이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을 신규 노동 인력으로 대거 모집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전쟁 시작 이전에 우크라이나 이주자들이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큰 액수의 송금액에도 그러한 거대한 이주 규모가 잘 나타나 있다. 그러한 송금이 2020년 우크라이나 GDP의 10% 가까이를 점했다![110]

끝으로,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이주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유엔은 그들의 수를 약 5백만으로 추정한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이주자들이 우크라이나를 유럽연합으로의 이주를 위한 통과 국가로 보고 있다.[111] 이들 이주자의 대부분 — 약 330만 명 — 이 러시아연방을 떠난 사람들이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푸틴 정권에 의해 끔찍한 박해를 당한 체첸 인민을 비롯한 그 밖의 카프카스 인민이다), 그 다음으로는 벨로루시인 25만 명, 카자흐스탄인 22만6천명 이 있다.[112]

5. 우크라이나: 동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찢겨진 종속국

우리는 앞 장들에서 우크라이나가 지난 30년 동안 어떻게 자본주의 반식민지가 되었는지, 그 주요 특징들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제 수년간 이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사태발전의 틀을 주도해온 온 특수한

그리고 매우 중요한 특징을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반식민지는 형식상 독립 국가라는 점에서 식민지와 구별된다. 이것의 결과 중 하나가 그러한 반식민지는 하나의 제국주의 국가에 종속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둘 또는 그 이상의 제국주의 국가들에 종속되는 경우도 많다는 사실이다. 우크라이나도 이런 경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러한 종속이 특이한 형태를 취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한편으로 EU와 미국,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등 가속화하는 상호 대립 충돌 속에 꽂혀 있는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열강은 과거에 다양한 시안들에서 협력했지만, 결코 장기적인 동맹 (예를 들어, 70년 이상 나토를 비롯한 그 밖의 동맹체의 일원인 미국-서유럽과는 달리)에 기반을 두고 통합된 적이 없다. 나아가 러시아와 서방 열강 간의 관계는 2014년 이후 악화되어 2022년 2월 이래 냉전으로 전화되었다.

앞 장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제국주의 독점체들의 중요한 비중과 역할 — 무역, 외국인투자, 차관-대출 등의 측면에서 — 을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서유럽-미국 기업과 러시아 기업 각각의 비중과 역할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제는 1991년 이전에는 러시아와 밀접하게 통합되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가 독립한 후에는 이 관계가 변화했다. 1990년대에 러시아와의 무역 비중은 약 80%에서 55%로 감소했다. 중유럽 국가들과의 무역도 20%에서 10%로 동시에 감소한 반면, EU 회원국들과의 무역은 약 6%에서 20%로 증가했다.[113]

이후 몇 년, EU의 비중은 더욱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가 예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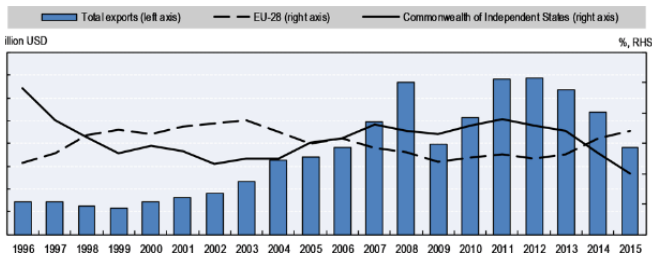
지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목적지로서도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남아 있었다. (아래 표 13 참조)

표 13. 목적지별 우크라이나 수출 비중 (%) [114]

구분	1995	2000	2005	2010-11	2012-13	2015
러시아	43%	24	22	22	26	13
EU	20%	29	27	22	24	34

그러나 옛 소련 국가들 — 이른바 독립국가연합(CIS) 국가들 —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10년간 이들 나라들이 여전히 중요한 수출 목적지였음을 알 수 있다. OECD는 몇 년 전 발표한 우크라이나 경제 관련 연구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전통적인 독립국가연합(CIS) 수출이 최근 몇 년간 눈에 띄게 감소했고 EU가 2015년 수출 세입의 3분의 1 이상을 점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도 불구하고 2015년 우크라이나 수출에서 러시아 연방이 1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튀르키예(7.3%), 중화인민공화국(6.3%), 이집트(5.5%), 이탈리아(5.2%)가 그 뒤를 이었다. 수입은 주로 EU(2015년 41%)와 CIS 국가(28%)에서 온다." [115] (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우크라이나 수출 추이, 1996-2015년 [116]



2014/15년 돈바스 전쟁 이후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에 무역과 여행 제한을 가하면서 동측 시장(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졌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의 이들 국가에 대한 기계 제조 제품 수출은 2013년에서 2018년 사이에 514만 4천 달러나 급감했다. 우크라이나가 다른 나라(EU, 중국, 미국)로 그러한 제품 수출을 늘릴 수는 있지만, 이것으로 동측 시장의 큰 손실(+8억 6300만 달러)을 메울 수는 없었다.[117]

외국인투자에서도 비슷한 그림을 볼 수 있다. 유럽과 러시아 기업 모두 우크라이나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마르코 보즈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 민간 투자자들은 생산적 부문에서 서방 투자자들보다 유리한 출발을 했다. 2008년까지 그들은 이미 비철금속, 석유 정제, 석유 화학, 이동 통신 분야에서 관세고지를 차지했고 철강과 유제품 산업에서 강력한 입지를 다졌다. 공황으로 러시아 투자자들이 새로운 자산을 사들일 수 있게 됐다. 러시아 국영은행 브네세코눔뱅크는 2008년 말 경영난에 봉착한 프롬인베스트뱅크의 지분 75%를 인수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브네세코눔뱅크는 철강 생산업체 돈바스 공업연합의 과반수 소유권을 차지하기 위한 러시아 민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입찰을 지지했다." [118]

동시에 유럽 자본가들은 은행 부문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했다. 2008년까지 EU 6개 회원국의 은행들이 은행 자본의 30%를 보유한 반면 러시아에 본사를 둔 금융기관들은 10%를 보유했다.[119] 2008년 공황 이후 유럽의 점유율은 다소 하락한 반면 러시아 자본의 점유율은 12%로 상승했다. 동시에 다른 6%는 러시아 자본수출 목적으로 잘 알려진 키프로스가 형식적인 발원지로 되어 있어 키프로스 외국인 투자의 상당 부분은 러시아가 발원지일 공산이 매우 컸다.[120] 2014

년까지 총 은행 자산에서 비러시아계 외국 은행의 비중은 2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러시아계 은행의 비중은 16%로 증가했다.[121]

러시아 기업과 유럽 기업의 그러한 강력한 경제적 지위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동반한 것은 그리 놀랄 것이 없다. 푸틴 정권은 2000년 11월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분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가부채를 이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분 인수 거래에 동의하도록 했다. 마르코 보스쿰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 인수 거래는 러시아 기업들이 중유럽과 서유럽으로 가는 우크라이나 가스 수송 파이프라인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한편, 다른 러시아 기업들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큰 지분 내지는 지배지분을 거머쥐고 있었다. 아브토자즈는 자포르리즈히아 알루미늄 공장을 사들였고, 루코일은 오데사 정유공장을 매입하여 칼루시 정유공장과 합작회사를 설립했으며 우크라이나 주유소 100곳을 매입할 계획이었다. 튜멘 석유회사는 리시찬스크 정유공장과 TV방송국을 사들였고, 금속 대기업 러시아알루미늄은 미콜라이프알루미늄 공단을 인수했고, 메탈러시아는 도네츠크 금속 공단에 투자했으며, 얼라이언스그룹과 알파나프타와 타트나프타는 각각 헤르손, 나드비마, 크레멘추크 정유공장 민영화에 참여하고 있다." [122]

2010년 4월에 비슷한 거래가 체결되었는데 이름하여 하르키우 협약이다. 이 조약은 가스를 보다 싸게 공급해주는 대가로 러시아 해군에 세바스토폴 항구와 그 밖의 크림반도 항구들의 임대를 204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거래였다. 같은 해 6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나토 가입 목표를 국가안보전략에서 제외했고, 그리하여 비동맹국 지위를 복원했다. 나아가 야누코비치 정부는 가스, 방산, 항공우주, 항공 산업에서 양국 간 보다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협상에 동의했다.[123]

마찬가지로 서방 열강들도 우크라이나를 통제 하에 두기 위해 영향력을 사용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주민 사이에 거의 지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나토 가입을 신청했다. 또 2012년에는 EU와 협상을 시작하여 2014년에 "EU-우크라이나 연합 협정"을 체결했다. 실제로, EU와의 연합 문제는 야누코비치 정부 타도를 내건 우익 마이단 운동의 핵심 슬로건이었다. 당시 야누코비치 정부는 EU와의 협상을 취소하고 러시아 주도의 연합체 — 이후 “유라시아경제연합”으로 불리게 되는 연합체 — 와 협정을 모색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EU (및 미국) 양측의 이러한 시도는 2014년 이래로 우크라이나에 파멸적인 사태발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2014년 이래의 충돌로 최소 10,000명이 사망하고 23,500명이 부상을 입었다. 약 백만 명이 국내 난민이 되었다.

친러 세력이 2014년 돈바스 지역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여 이 지역 자원 통제권을 푸틴 정권에게 사실상 넘겨줬다. 이때부터 도네츠크의 산업 생산능력의 약 78%, 루한스크의 약 84%가 정부 통제 지역 밖에 있게 됐다.[124]

요약하자면, 우크라이나는 수년 이래로 계속 가속화하고 있는 분쟁 속에 있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찢겨진 반식민지 나라다. 이들 열강 — 주로 러시아와 EU (+미국) — 은 최대한 우크라이나의 자원을 착취하고 동시에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세력권 아래에 두기 위한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를 벌이다 마침내 푸틴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까지 온 것이다.

6. 2022년 2월 이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식민지화 몰이와 나토의 영향력 확대 시도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새로운 상황을 열었다.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예측시켜 식민지로 전화시키려는 직접적인 시도다. 이 침략 전쟁이 주민을 야만적인 민족 억압의 위협에 나서서 저항하도록 결집시킨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귀결이다. 전쟁 시작 전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들 사이에 러시아 친화적인 부분이 존재했지만 (그러나 그 부분은 이 지역 내에서도 소수자였고, 결코 푸틴주의자들이 즐겨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각한 민족 억압을 받고 있지도 않았다 [125]),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오늘, 우크라이나 인민은 그들의 나라가 러시아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기로 결심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미 많은 문서를 통해 제시해온 전쟁에 대한 평가 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보다는 우크라이나의 향후 전망에서 전쟁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결과를 요약 제시하는 데 국한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모든 종류의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이리저리 추측하는 식의 무익한 시도는 지양하고, 우리가 볼 때 우크라이나의 미래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 몇 가지 기본적인 발전 방향을 개괄해보고자 한다.

우리가 이미 최근에 낸 두 기사에서 지적했듯이, 현 전쟁이 우크라이나의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126] 우리는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예측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사회 전체의 파멸로 이어질 위기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계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경제는 2022년에 약 35% 축소됐다. 나라의 기반시설이 계속되는 러시아 미사일 및 드론 공격으로 많은 부분 파괴되었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거대하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근 나온 평가에 따르면

교량 305곳, 공항 19곳, 철도역 57곳, 도로 2만4000km를 포함하여 주택 40%, 발전소 30%, 기반시설 33%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더해 러시아가 4,000개의 통신국, 6만 킬로미터의 인터넷 회선, 18개의 텔레비전·라디오 방송 안테나를 탈취 또는 파괴했다.[127]

당초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는 전쟁 전 경제 규모의 1.5배가 넘는 수준인 최소 349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부총재는 최근 오스트리아 신문 디 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평가를 업데이트하며 5,250억 달러에서 6,300억 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128] 또 다른 연구보고서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1조 달러까지 추정한다!

자연히 이런 대규모 파괴는 재앙적인 사회적 결과를 낳는다.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에 처한 우크라이나인 수가 2023년 말까지 인구의 약 50%에 도달할 것이다!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립은행은 2022년 2분기에 실업률이 35%에 달했다고 보고했다.

우리가 이미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1991년에서 2020년 기간에 5~6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떠났다. 현 전쟁은 이 숫자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 최신 수치에 따르면, 인구의 3분의 1이 2022년 2월 이래로 난민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내에 650만 명, 다른 유럽 나라들에 약 80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있다. 파괴적인 전쟁이 계속된다면 이 수치는 더 증가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인민에게 당장의 위험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의한 잔학한 점령과 식민지화 위협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방 제국주의에 의한 위험을 무시하기란 불가능하다. 나토 국가들의 재정적·군사적 원조는 우크라이나를 종속국으로 만드는 수단이다. 우크라이나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무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은 분

명하다. 그러나 미국-유럽 제국주의가 그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어떠한 형태의 원조도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그들의 시종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가 내부에서 그들에게 조력하고 있다.

외채는 확실히 우크라이나의 예속을 심화시키기 위한 서방 제국주의의 핵심 도구 중 하나다. 현재 우크라이나 부채의 정확한 수치는 분명하지 않지만, GDP 대비 외채 비율이 풍선처럼 부풀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경제의 광범위한 파괴를 고려할 때, 전쟁이 곧 끝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제국주의 금융기관에 부채를 상환할 위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국주의 "우방들"은 그러한 상황을 냉혹하게 이용하여 지분 인수 거래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 푸틴이 2000년과 2010년에 우크라이나에 강요한 것과 비슷하게 — 우크라이나 경제의 가장 값나가는 부분들의 소유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미 미국의 몇몇 싱크탱크들은 우크라이나의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서방 독점체들에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플랜을 짜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영향력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키이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신자유주의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며 그에 대한 일련의 권고안을 포함하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CSIS 연구보고서의 주요 제안 중에는 아직 남아 있는 국유은행을 마저 민영화(사유화)하라는 권고안이 있다. "우크라이나 은행들이 국제 금융기구(IFI)의 지원을 얻고 국가 차원의 일반적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은행권의 더 많은 민영화에 힘써야 한다. 2020년 상위 5개 대형 은행 중 4개 은행이 국유였다.... 이들 은행은 우크라이나 은행권 전체 자산의 54%를 점했다." [129] "부패를 줄이고 경제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OECD 원칙에 맞춰 계속해서 국유

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이 단계는 2021년에 통과된 산업 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을 전면 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크라이나는 이 위험 부문 [은행 부문]에 대한 정부의 노출을 줄이고, 부실 대출을 최소화하여 기업이 다시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동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 부문의 자본 재편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은행 산업의 지속적인 민영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악성 부채를 제거하고 부채 해결, 재구성을 위한 "배드뱅크"[부실채권전담은행]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130]

이 미국 싱크탱크가 서방 기업들에게 매우 가치 있다고 여기는 두 번째 부문은 토지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농업 생산국으로 농산물 수출이 중요한 수입원이 됐다. 그리하여 CSIS는 민영화 과정에 더욱 속도를 낼 것, 그리고 이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법적 가능성을 열어줄 것을 제안한다.

"토지 개혁은 우크라이나와 그 투자 파트너들이 농업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의를 집중해야 할 분야 중 하나다. 우크라이나 농지의 약 27%는 소유권이 분명치 않다. 전쟁 전에는 이 농지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중단되었다. 2020년 3월, 우크라이나는 농지 매각 유예를 해제하고 이 시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법을 채택했다. 농지 시장을 1990년대 초에 처음 사유화된 2,800만 헥타르 토지로 제한하고 있는 새로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농지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토지 매입은 100 헥타르로 제한되며, 2024년 1월까지 개인에 한해 매입이 가능하다. 이후 합법적으로 등록된 우크라이나 기업은 최대 1만 헥타르의 토지를 매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매각은 여전히 금지돼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은 토지 개혁이 농업 부문에 최대 5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131]

CSIS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은 서방 제국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또 다른 미국 싱크탱크 — 저먼마셜펀드(GMF) — 의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재건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상 우크라이나 경제를 장악한다는 의미다). GMF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미국의 힘과 위신을 이용해 세계적인 재건 동맹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제1대 재건 기획조정자는 세계적인 위상을 가진 미국인이어야 한다.... 후속 조정자는 장기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EU의 책임이 커지는 것을 반영하여 유럽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132]

이러한 미국인 “재건 기획조정자”가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G7/EU 공동 사무국을 통해 재건 노력을 지휘감독 해야 한다.”[133] 나아가 이들 서방 제국주의 전략가들은 필요한 개혁이 시행된 후 우크라이나는 “10-15년의 시한” 내에 유럽연합의 정식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134]

우리는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에 대한 몇 마디로 이 장을 마무리할 것이다. 첫째, 러시아가 대부분 적대적인 주민을 상대로 잔인한 무력을 사용함으로써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모스크바가 우크라이나 내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구 돈바스 “인민공화국들”의 마름들과 같은 소규모 세력뿐이다. 러시아는 2001년과 2003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식민지 사업들을 벌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점령 통치에 대한 현지의 지지를 전혀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러시아군의 승리라는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점령군은 즉시 대규모 게릴라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해서는 점령군이 얼마 전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의 점령지에서 쓴맛을 본 바 있다.

또 다른 가능한 시나리오는 전쟁이 교착 상태로 끝나서 나라가 — 남

북한처럼 — 두 지역으로 분단되는 경우다. 이 경우에서도 위와 같은 게릴라전 시나리오를 보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에 국한된 게릴라전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분단의 경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에 주둔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서방 열강을 러시아 침략자에 대항하는 동맹으로 (그릇되게) 보고 있어 이 군대가 처음에는 러시아 군대와 같은 정도의 대중적 적대에 안 부닥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나토 지상군 수용 입장은, 이러한 군대가 — 러시아군에 맞서 싸우는 것을 대신해서 — 젤렌스키 (또는 다른 꼭두각시) 서방 마름 정부 보호를 위한 군대로 봉사할 경우 빠르게 바뀔 수 있다. 우크라이나 인민이 살아야 할 극심한 빈곤 상황을 고려할 때, 그리고 미국·EU 제국주의가 우크라이나의 가장 값나가는 생산물을 전유하려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인민대중이 키이우의 친서방 정부에 반기를 들어도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략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노동자들이 그러한 승리를 노동자독자 세력화로 옮겨놓을 수 있는지, 즉 올리 가르히와 외국 독점체를 몰수·수탈하고 노동자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이러한 자신의 무기를 사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망을 제창하고, 내외 자본가들과 정치가들이 인민의 승리의 과실을 훔치려 할 때 대중이 소모전에 지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힘 쓸 것이다.

이로부터 이 주제에 대한 마지막 관측으로 넘어가자. 전쟁이 지속되는 한 서방 열강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겠다는 그 어떤 노력도 환상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비록 어느 시점에 휴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해도, 상황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것은 1995년 나토와 EU 군이 보스니아 인민에 대한 세르비아 밀로셰비치 정권의 반동 전쟁을 중단하도록 강제할 수 있었던 데이튼 협정 이후의 보스니아가 아니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상황에서 서방 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과의 냉전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 기적을 이룬 것과 같은 것을 우크라이나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이다! 첫째, 당시 제국주의 국가들과 스탈린주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냉전 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다. 현 시기 동서 제국주의 열강 간의 패권경쟁은 훨씬 더 위태롭고 폭발적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 순진하게 우크라이나의 "한국식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태발전의 경로·과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잊지 말아야 한다. 한국은 1940년대 말 미군정 이후로 1990년대 초까지 군사독재로서, 모든 형태의 대중 시위와 항쟁이 잔인하게 진압되었고 대중은 수십 년 동안 빈곤 속에서 살았다. 오랜 기간이 지나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대규모 서방 투자와 그로부터의 공업화가 ("한국식 미래"를 바라는 순진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종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135]

7. 전진하는 길: 민족해방에서 사회혁명으로

우리는 이 팸플릿에서 1991년 스탈린주의 붕괴 이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EU,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초과착취하고 지배하는 자본주의 반식민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제국주의 나라들의 독

정체들은 우크라이나판 매판 부르주아지라고 할 수 있는 부패한 올리 가르히(과두재벌)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를 약탈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빈곤해졌고, 러시아와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 되기 훨씬 전에 이미 인구가 감소했다. 우크라이나는 국제 금융기관에 많은 부채를 지고 있고 외국 기업들에게 경제를 개방하도록 강요 되어 왔다. 1980년대 말까지 상당히 발달한 제조업 기반은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경과하면서 크게 축소되었다.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는 자본주의 세계시장을 위한 반식민지 원료 공급자가 되었다. 또 수백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나라를 떠나 국외에서 값싼 이주 노동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반식민지적 기형화와 종속이 시작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형식적으로 독립국이 된 직후부터였다. 즉 2014년 이래 사태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시에 푸틴의 침공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은 분명하다. 푸틴은 반식민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제국주의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파시키겠다고 위협한다.

푸틴의 침공에 대하여 우크라이나 인민을 방어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간섭 일체에 반대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최우선 임무다.

첫 장에서 말했듯이 맑스주의 제국주의 이론과 이 이론에 의한 국가간 관계에 대한 분석 없이는 격동의 세계정세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레닌이 그의 <<철학 노트>>에서 지적했듯이, 범주가 없는 과학은 없다. “개념(인식)은 존재의(직접적 현상의) 본질(인과 법칙, 동일성, 차이 등)을 드러낸다. 그러한 것이 모든 인간 인식(모든 과학) 일반의 일반적 경로다.”[136]

RCIT는 계급투쟁에서 — 그리고 이 계급투쟁의 일부인 민족해방 전쟁에서 — 올바른 입장을 취하기 위해, 관련 제 세력의 계급적 성격에 대한 과학적 평가분석이 필수임을 항상 강조해왔다. 여기서 우리는 레닌과 트로츠키가 국가의 계급적 성격을 인식하는 것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정립한 맑스주의 접근법을 따른다.

"노동자들에게 국가 — 제국주의 국가, 식민지 국가, 노동자 국가 —의 계급적 성격 및 이 국가들 간의 상호 관계, 그리고 그들 각개의 내적 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137]

지금까지의 우크라이나 반식민지 사회성격에 대한 평가 분석에 입각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관점을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이 팸플릿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첫째, 우크라이나 인민은 어떠한 수단으로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이 옳다. 제국주의 점령과 민족 억압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전쟁은 정의의 투쟁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정의의 투쟁이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무기를 얻으려는 우크라이나 인민의 노력을 지지한다.

2. 우크라이나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것은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의 최우선 임무다.

3. 우크라이나의 노동자-피억압자는 부르주아 젤렌스키 정부도, 나토 제국주의도 일체 신뢰해서는 안 된다. 노동자-피억압자는 자신의 통제 하에 민족해방 투쟁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독자적인 민중 평의회와 민병을 창설하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

4. 우크라이나의 사회주의자들은 서방 열강에 의한 모든 형태의 간섭과 직간접적 지배에 반대해야 한다. 사회주의자들은 EU나 나토 가입으로 가는 어떠한 발걸음에도 반대해야 한다. 또 사회주의자들은 정부에 모든 외채 무효화를 요구해야 한다.

5. 전 세계의 사회주의자들, 특히 서방 나라들의 사회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의 모든 외채 무효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자들은 또 나토와 EU 확대에 반대해야 한다.

6. 러시아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 스탈린주의 KPRF(러연방공산당)와 RKR(러시아 공산주의노동자당) 등 사회애국주의자들과는 달리 — 자국 정부의 패배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러시아의 진짜 사회주의자들은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대중시위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이 시위를 푸틴 정권에 대한 인민 반란으로 전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7. 마찬가지로 전 세계 사회주의자들은 러시아의 반전 운동과 특히 반제국주의 사회주의자들을 지지해야 한다.

8. 우크라이나에서의 전략적 목표는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투쟁과, 젤렌스키 정부 및 나토의 우크라이나 간접 지배에 대항하는 독립노동자 투쟁을 결합하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자들은 민족해방 투쟁을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그리고 서방 열강과는 독립적인 인민전쟁으로 전화할 것을 제창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에서 사회혁명과 노동자-민중 정부 수립을 제창해야 한다.

9. 그러한 노동자-민중 정부는 모든 점령군이 축출될 때까지 러시아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다. 동시에, 서방 열강의 간섭에 반대할 것이다. 노동자-민중 정부는 올리가르히와 외국 독점체들을 몰수·수탈

할 것이다. 민주적으로 계획된 경제가 전쟁과 나라의 생존 (및 이후의 재건)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노동자 통제 하에 공업, 서비스, 금융, 농업 등 기간산업 핵심 부문들을 국유화할 것이다. 점령군과 올라가르히 없는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의 깃발을 들어 올릴 것이다!

10. 나아가 그러한 노동자·민중 정부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피억압자의 투쟁을 지지할 것이다. 러시아 내 체첸인, 시리아 인민, 영국과 프랑스의 파업 노동자들, 페루의 민중 등, 자신의 권리를 위해 싸우는 이들 대중이 바로 우크라이나 대중의 자연스런 동맹군이다. 나토 수장들과 서방 자본가들, 언제나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이윤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없을 것이라곤 자신을 묶고 있는 사슬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의 대중들이여!

우크라이나를 방어하자! 푸틴의 침략을 패퇴시키자!

우크라이나 외채의 무효화!

점령군과 올라가르히 없는 독립·사회주의 우크라이나 쟁취!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국제 사회주의/세계 프롤레타리아 혁명 만세!

[1] 이에 대해서는 우리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보고를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workers-aid/>. 다음 국제노동자원조 캠페인 웹사이트도 보라. www.workers-aid.net. 다음도 보라. An Inspiring Internationalist Rally against Russian Imperialism. Syrian, Chechen and Ukrainian migrants as well as “Russians against War” jointly demonstrate against the Putin regime, 25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internationalist-rally-against-russian-imperialism-25-9-2022/>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대한 160여 편의 문서가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 정리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특히 다음 문서를 보라. < [RCIT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 전환점에서 사회주의자들의 임무>, 2022년 3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rcit.html>.

[3] 예를 들어 2015년 이래 시리아에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Defend the Syrian Revolution against Russian Imperialism! Stop the US, UK and French Air Strikes! Smash the Assad Dictatorship! 9.10.2015, <https://rcitarchive.wordpress.com/worldwide/africa-and-middle-east/defend-syria-against-russia/>; Rally on the 11th Anniversary of the Syrian Revolution 2011, 2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rcit/rally-on-11th-anniversary-of-syrian-revolution-20-3-2022/>. RCIT는 시리아 혁명에 관한 다수의 책자와 논설,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서 이 문서들을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syrian-revolution/>

[4] 다음을 보라. RCIT: Solidarity with the Liberation Struggle of the Chechen People! Open Letter to the Oppressed Chechen People, February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solidarity-with-the-liberation-struggle-of-the-chechen-people/>; Where does the RCIT Stand on Russia's Occupation of Chechnya?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russia-and-chechnya/>; Chechnya: Rally against the Murder of Mamikhan Umarov by the Russian Security Service, 7 July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europe/chechnya-rally-against-the-murder-of-mamikhan-umarov-by-the-russian-security-service/>

[5] RCIT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

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21,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이 논문은 다음 잡지에도 실렸다. International Viewpoint, 21. April 2022, <https://internationalviewpoint.org/spip.php?article7618>);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6] 우리의 다음 책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팜플렛들도 보라. <푸틴의 푸들들 -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서 친러 스탈린주의 당들>, 2022년 2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7.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2021년 7월 1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7] 제국주의 이론과 그것이 21세기 자본주의 분석에서 갖는 적실성을 다룬

우리의 다음 두 저작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이후 주에서는 모두 “Pröbsting, 2013”으로 줄여서 표기함);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반식민지 나라들에 대한 사례 연구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Greece: A Modern Semi-Colony. The Contradictory Development of Greek Capitalism, Its Failed Attempts to Become a Minor Imperialist Power, and Its Present Situation as an Advanced Semi-Colonial Country with Some Specific Features, RCIT Books, Vienna 2015,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ece-semi-colony/>; Is Türkiye a (Sub-)Imperialist Power?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features of the Turkish state, its class character and the programmatic consequences for socialists. A contribution to an ongoing debate amongst Marxists, 25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is-tuerkiye-a-sub-imperialist-power/>; Is India a New Emerging Great Power?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ume 48, Issue 1, 2020 <https://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9.1706783>; The China-India Conflict: Its Causes and Consequences, Chapter V, August 201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ndia-rivalry/>

[8] 제국주의에 대한 레닌의 가장 중요한 저작으로는 다음을 보라.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내의 분열>, 레닌전집 64권 (“암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제국주의,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 레닌전집 63권, 이정인 옮김, 아고라.

[9] 레닌,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와 민족자결권>, 레닌전집 60권 (“사회주의와 전쟁”), 양효식 옮김, 아고라, 244-5쪽.

[10] V. I. Lenin: Conspectus of Hegel's Science of Logic (1914); in: Collected Works Vol. 38, p. 220

[11] Karl Marx: Capital, Vol. III, MECW Vol. 37, p. 311

[12] 트로츠키의 다음 언급을 보라. “단연 인류의 대부분을 포괄하는 식민지·반식민지 나라들은 — 따라서 후진국들은 — 유목생활부터, 심지어는 식인풍 습부터 가장 현대적인 산업 문화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사다리를 이를 만큼 후진성의 정도에서 서로 간에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저런 식으로 양극단의 조합이 모든 후진국의 특성을 이룬다. 그러나 후진성의 위계는 — 이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면 — 각개의 식민지 나라의 삶에서 야만 요소와 문화 요소의 구체적인 비중에 의해 결정된다. 적도 아프리카는 알제리보다, 파라과이는 멕시코보다, 아비시니아는 인도나 중국보다 훨씬 뒤쳐져 있다. 제국주의 중심부에 대한 공통의 경제적 종속과 함께 그들의 정치적 종속은, 어떤 경우에는 공공연한 식민지 노예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반면 (인도, 적도 아프리카), 다른 경우에는 이 종속이 국가 독립의 허구에 의해 은폐된다 (중국, 라틴아메리카).” (Leon Trotsky: Introduction, in: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이 쓴 <<중국 혁명의 비극 (정원섭, 김명환 공역, 숨쉬는책공장)>> [1938년]에 붙인 트로츠키의 서문 <http://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8/xx/china.htm>)

[13] Pröbsting, 2013, p. 228

[14] V.I. Lenin: *Conspectus of Hegel's Lectures on the History of Philosophy*; in: LCW 38, p. 256

[15]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Science of Logic*, (Translated by A.V. Miller), Humanity Books, New York 1969, p. 826

[16] 다음을 보라. Joseph Stalin: *The October Revolution and the Tactics of the Russian Communists (1924)*, in: J. V. Stalin Works, Vol. 6,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Moscow 1953, pp. 374-420; “일국 사회주의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을 보라. 트로츠키, <<레닌 이후의 제3인터내셔널>>, 정민규 옮김, 풀무질; 다음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Capitalism Today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The Marxist Tradition and its Application in the Present Historic Period*, in: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 44, Issue 4, 2016, <http://www.tandfonline.com/doi/full/10.1080/03017605.2016.1236483>

[17] 트로츠키, <<영구혁명 및 평가와 전망>>, 장성진 옮김, 신평론,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1/tpr/pr-index.htm>

[18] 스탈린주의 독재에 대한 우리의 분석 및 비판으로는, 우리의 전임 조직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연맹”이 발행한 다음 책을 보라. *The Degenerated Revolution: The Origin and Nature of the Stalinist States*,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alinism-and-the-degeneration-of-the-revolution/>; 다음 책의 II장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Cuba's Revolution Sold Out? The Road from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Capitalism*, RCIT Books, Vienna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uba-s-revolution-sold-out/>

[19] 다음을 보라. 트로츠키, <<배반당한 혁명>>, 김성훈 옮김, 갈무리, <https://www.marxists.org/archive/trotsky/1936/revbet/index.htm>

[20] 이 과정에 대한 우리의 평가분석으로는, 우리의 전임 조직의 다음 문서들을 보라. *Theses on Gorbachev*, adopted by the MRCI conference, July 1987,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nker_30; LRCI: *The Failed Coup in the USSR* (August 199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archive-documents-from-the-lrci-and-lfi/#anker_5

[21] Hans Van Zon, Andre Batako, Anna Kreslavska: *Social and Economic Change in Eastern Ukraine. The example of Zaporizhzhya*, published in 1998, reissued 2018 by Routledge, New York 2018, p. 164 (이후 주에서는 “Zon”으로 줄여서 표기함).

[22] UNIDO: *Ukrain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cent Work and Economic Growth*, 2019, p. 8 (henceforth referred to as “UNIDO”)

[23] Anastasia Nesvetailova: *From ‘Transition’ to Dependent Development: The New Periphery in Global Financial Capitalism*, in: Neil Robinson (Ed.): *Reforging the Weakest Link.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Post-Soviet Change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Routledge, New York 2019, p. 147

[24] 다음도 보라. Oleksandr Petryk: History of Monetary Development in Ukraine, Bank i Kredyt Nr. 8, 2006, p. 12

[25] 1999년 수치는 다음에서 따온 것이다. Marek Dabrowski and Malgorzata Jakubiak: The Sources of Economic Growth in Ukraine after 1998 Currency Crisis and the Country's Prospects, Center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CASE Reports No. 55, Warsaw 2003, p. 9; 2006년 수치는 다음에서 따온 것이다. Vasily Astrov and Peter Havlik: Economic Developments in the Wider Black Sea Region, in: Daniel Hamilton and Gerhard Mangott (Eds.): The Wider Black Sea Region in the 21st Century: Strategic, Economic and Energy Perspectives, Center for Transatlantic Relations, Washington, D.C. 2008), p. 123; 2013년 및 2018년 수치는 다음에서 따온 것이다. UNIDO, p. 9

[26] Robert S. Kravchuk: Ukrainian Political Economy. The First Ten Years, Palgrave Macmillan, New York 2002, p. 14 (이후 주에서는 “Kravchuk”로 줄여서 표기함).

[27] Nadia Lisovskaya: Merchandise Foreign Trade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in: Neil Robinson (Ed.): Reforging the Weakest Link.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Post-Soviet Change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Routledge, New York 2019, p. 86 (이후 주에서는 “Lisovskaya”로 줄여서 표기함).

[28] 공식 경제 통계에서는 공업 부문에 제조업 외에도 건설, 광업, 전기, 석유, 가스 등도 포함하고 있다.

[29]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21, Data are from Excel file,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30] Kravchuk, p. 27

[31] Marko Bojcun: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Ukraine. Selected Essays 1990–2015, ibidem-Verlag, Stuttgart 2020, p. 158 (이후 주에서는 “Bojcun,

2020”으로 줄여서 표기함).

[32] OECD: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Ukraine 2016, OECD Publishing, Paris 2016, <http://dx.doi.org/10.1787/9789264257368-en>, p. 37 (이후 주에서는 “OECD 2016”으로 줄여서 표기함).

[33] Andriy Hladun, Vitaliy Dudin, Oksana Dutchak, Oleksandr Kravchuk, Mykhaylo Neboha, Oleksandr Odosiy, Zakhar Popovych: Alternative Mechanisms for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Ukraine,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Kyiv 2016, p. 57 (이후 주에서는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로 줄여서 표기함).

[34] Zon, pp. 126-132

[35] World Bank: Life expectancy at birth, total (years) – Ukrain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LE00.IN?locations=UA>

[36] World Bank: Death rate, crude (per 1,000 people) – Ukrain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CDRT.IN?locations=UA>

[37] World Bank: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 Ukrain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UA>

[38] John P Ruhl: How many Ukrainian refugees will return home? January 14, 2023 <https://asiatimes.com/2023/01/how-many-ukrainian-refugees-will-return-home/>

[39] OECD: Maintaining the Momentum of Decentralisation in Ukraine, OECD Multi-level Governance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2018, <http://dx.doi.org/10.1787/9789264301436-en>, p. 50 (이후 주에서는 “OECD 2018”로 줄여서 표기함).

[40] Kravchuk, p. 22

[41] Kravchuk, pp. 23-24

[42] Conor M. Savoy, Janina Staguhn: Enabling an Economic Transformation of Ukraine Recovery, Reconstruction, and Modernization,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 2023, A Report of the CSIS Ukraine Economic Reconstruction Commission, p. 13 (이후 주에서는 “CSIS”로 줄여서 표기함).

[43] CSIS, p. 13

[44] Kravchuk, p. 27

[45]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113

[46]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 저작을 통해 다룬 바 있다. 상기한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중 다음 두 장을 보라. “자본수출과 라운드트립핑 해외직접투자 문제” 및 “유령 FDI: 러시아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47]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132

[48] Oleh Havrylyshyn: The Political Economy of Independent Ukraine. Slow Starts, False Starts, and a Last Chance? Palgrave Macmillan, London 2017, pp. 214-215 (이후 주에서는 “Havrylyshyn”으로 줄여서 표기함).

[49] Havrylyshyn, p. 238

[50] Marko Bojczun: Trade, Investment and Debt: Ukraine’s Integration into World Markets, in: Neil Robinson (Ed.): Reforging the Weakest Link. Global Political Economy and Post-Soviet Change in Russia, Ukraine and Belarus, Routledge, New York 2019, p. 53 (이후 주에서는 “Bojczun, 2019”로 줄여서 표기함); Kravchuk, p. 30

[51] Havrylyshyn, pp. 100-101

[52] Anton Oleinik: Building Ukraine From Within. A Sociologic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Analysis of a Nation-State in the Making, ibidem-Verlag, Stuttgart 2018, p. 340 (이후 주에서는 “Oleinik”로 줄여서 표기함).

[53] Lisovskaya, p. 86

[54] 같은 글, p. 88

[55] OECD 2018, p. 49; OECD 2016, <http://dx.doi.org/10.1787/9789264257368-en>, p. 34

[56] CSIS, p. 17

[57] OECD 2018, <http://dx.doi.org/10.1787/9789264301436-en>, p. 49

[58] 같은 글, p. 49

[59] Sławomir Matuszak: In search of new routes. Ukraine's foreign trade after the Revolution of Dignity, Osrodek Studiów Wschodnich im. Marka Karpia, Centre for Eastern Studies, OSW Studies Number 75, Warsaw 2018, p. 18

[60] David X. Noack: Hardliner, Neoliberale, Oligarchen: Der fragwürdige Erfolg der Ukraine, 2. January 2023, <https://www.heise.de/tp/features/Hardliner-Neoliberale-Oligarchen-Der-fragwuerdige-Erfolg-der-Ukraine-7445797.html>

[61]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72

[62] CSIS, p. 19

- [63] UNIDO, p. 14
- [64] Bojcun, 2020, p. 158
- [65] Bojcun, 2020, p. 99
- [66] Oleinik, pp. 344-345
- [67]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71
- [68]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68
- [69] Havrylyshyn, pp. 242-243
- [70] Pröbsting, 2013의 6,7장 및 8장을 보라.
- [71] Bojcun, 2020, p. 213
- [72] Kravchuk, p. 33
- [73] Bojcun, 2019, p. 56
- [74]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12
- [75] 같은 글
- [76]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13
- [77] Center for Social and Labor Research, p. 15
- [78] Bojcun, 2020, p. 223
- [79] Marko Bojcun: Origins of the Ukrainian Crisis, in: Critique, Vol. 43, Nos.

3-4, 2015, p. 404 (henceforth referred to as “Bojcun, 2015”)

[80] OECD 2016, p. 30

[81] Worldbank: Central Government Debt (1970-2020), Ukraine, 데이터는 다음 엑셀 파일에서 따온 것이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GC.DOD.TOTL.GD.ZS>

[82] Worldbank: External Debt Stocks (% of GNI), Ukraine, 데이터는 다음 엑셀 파일에서 따온 것이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DT.DOD.DECT.GN.ZS>

[83] Worldbank: External Debt Stocks (% of GNI), Ukraine, 데이터는 다음 엑셀 파일에서 따온 것이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DT.DOD.DECT.GN.ZS>

[84]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미하엘 프리브스팅, <제국주의 부채의 덫에 걸린 우크라이나 - 우크라이나 외채 무효화! 침략에 맞선 인민 전쟁으로 나아가자!>, 2022년, 7월 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_11.html

[85] Heidi Chow: It's Time to Cancel Ukraine's Foreign Debt, 06.04.2022, <https://jacobin.com/2022/03/ukraine-foreign-debt-cancellation-imf-global-finance>

[86] Kravchuk, p. 30

[87] Kravchuk, p. 257

[88] OECD: OECD Territorial Reviews: Ukraine 2013, OECD Publishing, 2014, <http://dx.doi.org/10.1787/9789264204836-en>, p. 34

[89] OECD 2016, p. 42

[90] Bojcun, 2020, p. 221

[91] Bojcun, 2020, p. 243

[92] Bojcun, 2015, pp. 403–404

[93] OECD 2016, p. 138

[94] OECD 2016, pp. 49–50

[95] OECD 2016, p. 18

[96] OECD 2016, p. 50

[97]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Ukraine 2011,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OECD Publishing 2011, <http://dx.doi.org/9789264113503-en>, p. 19

[98] OECD 2016, p. 17

[99] OECD 2016, p. 48

[100] 반식민지 문제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그리스, 튀르키예, 인도에 관한 우리의 책자들을 보라.

[101]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p. 210

[102]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2022, p. 214

[103] 상기한 우리의 책 <<남반구에 대한 대 강탈>>에서의 광범위에 걸친 분석 이외에 이주자 초과착취에 대한 다음의 우리 책자도 보라. Michael Pröbsting: Marxismus, Migration und revolutionäre Integration (2010); in: Revolutionärer Kommunismus, Nr. 7,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werk-7>. 같은 저자의 다음 글도 보라. Migration and Super-exploitation:

Marxist Theory and the Role of Migration in the present Period of Capitalist Decay, Critique: Journal of Socialist Theory, Vol. 43, No 3-4 (2015), <http://www.tandfonline.com/doi/abs/10.1080/03017605.2015.1099846>

[104] I. I. Rubin: Essays on Marx's Theory of Value (1928), Black Rose Books, Montreal 1990, p. 165

[105] 푸틴과 반우크라이나 배외주의에 대해서는 상기한 프리브스팅, <푸틴의 푸들들>을 보라.

[106] 다음에서 인용. Konstantyn Kononenko: Ukraine and Russia. A History of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Ukraine and Russia (1654-1917), The Marquette University Press, Milwaukee 1958, p. 32

[107] Iryna Lapshyna: Ukraine – Emigration and Displacement in Past and Present, 08.07.2022,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ttps://www.bpb.de/themen/migration-integration/laenderprofile/english-version-country-profiles/510002/ukraine-emigration-and-displacement-in-past-and-present/> (이후 주에서는 “Lapshyna”로 줄여서 표기함).

[108]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20, p. 26 and 281

[109] CSIS, p. 19

[110] Paul J. J. Welfen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Economic Challenges, Embargo Issues, and a New Global Economic Order, Europ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Palgrave Macmillan, Cham 2022, https://doi.org/10.1007/978-3-031-19138-1_13, p. 247

[111] UN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World Migration Report 2020, p. 88

[112] Lapshyna

[113] Bojcun, 2020, p. 158

[114] Havrylyshyn, p. 239

[115] OECD 2018, p. 48

[116] OECD 2018, <http://dx.doi.org/10.1787/9789264301436-en>, p. 49

[117] UNIDO, p. 15

[118] Bojcun, 2020, p. 246

[119] Bojcun, 2015, p. 403

[120] Bojcun, 2015, pp. 403-404

[121] OECD 2016, p. 49

[122] Bojcun, 2019, pp. 54-55

[123] Bojcun, 2015, p. 405

[124] OECD 2018, <http://dx.doi.org/10.1787/9789264301436-en>, p. 61

[12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테제, <“돈바스 자결”: 러시아 제국주의에 봉사하는 반동 슬로건 - 왜 이 슬로건이 맑스주의 민족자결 강령에 반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현 민족해방투쟁의 이익에도 반하는지, 그 역사적·이론적·정치적 이유에 대하여>, 2022년 6월 27일, <https://blog.wrpkorea.org/2022/07/blog-post.html>.

[126] 다음을 보라. 상기한 프리브스팅, <제국주의 부채의 탓에 걸린 우크라

이나>; 같은 저자, The Gigantic Destruction of the Ukrainian Society, 12 December 2022, <https://links.org.au/gigantic-destruction-ukrainian-society>. 이 장에서의 모든 수치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이 두 글에서 따온 것이다. 이 두 글에서 독자들은 이러한 정보에 대한 출처도 볼 수 있다.

[127] CSIS, p. 14 and 19

[128] Jakob Zirm: Ukraine: "Die Entwicklung von 15 Jahren ist ausgelöscht", Die Presse, 03.12.2022, <https://www.diepresse.com/6223189/ukraine-die-entwicklung-von-15-jahren-ist-ausgeloescht>

[129] CSIS, p. 15

[130] CSIS, p. 27

[131] CSIS, p. 17

[132] Ronja Ganster, Jacob Kirkegaard, Thomas Kleine-Brockhoff, and Bruce Stoke: Designing Ukraine's Recovery in the Spirit of the Marshall Plan, German Marshall Fund of the United States, September 2022, p. 17

[133] CSIS, p. 26

[134] CSIS, p. 25

[13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South Korea as an Imperialist Power. On the nature of South Korean monopoly capital and the ensuing programmatic tasks of the workers vanguard, December 2019,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study-on-south-korea-as-an-imperialist-power/>; 노동자혁명당(준) 팸플릿,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중 "자료: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136] V.I.Lenin: Plan of Hegel's Dialectics (Logic) (1914); in: Collected Works

Vol. 38, p. 316

[137] Fourth International: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Manifesto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in May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Pathfinder Press, New York 1973, p. 32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3부.

전쟁과 노동자 계급의 임무

3.1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3.2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3.3 모순적 성격을 가진 전쟁에서 맑스주의 전술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아프리카/중동/동아시아의 전쟁 위협과 분쟁의 이중적 성격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서방 대 중·러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타도!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
도 주어선 안 된다!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성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사무국과 합동 발표, 2023년 8월 18일, <https://blog.wrp-korea.org>

1. 조선반도/한반도에 전쟁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기구 유엔의 흑독한 대북 제재로 식량 부족과 주민들의 비참한 생존조건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남한 정부는 이미 올 1월 핵무장 약속을 드러냈다. 4월에는 남한 대통령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여 남한 핵무장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핵 협의그룹 (NCG)을 설립하고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남한 배치가 그 골자다. 40여 년 만에 다시 미 핵무기가 남한에 재도입되는 상황이다.

2. 이에 대응해 북한도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5개월 간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6회,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3회,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3회를 실행했다. 핵탄두도 이미 3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 남북에서의 이 같은 핵무장 움직임 및 군비 증강 박차와 맞물려 있는 것이 다름 아닌 미·중 대결을 비롯한 강대국들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의 가속화다. 미국은 북한만이 아니라 중국 (및 러시아)도 겨냥하는

미일·한 3각 동맹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며, 이를 위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또 대만·필리핀과의 동맹을 심화하고 정기 해상 순찰을 중국 해안에 근접 실시하여 동아시아·남중국해에서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4. 동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월 중순 동해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 합동훈련을 실시했고, 8월 초에는 양국 군함 11척으로 구성된 연합 해군 초계함이 알래스카 인근에서 미국 영토에 접근하는 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또 북한 정권과의 유대 심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7월말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3일간의 평양 국빈 방문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최초의 고위급 북한 방문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반동적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푸틴 정권이 북한의 소련식 무기와 군수품이 러시아군의 무기시스템과 호환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 전인대 상무위 부위원장 리홍중의 최근 북한 방문은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바싹 다가서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한 구시보가 강조했다.

5. 남북한 간 및 서방 대 중·러 간의, 또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이러한 긴장은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쟁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사적 충돌의 성격은 무엇인가? 맑스주의자로서 우리는 전쟁에서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하고 전쟁 진행 속에서 발전하는 그들의 이해관계 총체를 평가분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남한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은 일련의 문건을 통해 미·중·일·러가 제국주의 강대국임을 설명해왔다. 그에 따라 우리는 이들 열강 간의 어떠한 충돌에서도 열강 모두를 겨냥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내건다. 제국주의 강대국은 모두가 노동자·피억압인민의 적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강대국 모두에 똑같이 반대하며, 모든 형태

의 제재와 대국 쇼비니즘, 군국주의, 제국주의(핵)무장을 거부한다.

6. 민족자주파를 비롯한 각종 스탈린주의자들의 견해와는 달리, 남한은 “신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 나라가 아니다. 약 20년 전부터 이미 남한은 남반구 반식민지 인민들을 초과착취하고 억압하는 제국주의 국가다. 일본·영·불·독처럼, 또는 호주·네덜란드·이스라엘처럼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에서 자신의 몫을 챙기고 있는 그 자체로 제국주의 국가다. 남한의 주요 재벌 대기업들은 세계 최대 초국적 독점체 반열에 올라와 있다. 윤석열의 군국주의 드라이브는 바이든이 시켜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다. 제국주의자로서 하는 것이다. 경제면에서만이 아니라 군사면에서도 남한을 자립적 제국주의 열강으로 입지 구축을 노리는 남한 자본가정부의 야망이 그 일차적 동기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자체 핵 보유”에 대해 언급하고, 남한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든다는 대외정책 컨셉을 수립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내걸고 등등, 이 모든 것은 미국에 ‘예속’되어 받아적어 읽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남한을 정치·군사적으로 강력한 제국주의 열강으로 만들고 싶은, G7 반열에 올라 대국들과 어깨를 겨루고 더 많은 제국주의 노획물 분배 몫을 챙기고 싶은 남한 독점 부르주아지의 대국굴기 열망을 반영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단지 “윤석열 퇴진”을 넘어 남한 제국주의 부르주아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자본가정부를 타도하고 그것을 노동자 평의회와 민병에 기반한 노동자정부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7. 반면, 북한은 과거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였다가 지금은 자본주의 반식민지로 전회됐다. 북한이 예를 들어 파키스탄처럼 핵무기와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경제적으로 빈곤하며 중국 자본에 북한 경제가 깊이 종속되어 있다. 민족자주파의 주장과는 달리 북한 정권은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계도 없다. 김정은 정권은 “돈

주”(錢主) 자본가계급과 군사 관료에 기반한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이다. 중국-러시아와 오랜 관계가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중러의 단지 “대리인”으로 보는 것은 오류다. 북한 정권은 그 역사 전체를 통틀어 내내 모스크바와 베이징으로부터의 독자성을 반복해서 보여주어 왔다.

8.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간 상호 충돌에서는 관련 모든 강대국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하지만, 남한/미국과 북한 간의 충돌에서는 북한을 방어한다. 그러나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이러한 충돌에서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군사 원조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이것이 자동으로 북한을 베이징과 모스크바의 “대리인”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제국주의 국가에 대하여 민족해방 투쟁을 벌이는 (반) 식민지 나라가 다른 제국주의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은 전쟁 사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1914-18년 영국에 맞선 아일랜드 반군에 대한 독일의 원조, 1937-45년 항일전쟁 동안 반식민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 그리고 2022년 2월 이래 항러 전쟁에서 반식민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원조 등). 물론, 미국/서방 제국주의와 중러 제국주의 간의 전면전쟁 맥락에서라면 한반도의 충돌은 종속적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회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도 총체적 패전주의 입장을 적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오스트리아 제국과 반식민지 세르비아와의 전쟁이 전체 제국주의 상호 간의 전면전 맥락에서 종속적 요소였던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9. 그 역사적인 쇠퇴/사멸기에 있는 자본주의가 3개 모순 라인의 가속을 촉발한다는 점, 사회주의자들이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민중의 투쟁, 2)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들의 투쟁, 3) 제국주의 열강들 간의 상호 충돌이 그것이다. 이 모순 라인 각각은 종종 서로 겹치지만 동

알아지는 않다. 사회주의자가 이 모순 라인 중 하나를 무시한다면, 피억압자의 편을 드는 데 실패한다면, 이 또는 저 제국주의 열강에 지지를 준다면, 그는 프롤레타리아 해방투쟁의 대의를 배신하고 있는 것이다!

10.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과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은 노동자계급·피억압자의 사회주의혁명을 통해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들을 파괴하고, 남·북한 지배계급을 타도할 때, 그 때 비로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해질 것임을 밝히는 바다. 한반도의 혁명적 통일을 위하여 투쟁! 코리아 노동자·농민 공화국을 위하여 투쟁!

* * * * *

한반도 전쟁 위험에 관한 우리의 다음 문서들을 참조하십시오.

<제국주의와 자본의 지배를 타도하지 않고는 평화는 없다! - 사회주의노동자혁명을 통해 평화를!>, 2019년 3월 8일, https://blog.wrpkkorea.org/2022/02/blog-post_12.html

<<[소책자] 남한 제국주의와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임무>>, 2020년 9월, https://blog.wrpkkorea.org/2022/06/blog-post_56.html

<남한 제국주의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전술 (테제)>, 2020년 8월, https://blog.wrpkkorea.org/2022/05/blog-post_58.html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남한 - 한국 독점자본의 성격과 그에 따른 노동자전위의 강령적 임무>, 2019년 12월, <https://blog.wrpkkorea.org/2023/03/pdf-rcit-2019-12-i.html>

<한·일 제국주의 무역전쟁 분쇄! - 모든 배외주의·민족주의 보이콧 캠페인 반대! 무역전쟁이 아니라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자!>, 2019년 7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2/02/blog-post.html>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2023/05/g7.html>

<정세인식 토론 총괄정리: 현대 제국주의와 “다극 세계질서”론 - 자주파와 좌파 일각의 현 정세인식 오류에 대하여>, 2023년 5월, https://blog.wrpkorea.org/2023/05/blog-post_14.html

Again on Capitalist Restoration in North Korea, 12 June 2018,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sia/again-on-capitalist-restoration-in-north-korea/>

윤석열을 위시한 G7 서방 제국주의자들의 대북 "핵군축" 요구

-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군축"을 요구하는 운동진영 일각의 오류에 대하여

노동자혁명당 준비모임, 2023년 5월 24일, <https://blog.wrpkorea.org>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왜 운동진영 일각의 "핵군축"을 비롯한 "군축 평화!" 슬로건이 오류라고 주장하는가?

평화주의 정책은 반동적이고 공상적이다. 평화주의 정책은 폭력과 전쟁을 원리적으로 거부하며, 나아가 세계 자본주의를 절멸시키는 것 없이도, 그리고 세계 사회주의공화국연방을 창설하는 것 없이도 무기를 — 핵무기를 포함하여 — 폐절시킬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한다.

그와는 달리, 맑스주의자들은 폭력과 전쟁에 원리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정의의 전쟁과 부정의의 전쟁이 있고, 진보적인 폭력과 반동적인 폭력이 있다. 여성을 예측시키기 위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은 반동이다. 여성 억압을 끝장내기 위한 여성의 남성에 대한 폭력은 진보다. 제국주의 전쟁은 반동이지만 노동자계급의 또는 피억압인민의 해방 전쟁은 진보다.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억압자의 행동과 피억압자의 행동을 같은 지평에 두는 평화주의에 반대하며, 이 평화주의가 폭력과 전쟁 일반을 거부하는 것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화로운 자본주의 체제가 가능하다는 환상에 반

대한다. 자본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군국주의와 군비경쟁, 전쟁은 계속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계속 존재하는 한 핵무기는 계속 존재할 것이다. "군축" 요구는 객관적으로 자본가 정부에 대한 청원이다. "핵군축" 슬로건도 역시 지배계급에 호소하는 행위다. 즉 지배계급더러 좀 더 평화적으로 되어 달라는, 핵무기를 포기하는 조약에 동의해 달라는 읍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제국주의의 역사가 증명해왔듯이, 이것은 완전히 공상적인 슬로건으로서 독점 부르주아지에 대한 위험한 환상을 만들어낼 뿐이다.

나아가, 우리 혁명적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제국주의 열강 (및 그들의 거대한 무기고)에 대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제창하지만, 반(半)식민지 나라들의 그러한 핵무기 보유 권리에 반대하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 우리는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부에 반대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보유 권리를 방어한다. "북한의 핵무장 포기"와 "남북한 군축"을 제안하는 <전진>이나 <사진연> 등 운동진영 일각의 평화주의 요구는 한 줌의 제국주의 열강에 의해 세계 대다수 반식민지 인민이 억압·초과착취 당하고 있는 오늘날의 제국주의 현실을 망각하는 요구다.

반식민지 나라에 이 미사일들이 미 제국주의 (및 남한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일종의 억지력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남한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방어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권리에도 반대하지 않는다. 이란이 미 제국주의와 이스라엘 제국주의에 의한 거듭된 도발·공격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권리는 방어 되어야 한다.

모순적 성격을 가진 전쟁에서 맑스주의 전술

-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아프리카/ 중동/ 동아시아의 전쟁 위협은 분쟁의 이중적 성격을 인식해야 할 필요를 보여준다

미하엘 프리브스팅,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 국제서기, 2023년 8월 23일, www.thecommunists.net

쇠퇴·사멸해가는 자본주의의 모순이 격화하면서 점점 더 전쟁과 무력 충돌을 유발하는 비상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다.[1] 서방 대 중러 제국주의 강대국 간 긴장 고조[1]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2], 프랑스와 EU의 지지를 받는 ECOWAS (서아프리카경제연합)의 니제르 침공이 임박해 있다.[3]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가 가자 지구와 레바논 헤즈볼라와 이란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4]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페르시아에서 미 해군과 해병대가 이란에 근접 주둔하며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남중국해에서는 중국과 (미국이 지지하는) 필리핀 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6], 중·미 간에 계속되어온 대만 분쟁이 있다.[7] 끝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의 북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여기서는 이 분쟁들 각각에 대한 분석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며, 독자들에게는 각 관련 문서를 참조할 것을 권한다. 이 글에서는 맑스주의자들이 그러한 분쟁들에서 해당 전술을 구체화할 수 있는 토대가 될 방법론적 문제를 다룰 것이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자.

역사상에는 복잡한 성격을 가진 전쟁들과 나란히, 그 성격이 아주 단

순 명백한 전쟁들이 있어 왔다. 과거 식민 열강이 아프리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한 여러 전쟁들이 그렇다. 보다 최근의 예를 들자면, 1994-96년 및 1999-2008년 체첸 인민을 상대로 한 러시아의 두 차례 전쟁, 미국의 아프간 (2001년) 및 이라크 (2003년) 침공, 2008년에서 2021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가자를 상대로 한 네 차례 전쟁 (및 2006년 레바논 공격)이 있다.[9]

이 전쟁들은 분명히 피억압 민족과 반(半)식민지 나라 — 즉 형식상 독립된 국가지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자본주의 나라들 — 에 대한 제국주의 열강의 전쟁이었다.[10] 그러한 전쟁에서 RCIT를 비롯한 그 밖의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피억압자를 편 들었고, 제국주의 침략자에 맞선 피억압자의 군사적 승리를 제창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의 그와 같이 명백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칭 맑스주의자들이 그들의 반제 의무를 올바르게 이행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즉 피억압 민족의 군사적 승리와 제국주의 열강의 패배를 내걸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쟁의 복잡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대한 기회주의적 영합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들의 썩은 정치적 방법(론)의 결과였다.

이중적 성격 -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

그러나 우리가 거듭 지적했듯이, 제국주의 패권경쟁의 가속화 — 자본주의의 쇠퇴와 러-중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 — 으로 촉발된 — 는 강대국들 상호 간의 긴장 고조뿐만 아니라 피억압 민족들을 포함하는, 모순적 성격을 갖는 충돌들의 증가도 또한 초래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패권경쟁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식민지 세계에서 세력권을 확대하려는 도발 침탈 드라이브 또한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은 강대국들 간의 대결 고조 (또는 그들 대리인들 간의 충돌 증가)뿐만 아니라 피억압 인민들에 대한 공

격 증가도 촉발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이 민족 해방전쟁들의 증가 또한 촉발하는 이유다.

제국주의 강대국에 대항하는 반식민지 나라의 전쟁,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전쟁과 같은 그러한 충돌이 모순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해당 반식민지 나라, 해당 피억압 민족이 동시에 다른 제국주의 국가와 — 직간접적으로 — 동맹관계에 있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들이다. (즉, 우크라이나가 서방 제국주의와, 북한이 중러 제국주의와, 니제르가 러시아 제국주의와, 필리핀이 미 제국주의와, 이란이 러·중 제국주의와 동맹관계에 있는 것과 같은).

혁명적 공산주의인터내셔널 동맹 (RCIT)은 이러한 충돌을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으로 성격규정 한다. 해방 전쟁의 성격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는 뜻이다. 맑스주의자들의 임무는 이러한 충돌의 변증법적 성격을, 서로 부당한 투쟁 속에 있는 "대립물의 통일"로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에, 초창기 소련 철학자 아브람 데보린이 강조했듯이, "발전의 일반적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즉, 맑스주의자들은 이러한 충돌의 주된 성격을 식별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11] 달리 말하자면, 맑스주의자들은 충돌의 본질의 주된 특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헤겔이 말했듯이, "존재의 진실은 본질이다.")

그러한 전쟁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복합적 성격 또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 충돌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 서방 열강들이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것이 — 적어도 지금까지는 — 전쟁의 성격을 질적으로 바꾸지는 않았다. 즉, 그 본질에서, 그 본질의 주된 특징에서 이 충돌은 러시아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의 민족방위 정의전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니제르에서는 치아니 장군의 군사정권이 러시아 바그너 용병을 끌어들이려 하고 친러시아 국가들 (말리와 부르키나파소 등)과 동맹관계에 있다. 그럼에도 ECOWAS 군대의 침공 (프랑스와 EU의 지지를 받는데 대한 니제르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이스라엘 (및 미국)과 이란 간의, 또는 미국/남한과 북한 간의 전쟁이 시작될 경우에도 사정은 같다. 즉 이란 또는 북한의 저항은 진보적 성격을 가진다. 그러한 충돌들에서 RCIT는 제국주의 침략자 (및 그 대리인)에 대항하여 니제르나 이란, 북한 같은 반식민지 나라의 방어를 제창한다. 당연히, 이러한 방어에는 이 나라들의 꼭지점에 있는 부르주아 정권, 독재 정권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 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제국주의 적에 맞서 피억압 민족을 편 들지만, 이 제국주의 적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주의 강대국에 엄격히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들의 서로에 대한 제재나 보호무역주의, 서로를 겨냥한 군비증강에 대해 어떠한 지지도 거부한다.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의 요소가 충돌의 핵심 본질인 경우, RCIT는 한 진영을 편 드는 것이 아니라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 ("이중 패전주의")을 제창한다. 이는 사회주의자들이 양 진영 모두에 대한 엄격한 반대를 내걸고 각각의 정부에 대항하여 계급투쟁을 밀어가기 위해 전쟁을 이용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대만 분쟁이나 스프래틀리 군도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의 분쟁이 그러한 경우다. 양 진영 모두에 대한 혁명적 패전주의 입장을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대만이나 필리핀의 민족자결권 요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쟁의 구체적 양상과 세력 관계 때문에 그러한 민족적 요소가 적어도 현재로

서는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에 종속된 부차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충돌의 성격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성격의 주 특징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러한 충돌의 이중적 성격 때문이다. 변증법적 "대립물의 통일"으로서의 그 본질 때문이다. 발전은 내적 모순의 전개이며, 레닌이 헤겔 변증법을 "발전에 대한 심오한 학설"[13]이라고 부른 것은 그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러한 발전은 주어진 현상의 내적 모순을 원인으로 하며 ("발전은 대립물의 '투쟁'이다"), 이 과정은 양질 전화를 가져올 수 있다.[14]

따라서 맑스주의자들은 해당 분쟁의 구체적 전개를 분석하고, 그것의 초기 지배적 요소 — 예를 들어 해방전쟁으로서의 그 일차적 성격 — 가 약화되고 다른 요소 (초기에 종속적이었던 요소, 즉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요소)가 강해지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한 전과 과정이 루비콘 강을 건너면, 해당 분쟁의 성격이 바뀐다. 그러한 경우에 맑스주의자들은 전술을 조정하여 반식민지 나라 방어를 이중 패전주의 입장으로 대체해야 한다. 우리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일련의 문서에서 이 문제를 상세히 논의해왔다.[15]

사회제국주의와 교조적 기권주의

분쟁들의 모순적 성격 및 그 전개에 대한 이러한 평가분석은 추상적 학술 훈련이 아니다. 그러한 분석은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에 따른 올바른 전술의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므로 맑스주의자들의 필수불가결한 임무다. 잘못된 분석은 틀림없이 잘못된 안내자로서 잘못된 전술을 유도한다. 따라서 세계정세가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전쟁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정세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분

쟁을 분석하고 필요한 전술을 도출하는 데 있어 그러한 변증법적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사회주의를 자임하는 대부분의 조직들이 이 분쟁들의 그러한 복합적 성격을 인정하길 거부하거나, 인정하는 데 실패한다. 온갖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는 실패다. 많은 조직들이 사실상 제국주의 열강 어느 하나를 편 든다. 그러한 사회제국주의자들의 예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전쟁에서 러시아에 만세를 외치거나, 중국의 편을 드는 스탈린주의자-푸틴주의자들이 있다. 반면, 한 강대국에 맞서 피억압국의 편을 들지만 다른 강대국의 개입에 눈을 감거나 이 강대국의 배외주의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 사회제국주의자들이 있다. 나토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반대하지 않거나, 우크라이나 또는 핀란드-스웨덴 같은 다른 유럽 나라들의 나토-EU 가입에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 일부 우크라이나 지지 “사회주의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회제국주의에 영합하는 또 다른 예로는 서방 침략자에 맞서 니제르나 이란을 지지하지만 러시아의 개입에 반대하는 데 실패하는 — 심지어는 환영하는 — “반제국주의자”들이 있다.

사회제국주의에 대한 그러한 영합은 거부하지만, 이 분쟁들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독단론적 “대리전” 교리로 대체하는 사회주의 조직들이 있다. 분쟁의 양측 모두에 제국주의 열강들이 어떤 식으로든 개입해 있는 전쟁들은 모두 자동으로 강대국들의 “대리인”들 간의 분쟁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그에 따라 이들 사회주의 조직들은 피억압 민족들을 방어하길 거부하고 반동적 기권주의 입장을 제창한다. 이러한 보이콧주의 정책은 피억압인민 주체를 부정한다. 그리고 제국주의 지배에 대항하는 이 피억압인민의 현실 투쟁도 따라서 부정한다. 이는 정리하고 공격에 맞서 생존권 사수를 걸고 파업 중인 한 기업의 노동자들을, 다른 기업의 경쟁 자본가를 도와줄 뿐이라며 방어하길 거부하는 “사회주의자들”보다 나은 게 없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상세히 설명했

듯이, 이러한 접근태도 뒤에는 제국주의에 순응하는 접근방법이 있다. “제국주의”라는 용어는 쓰지만 제국주의 열강 대 반식민지 모순을 부정하고, 따라서 사실상 제국주의의 현존 자체를 부정하는 정세인식 방법이다. 레닌이 “제국주의적 경제주의”라고 비판한 유파의 경향을 이어받은 방법(론)이다.[16]

그러한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방법론에는 오늘날 민족·식민지 문제를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배외주의적(사회쇼비니즘적) 오만이 깔려 있다. 또 계급투쟁에 백해무익한 종파주의도 깔려 있다. “순수”하지 않은, 반동적인 심지어는 제국주의적인 세력의 영향을 받는 각개의 모든 투쟁에 추상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제국주의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구체적 투쟁들을, 그 모든 내적 모순들을 가진 채로 그대로 받아야 한다. 반동적 또는 제국주의적 영향에 맞서기 위해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러한 투쟁에 참가하여, 박식한 체히는 논평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부로부터 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레닌이 1916년 1차 세계대전 최고조기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 것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현 전쟁에서 교전국 총참모부들은 적 진영의 어떠한 민족적·혁명적 운동이라도 다 이용하려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 독일 인들은 아일랜드의 반란을 이용하고 프랑스인들은 체코의 운동을 이용한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관점에서 완전히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적의 가장 사소한 약점까지도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굴러들어 오는 모든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심각한 전쟁이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고 말 것인데, 이는 어느 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떠한 힘으로 화약고가 ‘폭발’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위대한 해방 전쟁에서, 제국주의가 위기를 심화 확대시키기 위해 불려오는 단 하나의 재앙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항하는 모든 인민 운동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매우 가련한 혁명가일 것이다.”[17]

관련 각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규정에 기초한 방법(론)

맑스주의 나침반 없이는, 모순적 이중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증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정세에서 사회주의자들은 길을 잃는다. 분쟁의 성격을 (시간 경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격의 변화를 포함하여) 판정하기 위해서는, 전쟁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계급적 성격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들의 이해관계가 전쟁 전과 전쟁 진행 중에 진화 발전하는 부분들까지 포함하여 그 총체성을 검토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무엇보다도 일치적으로, 관련 국가들의 계급적 성격을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트로츠키는 다음과 같이 써두었다. "노동자들이 국가의 계급적 성격 — 제국주의 국가인지, 식민지 국가인지, 노동자 국가인지 — 과, 그리고 이와 함께 그 국가들 상호 간의 관계 및 각각의 내적 모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노동자들이 정세 속에서 올바른 실천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준다." [18] 오늘, 노동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1991/92년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처럼 관료적으로 퇴보·타락한 노동자 국가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남반구 나라들에 대한 제국주의 약탈과 초과착취에 관한 저작에서 상세히 설명했듯이, 오늘날 전 세계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로 나눌 수 있다. (물론 이 두 범주 각각의 내부에 존재하는 종차[種差] 또는 색조 차이를 무시하지 않고서 말이다). [19]

이로부터, 오늘날 분쟁의 성격을 인식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도 러시아[20]나 중국[21]과 같은 새로운 강대국의 계급적 성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21] 거듭 지적해왔듯이,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들 국가의 제국주의 성격을 인식하길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전술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중국·러시아가 제국주의 열강으로 떠오른 결과로 기존 동맹이 약화되고 새로운 동맹이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미국을 대체해 중러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원칙의 문제로서, 맑스주의자들은 제국주의 국가에 대항하여 반식민지 나라를 지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추상적 교조(도그마)로 전환시켜서는 안 된다. 각개의 분쟁을 그것의 구체적인 역사적 진화 발전 속에서 평가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분쟁은 억압과 지배의 오랜 역사를 가진 분쟁인가, 그렇지 않은가? 또, 이 또는 저 반식민지 나라가 해당 제국주의 열강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조사연구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전쟁에 다른 분쟁들이 미치는 영향이 (여러 영향들 중에)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조사연구해야 한다. 그러한 분석은 시간 경과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분쟁의 성격 변화를 판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우크라이나의 경우, 러시아에 의한 한 세기 반 이상의 (레닌 시절 소련 초기의 짧은 기간을 빼고) 민족 억압으로 우크라이나 인민이 고통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91년 우크라이나가 독립 국가가 된 이후 서방 제국주의가 경제적 지배면에서 러시아 제국주의와 별도로 영향력을 확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러시아의 경제적 지배를 전면 대체하지는 못했다.) [22] 반면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푸틴은 이 나라의 지위를 반식민지에서 피 점령 식민지로 전화시키려고 했다. (20년 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했던 것과 유사하게).

니제르의 경우, 처음에는 식민지로서, 1960년에 형식상 독립국이 된 이후에는 반식민지로서, 프랑스 제국주의에 의해 약 한 세기 동안 지

배되어 왔다. 니제르에서 프랑스에 대한 대중적인 증오는 이 뿌리 깊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대중 상당 부분의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동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반동적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러시아가 서아프리카에서 어떠한 관련 역할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서방 열강의 적수로 보이고 있는 그 단순한 사실에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현상이다.

대만의 경우 의심할 바 없이 민족적 요소가 존재한다. 토착 대만 인민이 — 1947년 국공내전에서 패배하여 대만을 침략한 국민당과는 달리 — 언제나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주의자들은 처음에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 엄하게 부인했다.[23] 반면, 1947년 이래로 별개의 독립체로서의 대만은 내내 그 존속을 전적으로 미 제국주의에 의존한, 줄곧 반식민지다.

최근의 또 다른 예는 시리아에서 YPG/PKK (인민수비대/쿠르드노동자당)의 모순적 역할로, 한편으로는 다이시 (IS:이슬람국가)에 맞서 쿠르드 인민을 방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군의 해당 지역 점령에 일등 공신 역할을 했다.

이러한 변증법적·역사적 접근법이 맑스주의자들이 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할 수 있게 해주며, 나아가 그에 따른 전술과 함께 올바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준다.

모순적 성격을 가진 분쟁들이 빈발하는 세계정세가 사회주의자들 사이에 더 많은 혼란과 분열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본다. 많은 사회주의 자임 조직들이 바리케이드의 저 편에서 있을 것이다. 전쟁에 대한 변증법적, 계급적 접근법에 동의하고 현 세계정세의 주요 분쟁들에 대해 공통의 입장을 가진 진정한 혁명가들이 힘을 모으는 것이 더욱더욱 시

급하다. RCIT는 이러한 동지들과 함께 혁명당을 — 일국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 공동으로 건설하기를 기대한다!

[1] RCIT는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상호 패권경쟁을 여러 차례 다루었다. 예를 들어 다음을 보라. <세계 정세전망 2021-22년: 준 혁명적 세계정세 진입 > <https://blog.wrpkorea.org/2022/05/2021-22.html>; 다음 책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다음 두 팸플렛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제국주의 간 냉전은 어떻게 바이든 하에서도 계속되고 있나>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10.html; <두 주인을 섬기는 시종 - 스탈린주의와 제국주의 신냉전>,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24.html; 이 문제에 관한 더 많은 문서들을 다음 링크로 들어가서 볼 수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및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llection-of-articles-on-the-global-trade-war/>.

[2] 우크라이나 전쟁과 현 나토-러시아 분쟁에 관한 모든 RCIT 문서가 다음의 우리 웹사이트 특별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compilation-of-documents-on-nato-russia-conflict/>. 노동자혁명당(준)이 펴낸 다음 책도 보라.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국주의>>, 2022년 1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1/blog-post.html>

[3] 이에 대해서는 RCIT와 나이지리아 자부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the-coup-in-niger/>.

[4] 이에 대해서는 RCIT가 낸, 다음 링크에 있는 여러 성명들과 기사들을 보라.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africa-and-middle-east/collection-of-articles-on-fourth-gaza-war/>

[5]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페르시아만에 미군 전함(전투기)해병대 3,000명 투입

-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군사위협 타도! 미국 (및 이스라엘)과의 어떠한 군사적 대결에서도 이란을 방어하자! 이란 물라-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3000.html>

[6] <중국 대 필리핀/미국: 스프래틀리군도 분쟁과 제국주의 상호 패권쟁투>, 2023년 8월 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3.html

[7]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펠로시의 대만 방문: 미중 전쟁을 촉발할 수 있다 - 양측 제국주의 모두 반대! 제국주의 강대국 미중 모두 타도! 미중 대결에서 노동자운동은 양측 모두에 대해 혁명적 패전주의를 취해야 한다>, 2022년 8월 1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2.html; <대만 테제] 강대국 패권쟁투와 민족 문제 - 미중 충돌과 그것이 자본주의 세계질서에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대만 민족 문제와 혁명적 패전주의의 강령에 대하여>, 2022년 8월 20일, https://blog.wrpkorea.org/2022/08/blog-post_72.html

[8] 우리의 다음 성명을 보라. RCIT, <한반도 전쟁 위험 - 제국주의 미일한에 대항하여 북한을 방어하자! 서방대 중러 간 제국주의 패권쟁투 타도! 김정은 스탈린주의-자본가 정권에 어떠한 정치적 지지도 주어선 안 된다.>, 2023년 8월 18일, https://blog.wrpkorea.org/2023/08/blog-post_19.html

[9] 지난 40년 우리의 반제국주의 투쟁들에 대한 지지 역사를 개괄한 글 (문서, 사진, 동영상 링크와 함께)로는 다음 논문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Struggle of Revolutionaries in Imperialist Heartlands against Wars of their “Own” Ruling Class. Examples from the history of the RCIT and its predecessor organisation in the last four decades, 2 September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struggle-of-revolutionaries-in-imperialist-heartlands-against-wars-of-their-own-ruling-class/>

[10] 제국주의 국가와 반식민지 국가라는 이들 맑스주의 범주에 대한 상세한 논의로는 다음 책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11] Abram Deborin: Lenin als revolutionärer Dialektiker (1925); in: Unter dem Banner des Marxismus, 1. Jahrgang (1925-26), S. 224 (영역은 필자)

[12] 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The Science of Logic, (Translated by A.V. Miller; Foreword by J.N. Findlay), Allen & Unwin, London 1969, p. 389

[13] 레닌, <마르크스 간략한 전기와 마르크스주의 해설>, 레닌전집 58권. (“마르크스”), 양효식 옮김, 아고라, 78쪽.

[14] V.I. Lenin: On the Question of Dialectics (1915); in: LCW 38, p.358

[15]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RCIT: Towards a Turning Point in the Ukraine War? The tasks of socialists in the light of possible lines of development of the war of national defence in combination with the inter-imperialist Great Power rivalry, 11 March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towards-a-turning-point-in-the-ukraine-war/>; <나토 편입: 우크라이나민에게 제국주의 덫이다 - 푸틴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한 인민전쟁으로 나아가자! 우크라이나의 나토-EU 종속 반대! 러시아 제국주의와 서방 제국주의 모두에 맞서자!>, 2023년 6월 19일, https://blog.wrp-korea.org/2023/06/blog-post_22.html; Michael Pröbsting: Ukraine War: What Are the Results of the NATO Vilnius Summit? On the contradictory process of NATO-Ukraine rapprochement and, at the same time, diverging interests between Western powers and Kyiv, 13 Jul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what-are-the-results-of-the-nato-vilnius-summit/>; 같은 저자, Is Ukraine About to Become NATO's “Israel” in Eastern Europe?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s about plans of Western governments to transform their relationship with the Ukraine at the NATO Summit in July, 29 Ma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worldwide/global/is-ukraine-about-to->

become-nato-s-israel-in-eastern-europe/

[16] 레닌의 <맑스주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외에 우리의 다음 팸플렛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overty of Neo-Imperialist Economism, Imperialism and the national question – a critique of Ted Grant and his school (CWI, ISA, IMT), January 202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antism-imperialism-and-national-question/>

[17] 레닌, <민족자결에 관한 토론 총괄 정리>, 레닌전집 64권 (“맑시즘의 회화와 제국주의적 경제주의”), 양효식 옮김, 아고라, 99쪽.

[18] Manifesto of the Fourth International on Imperialist War: Imperialist War and the Proletarian World Revolution. Adopted by the Emergency Conference of the Fourth International, May 19–26, 1940, in: Document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The Formative Years (1933–40), New York 1973, p. 327, <http://www.marxists.org/history/etol/document/fi/1938-1949/emergconf/fi-emerg02.htm>

[19]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에 대한 우리의 가장 자세한 저작으로는 다음 두 책이 있다. 미하엘 프뢰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2019년,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The Great Robbery of the South. Continuity and Changes in the Super-Exploitation of the Semi-Colonial World by Monopoly Capital Consequences for the Marxist Theory of Imperialism, RCIT Books, 2013,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great-robbery-of-the-south/>

[20] 우리는 러시아 자본주의와 러시아의 제국주의 강대국 부상에 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The Peculiar Features of Russian Imperialism. A Study of Russia's Monopolies, Capital Export and Super-Exploitation in the Light of Marxist Theory, 10 August 2021,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the-peculiar-features-of-russian-imperialism/>; 노동자혁명당(준),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러시아 제국주의의 특색>, 2021년 10월, https://blog.wrpkorea.org/2022/05/blog-post_61.html; Michael

Pröbsting: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d the Rise of Russia as a Great Power. On the Understanding and Misunderstanding of Today's Inter-Imperialist Rivalry in the Light of Lenin's Theory of Imperialism. Another Reply to Our Critics Who Deny Russia's Imperialist Character, August 2014,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m-theory-and-russia/>; Russia as a Great Imperialist Power. The formation of Russian Monopoly Capital and its Empire - A Reply to our Critics, 18 March 2014 (이 팸플릿에는 우리의 러시아 제국주의 성격규정을 처음으로 정립한 2001년 문서가 포함되어 있다), <http://www.thecommunists.net/theory/imperialist-russia/>;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Empire-ism' vs a Marxist analysis of imperialism: Continuing the debate with Argentinian economist Claudio Katz on Great Power rivalry, Russian imperialism and the Ukraine War, 3 March 2023, <https://links.org.au/empire-ism-vs-marxist-analysis-imperialism-continuing-debate-argentinian-economist-claudio-katz/>; <러시아: 제국주의 열강인가, 반주변부 국가인가?

- 아르헨티나 경제학자 카츠 클라우디오 논문에 대한 답변>, 2022년 8월 11일, https://blog.wrpkorea.org/2022/12/blog-post_11.html; Russian Imperialism and Its Monopolies, in: New Politics Vol. XVIII No. 4, Whole Number 72, Winter 2022, https://newpol.org/issue_post/russian-imperialism-and-its-monopolies/; Once Again on Russian Imperialism (Reply to Critics). A rebuttal of a theory which claims that Russia is not an imperialist state but would be rather "comparable to Brazil and Iran", 30 March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once-again-on-russian-imperialism-reply-to-critics/>. 이 문제에 관한 여러 다른 RCIT 문서들이 다음의 RCIT 웹사이트 상의 별도 하위 페이지에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1] 우리는 중국 자본주의와 중국의 강대국 부상에 관한 많은 문서를 발표했다. 다음을 보라. 노동자혁명당(준) 소책자, <<레닌 제국주의론 관점에서 본 중국 제국주의>>, 2021년 3월,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27.html; 미하엘 프리브스팅, <<강대국 패권쟁투 시대에 반제국주의>>, https://blog.wrpkorea.org/2022/06/blog-post_9.html; 같은 저자의 다음 논문들도 보라. the second edition of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Imperialism

and Anti-Imperialism (edited by Immanuel Ness and Zak Cope), Palgrave Macmillan, Cham, 2020, https://link.springer.com/referenceworkentry/10.1007%2F978-3-319-91206-6_179-1; China: An Imperialist Power ... Or Not Yet? A Theoretical Question with Very Practical Consequences! Continuing the Debate with Esteban Mercatante and the PTS/FT on China's class character and consequences for the revolutionary strategy, 22 January 2022,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imperialist-power-or-not-yet/>; China's transformation into an imperialist power. A study of th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aspects of China as a Great Power (2012), in: Revolutionary Communism No. 4, <http://www.thecommunists.net/publications/revcom-number-4/>; How is it possible that some Marxists still Doubt that China has Become Capitalist? (A Critique of the PTS/FT), An analysis of the capitalist character of China's State-Owned Enterprises and its political consequences, 18 September 2020,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pts-ft-and-chinese-imperialism-2/>; <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PTS/FT와 중국 사회성격 논쟁> <https://blog.wrpkorea.org/2022/05/ptsft.html>; China's Emergence as an Imperialist Power (Article in the US journal 'New Politics'), in: "New Politics", Summer 2014 (Vol:XV-1, Whole #: 57). 다음 RCIT 웹사이트 특별 하위 페이지에 더 많은 관련 문서가 있다. <https://www.thecommunists.net/theory/china-russia-as-imperialist-powers/>.

[22] 우크라이나 정치·경제적 분석으로는 우리의 다음 팸플렛을 보라. 미하엘 프뢰브스팅, <우크라이나 사회성격: 자본주의 반식민지 사회구성체 - 1991년 자본주의 복고 이래 제국주의 독점체와 과두재벌에 의한 우크라이나 경제의 착취와 기형화에 대하여>, 2023년 1월, https://blog.wrpkorea.org/2023/02/blog-post_22.html

[23]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Michael Pröbsting: Di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lways consider Taiwan as part of the Chinese nation?; published by LINKS (Link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ist Renewal), 6 October 2022, <http://links.org.au/did-chinese-communist-party-always-consider-taiwan-part-chinese-nation>

발행일 : 2023년 11월 11일

발행인 : 노동자혁명당(준)

